

# 공트리

QONQTREE

2023 공익활동 트렌드 리포트

함께 내딛는 한 걸음

우리들의 이유있는 공익활동

내가 OOO하는 이유

공익활동, 어떻게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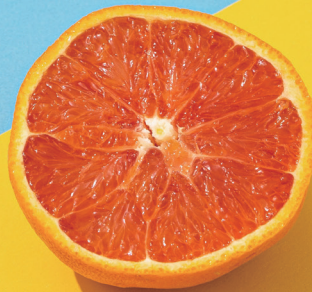
리서치-커뮤니케이션-액션

공익활동 어디에서 할까?

공익활동이 일어나는 도시의 장면들

이런 것도 공익활동이 되나요

공익활동의 도구



# 공트리

QONQTREE

2023 공익활동 트렌드 리포트  
함께 내딛는 한 걸음



**우리들의 이유있는 공익활동**

에세이	망가졌다고 내다 버릴 수 있나요?	6
설문조사	당신의 공익활동 경험을 들려주세요	15
인터뷰	내가 '근로지원인'이 된 이유	20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사회참여'하는 이유	24
	내가 여성들의 책 모임을 시작한 이유	30
	내가 공익활동을 코칭하는 이유	34

**공익활동, 어떻게 할까?**

리서치	우리의 '레퍼런스'는 어디에 있을까?	40
	독일의 기후정치에 비추어보는 우리나라 기후정치 전략	
	데이터를 토대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	47
커뮤니케이션	공익활동에도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54
	시대의 변화에 조직이 발맞추는 법	61
	한국YWCA연합회 100년만의 조직 개편	
	시대의 변화에 기술로 발맞추는 법	69
	빅이슈 앱 개발기	
질문 있습니다	시니어 활동가는 어디에 있을까	74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인 SNS. 어떻게 할까?	80
워크숍	전달하는 디자인 원칙	87
액션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을 멈추자	96
	응답 채취 산업의 종식을 위한 '곰 보금자리' 만들기	103
	남성-이성애 중심의 장례 문화 바꾸기	109
	만딸의 만상제 되기	110
	동성 파트너를 상주로 이름 올리기	112
	'여자가 감히' 주도하는 장례식	114

## 공익활동, 어디에서 할까?

<b>칼럼</b>	공익활동이 일어나는 도시의 장면들	118
<b>찾아보기</b>	서울 곳곳의 모임 공간들	124
<b>인터뷰</b>	마을에서 인생의 틀을 깨다 물푸레 재즈 싱잉 유니버스	128
<b>탐방</b>	서울 너머의 공간들	133
	남원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134
	춘천 커먼즈필드 춘천	136
	공주 자유도	139
	하동 하동청년센터	140
	남해 스페이스 미조	142
<b>찾아 나서기</b>	바다 너머의 공간들	143
	알메달렌, 대화가 가지는 힘	144
	다양성과 함께, 대만 프라이드	150
	독일인 세 명이 모이면 '도서관'이 생긴다?	157
	여행 사슬이 끊이지 않는 일본 배리어프리 온천	164

## 이런 것도 공익활동이 되나요?

<b>공익활동의 도구</b>	겨울에는 담그자 비건 김장	172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연합한다	177
	허파 디비지는 '나는 솔로'	181
	당신의 몸은 안녕한가요?	186





# 우리들의 이유있는 공익활동



에세이

# 망가졌다고 내다 버릴 수 있나요?

글 최지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파트에서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질문하기와 사우나, 아침을 좋아하며, 지은이라고 부르면 여짜 좀 어색하다.

나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한다. 재단에서 나의 업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단체들과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재단 밖에도 나의 '일'이 있다. 먼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에서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기획하고 발송하는 자원활동을 한다. 현재는 멈췄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쓰레기덕질'에서 오거나이저로서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컵어택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성 개발자들과 함께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 '깨톡'을 만드는 Women do IT 활동에도 2년 정도 참여했다. 코로나19 때는 빠띠의 공익데이터 실험실에 참여해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를 연구하기도 했다.

## 온갖 것에 관심 많은 내가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이 모든 활동들의 시작은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직장 밖에서 흥미로운 사람들과 관심 있는 이슈를 다뤄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했지 ‘공익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현장 활동가와 비교했을 때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활동에 쏟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주제를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었지만, 전문성과 지구력을 체득하기 어려웠다. 참여했던 여러 활동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멈춰 버린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핑계를 하나 덧붙이자면,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단체나 활동 숫자가 많아진 탓이다. 직장에서 업무로 만나는 단체와 활동이 많다보니 직장 밖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다소 피로했다.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비해 내가 느끼는 피로감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담당하는 사업의 가짓수가 많고 사업마다 다루는 사회문제가 다 달라서 여러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고충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 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변함이 없거나 악화되다 보니 가짓수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면 택배 기사의 노동 문제가 떠오르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이 들고다니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보면 컵 보증금 이슈가 금세 생각난다. 일터와 일상 어디에서도 사회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문제의 숫자가

많아지니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어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지만, 참여해야 할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솔직히 직접 모임을 결성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수준의 활동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대신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강연과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의 방식을 바꿨다.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멋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연다는데 참여 안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럴 때면 나는 얼씨구나 하고 ‘시민1’이 되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 존재하고 참여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변화의 물꼬 아닐까?

최근에 참석한 행사는 난민과의 대화였다. 일상에서는 아직 낯선 중국, 이집트, 시리아 난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그들의 삶과 생각을 듣는 자리였다. 휴일인데다 행사장까지 왕복 두 시간이 넘었지만, 그 자리에 내가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떠올렸다. 귀찮음을 박차고 간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참 귀했고, 참여자들을 보며 희망과 지원을 얻은 이들의 눈은 반짝였다.

전쟁,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에 더해 혐오와 차별이 온통 뒤섞인 요즘은 멘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용할 정도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공익활동을 알리는 소식지를 열심히 뒤진다. 망가진 세상에 ‘이건 아니잖아!’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장에

달려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며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다. 다행인지 시민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청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질문만 봐도 흥미롭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

물론 이런 자리가 늘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말을 건네는 이의 초대에 신나서 찾아갔지만, 사실 처음은 늘 어색하고 민망하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리에 제 발로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것이다. ‘괜히 왔나?’ 후회하며 애꿎은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다 ‘지금이라도 나갈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내 대화가 시작되고 말들이 이어지다 보면 바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니, 참 잘 왔다고.

생면부지의 낯선 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스파크가 튀거나 일심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낯설어 인사조차 나누기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때로 안도하게 된다. 이 문제와 이 주제에 마음과 시간을 내어 기꺼이 함께하기로 결심한 동료 시민들의 존재. 낯설지만 든든한 위로와 희망이 있기에 필사적으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람들이 있는, 대화가 열리는 자리로 향한다. 갖가지 핑계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의 현장에서 청자로, 참여자로 또 가끔은 실무자로 존재하려는 이유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고 또 만들어 가는 이들이 그 현장에 있다. 그들을 마주했을 때, 이 세상을 조금 더 버텨볼 힘이 생긴다.

## 위기 앞의 생

발품을 팔아가며 좋은 사람들 틈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채웠지만, 일상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긍정적 기운은 금방 소진되고 만다. 세상 소식을 끊고 살면 기운을 좀 더 오래 간직할 텐데 호기심은 계속해서 세상과의 연결을 갈구한다. 그러다 보니 안 좋고 마음 아픈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순간 소중히 쌓아왔던 인류애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최근 가장 크게 절망했던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 인류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슬프고 무서운 뉴스를 연이어 본 요 며칠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며칠 전 꿈속에서는 총을 든 이들에게 쫓겨 어두컴컴한 방에 숨어 있기도 했다. 꿈인데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다행히 발견되기 전 꿈인 것을 깨닫고 화들짝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 내 일상은 붕괴되지 않고 태연하게 이어진다. 여전히 출근해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밥을 챙겨먹고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나도 모르게 우울감과 무력감이 뼈속 솟아나 한숨이 나온다.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나의 일상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어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무고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겨우 눈을 감으면 다시 꿈 속에서 공포에 시달리기를 반복한다.



계다가 전쟁과 달리 기후위기는 나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균열을 내고 있다. 계절마다 그 계절이 가진 풍성한 감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그보다 그 계절이 되면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이 먼저 떠오른다. 봄

이면 산불이, 여름이면 폭우와 폭염이, 가을이면 가뭄이, 겨울이면 삼한사미가 매년 반복되고 심지어 더 심해진다. 기후위기가 몰고 오는 재난과 그에 대한 공포가 매년 더해져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된다.



## 커뮤니티 활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위기’로 처음 체감했던 건 2008년 여름이었다. 워낙 더위를 많이 타기도 했지만, 단순히 덥다는 감각을 넘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낀 첫 해였다.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어도 나의 관심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뿐이었다. 무시무시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당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고 UNEP 한국위원회 산하 대학생환경동아리 유넵엔젤에 가입했다. 과 개강총회는 만나갔어도 환경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했다. 비전공자로서 환경 관련 이슈를 공부했고, 환경의날, 지구의날에는 대시민 캠페인도 벌였다. 모든 활동이 스펙으로 귀결되는 시기였지만, 그보다 지구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렇게 시작된 활동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커뮤니티로 이어졌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에코솔답이라는 커뮤니티 만들어 함께 도시텃밭을 가꾸고, 모래 강 내성천과 개발 이슈로 들끓었던 굴업도로 에코여행을 떠났다. 새해는 환경 다짐을 나누며 시작했고, 소소하고 재미난 환경 실천들을 해내며 20대 후반을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후위기 없는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지만, 당장의 무력감과 불안을 달래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생애주기로 인한 일상의 변화들이 우리를 가로질렀고, 그때의 커뮤니티는 이제 청첩장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커뮤니티는 멈췄지만 환경파괴는 멈추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해졌고 그에 따라 나의 불안과 분노도 커졌다. 나는 함께할 사람들을 다시 찾아 나서야 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온라인커뮤니티 ‘쓰레기덕질’이었다. 빠띠 커뮤니티 중 하나로 쓰레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였다. 온라인 공간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먼저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눴다. 2018년 한 모임에서 쓰레기덕질에서 활동하는 멤버 몇몇을 만나게 되었고, 활동을 듣자마자 당장에 가입신청을 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것저것 하는 게 꼭 맘에 들었다. 그렇게 쓰레기덕질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수월했다. 쓰레기덕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때그때 흥미 있는 것들을 힘주지 않고 재미나게 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버린 쓰레기를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쓰레기를 주우러 등산을 갔다(당시는 플로깅이라는 말이 없던 때라 우리는 ‘줍줍하러’ 간다고 표현했다). 쓰레기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자유롭게 했다. 쓰레기통이 있어야 쓰레기를 덜 버리는지, 아니면 더 버리는지 투표도 해보았고, 오프라인 반상회를 열어 쓰레기덕질하는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쓰레기 관련 정보들을 나누고 재잘재잘 수도도 떨며 쓰레기 덕질을 해 나갔다.



그중에는 ‘플라스틱 컵어택’ 캠페인도 있다. 쓰레기덕질에서 만난 금자와 올빼, 씩과 함께 기획한 캠페인이다. 앞서 말했듯이 흥미와 재미로 시작한 활동이라 당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슈를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대신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에 잔뜩 화만 나 있을 뿐이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로 여러 환경문제를 이슈화해 본 경험이 있는 금자가 캠페인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뭘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액션과 목소리들이 모이면 더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활동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증금제 부활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한날한시에 홍대 거리에 모여 버려진 컵을 줍고, 브랜드별로 나누어 업체별로 데이터를 만들고, 제일 많이 나온 업체에 컵을 돌려주는 컵어택 활동도 했다. 돌려주고 남은 컵들은 재활용센터로 보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컵어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도 찾아갔다.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워 하나하나 꽃을 심어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플라스틱 컵어택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처럼 플라스틱 컵 때문에 화나 있던 시민들이 컵보증금제에 대해 알게 되고, 분노를 넘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게 무척이나 신기했다. 따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플라스틱 컵어택으로 한 데 모여 발을 구르고 목소리를 내니 당장이라도 컵 보증금제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이정도로 요란하

게 구는데, 안 돌아오고는 못 배기겠지!

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컵 어택 이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다. 2020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다. 우리가 요구한 게 이렇게 똑딱! 법으로 만들어지니 감격스러웠다. 쓰레기덕질에서는 컵 어택에 함께 했던 이들과 축하파티까지 벌였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탁상공론이다 뭐다 말도 안되는 말이 오가더니 시행을 앞두고 엎어지기가 몇 차례, 그러더니 지난 2023년 9월 12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전면 철회하고 지자체의 자발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 ‘패배감’을 견디며 오래 머무르기

사실 이 발표가 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컵 보증금제를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상태였다. 사람들과 함께 플라스틱 컵 어택을 하고 활동하는 건 무척이나 즐거웠지만,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이어진 행정과의 대화는 따라가기가 무척 어려웠다. 따로 본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업 활동가 수준의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한계와 미안함, 그리고 활동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를 마음에서 떠나보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 일이 너무 어렵고 더디다는 점도 있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바뀌는 과정을 보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어떤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뿐, 그 정책이 있기까지 무수한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어깨 너머로나마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압박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 간담회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칼자루는 권력을 가진 자가 쥐고 있었다. 힘 있는 자가 특 던진 의견 하나에 여러 사람이 차근차근 준비해 온 제도 시행이 순식간에 엎어지는 것을 보며, 도대체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는 근원적 질문까지 가지게 되었다. 현장에서 수많은 이슈를 던지고 이를 실현해 나간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작해야 민원인으로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 본 게 다인 나로서는 이런 속도와 패배감을 견디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다. 속상함과 실망감에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니 어느 순간부터는 컵 보증금제 부활에 대한 열정이 이전만큼 타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 하나가 떠난다고 컵 보증금제 이슈가 없어지는 것도, 이를 계속 요청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멋진 활동가와 단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컵 보증금제 부활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활동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보면 서 나는 활동가와 단체들의 존재에 감사함과 부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참여는 어느 순간 활활 타올랐다가 또 짜게 식었다,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다. 그 존재들이 있으니 나도 관심을 꺼버릴 수가 없다. 그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져 멀지 않은 미래에 전국에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청원을 누른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텀블러를 챙겨 들고 다닌다. 열성적인 쓰레기덕질 활동가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플라스틱 컵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 망가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마땅히 존엄이 있어야 할 곳에 차별과 혐오가 들어앉아 마치 본래의 자리인 양 행세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기도 어려워졌다.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공통의 감각이 이리도 쉽게 무너지는 걸 목격하다니. 낱알이 엉망일 땀을 갠다는 분노가 외부로 발산되다 그것마저 힘에 부치니, 이제 시민은 각자의 내면을 공격하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범 짓는 마을』, 이보라, 125쪽




이 원고를 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절이다. 저자는 험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힘에 부쳐 자신의 내면을 공격하는 우울감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용기와 희망을 말을 건네고 싶었을 테다. 나 역시 멋진 말들로 용기와 희망을 말을 건네고 싶지만 나에게에는 그런 비법도, 들려줄 말도 없다. 나 또한 망가진 세상을 보다 보면 화가 나고, 화가 넘쳐 무력감을 느끼고, 거기서 넘쳐 이깁 놈의 세상 당장에 그만뒀 버리자는 마음이 불쑥 들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서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여겨질 만큼 우리 사회 망가질 데로 망가졌다.

그럼에도 망가진 세상에서 희망의 말을 하나 건져야 한다면, 나는 세상을 고쳐쓰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다 버리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수백 번이라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세상을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면 고쳐 쓰는 것밖에 답은 없지 않은가.

고쳐 쓰는 일은 쉽지 않다.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하고, 고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 부품도 있어야 하고, 공구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 우선인 것은 없다. 사회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활동가, 단체, 시민. 누구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다. 각자의 기능을 잘, 제대로 해낼 뿐이다. 시민으로서 나의 할 일은 사회 문제가 뭔지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직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내어주고, 참여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면 된다.

물론 제 일을 ‘잘’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다고 고장 난 세상을 남한테 냅다 쥐버리고 말 것인가? 이미 세상을 이만큼이나 고장 난 이들에게 계속해서 고장 난 세상을 맡길 것인가?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손으로 고치는 게 속이 더 시원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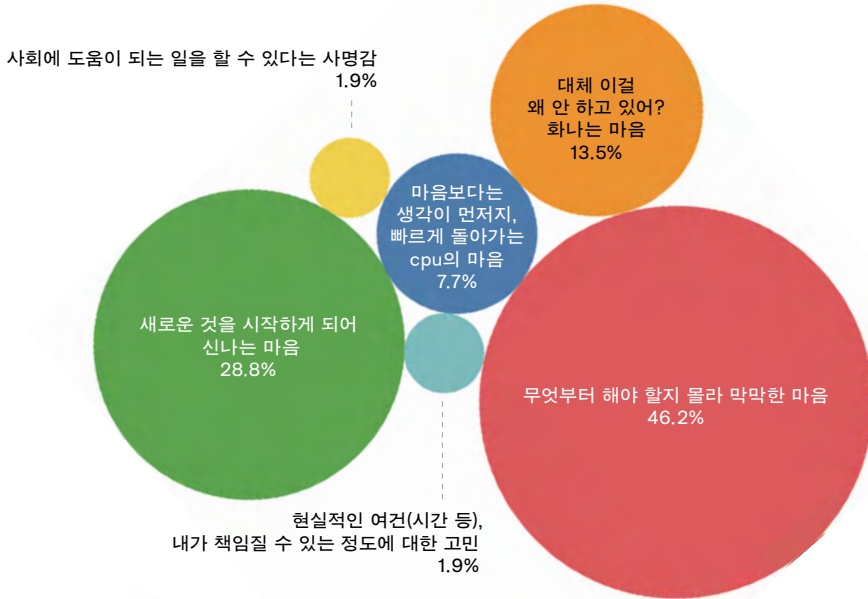
나는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 쓰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제 나름의 방법으로 기꺼이 세상을 고쳐 보자, 마음먹은 사람들. 그들과 세상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조금씩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본다면, 글썩 신이 나서 방방 뿔지도 모르겠다.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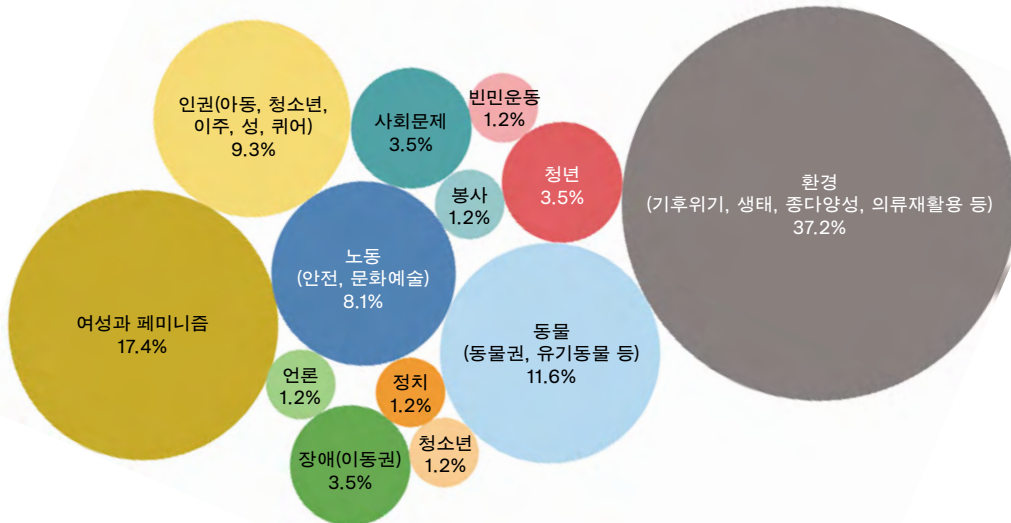
# 당신의 공익활동 경험을 들려주세요

2023년 10월~11월 사이 “당신의 공익활동 경험을 들려주세요”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요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익활동에 어떤 생각과 기대를 품고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 본다. 그래픽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Tableau)의 무료 플랫폼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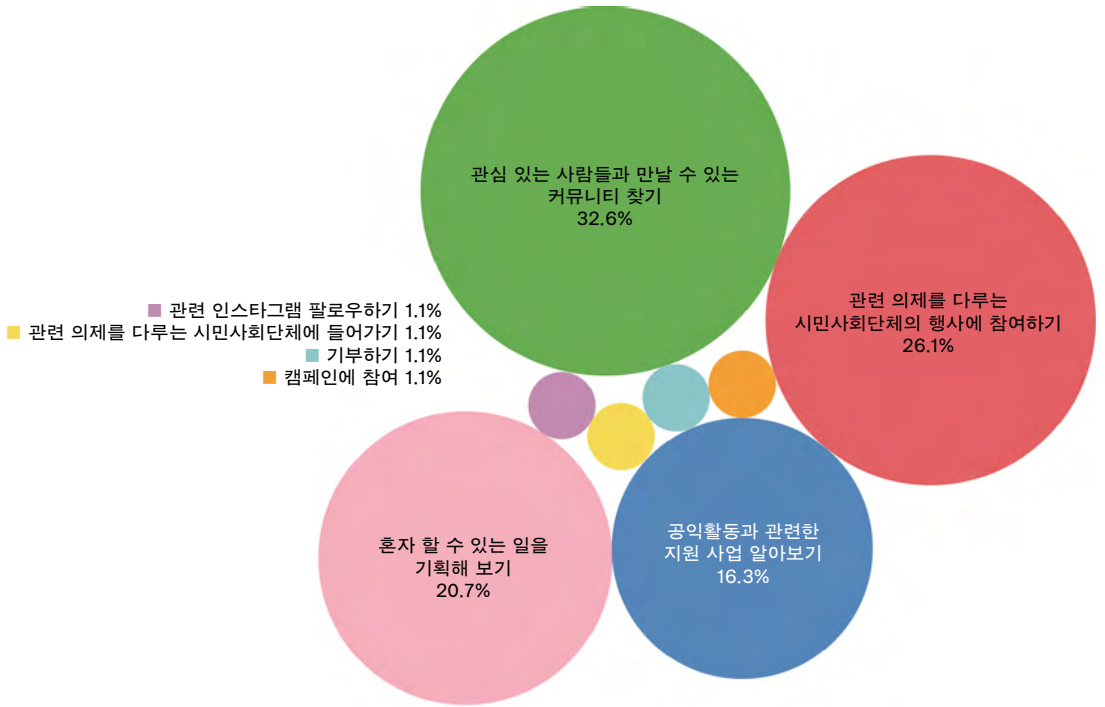
## 공익활동을 하고 싶었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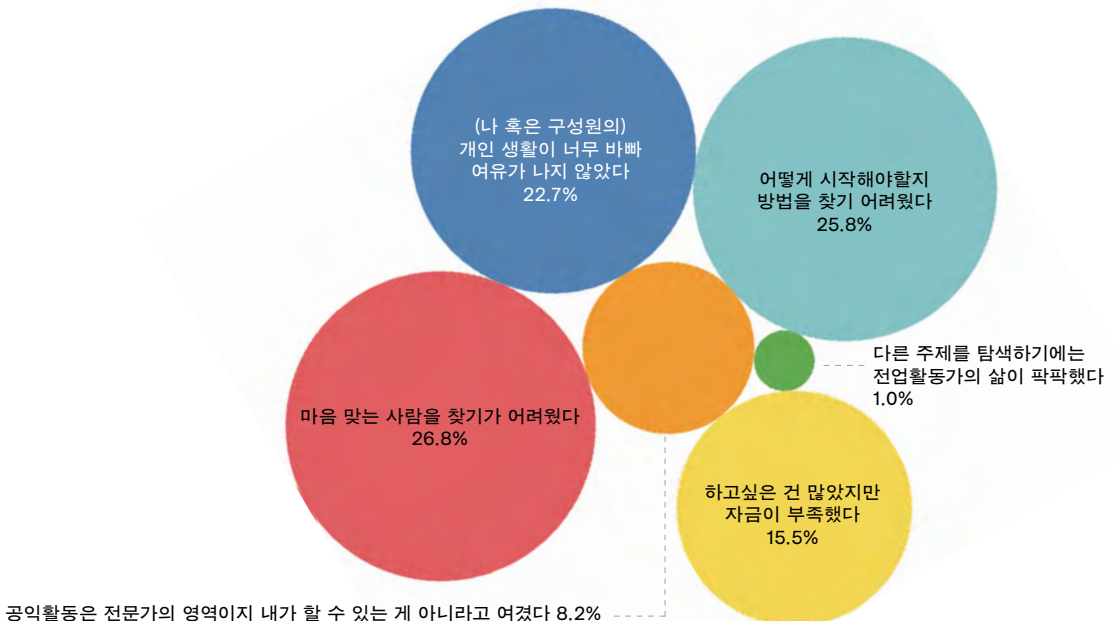
## 어떤 주제의 공익활동을 하고 싶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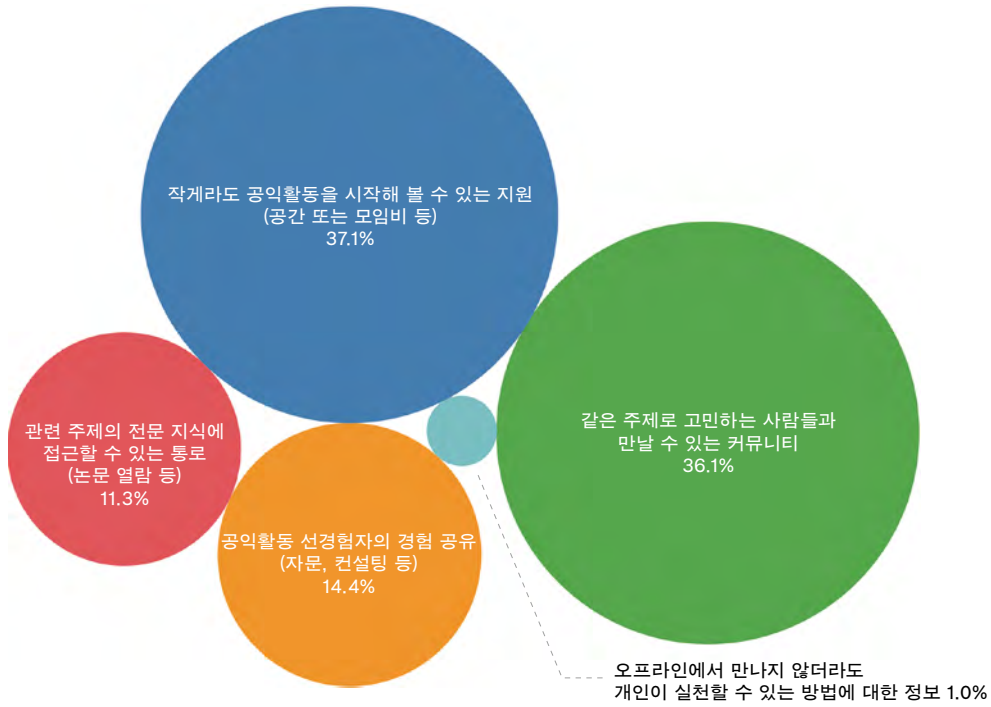
## 어떤 형태로 해 보고 싶으셨나요? (혹은 하셨나요?)



##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공익활동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변화	참여	공동체	공허함	구성원	나눔	단합	당장	민주
		벽	시민단체	시민사회	신념	액션	어려움	에너지
도전	사회변화	변혁정의	열정	일상	장기간	전문성	정부	즐거움
		사랑	움직임	진보	행복	혁신	혁신	
봉사	시민	사회	유기견	평등	협동	희망	힘들	
		시위	선의	유난	평화	활동가	희망	힘들
연대	정의	선한 마음	유난	평화	협동	희망	힘들	
		세상을 바꾸는 힘	인내	해결	활동가	희망	힘들	



## 가장 감명깊었던 공익활동 사례

동물보호활동(유기견 구조, 돌봄, 생후어리 등)	DxE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주의깊게 볼)	무의의 배리어프리 지도	병뚜껑으로 차약짜개 만들기	빅이슈	사용후 핵연료 처리관련 의견수렴 시민패널	엔네스티 "미워해도 소용없어"
	T에너지사 관련 esg공급망 등 평가					
아직 없다	계단부서클립	여성노숙인 구술기록 출판 (그여자가방에 들어가신다)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요구하던 정책이 수립되었던 경험	죽김		지역에서 시작하는 재난대응 관련 활동
	노인일자리	재개발 지역에 대한 기록		추적단 불꽃의 N번방 추적	한국여성외화화를 통한 스물미투 재판 참관	
알맹상점	딱페이스 온라인 쿠퍼	전쟁난민 지원		코드코리아의 공적마크 앱 개발		
의류 및 생필품 기부	동구발	전쟁없는 세상의 무기박람회 반대 활동	퀴어문화축제			해양 쓰레기 주워서 가져오는 활동

## 공익활동과 관련된 고민들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	공익활동이라는 담론이 너무 거대한 것 같아 부담스럽다	관은 지원하고 민간이 풀치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나는 히어로가 아니라, 내 역량을 넘어서는 만큼 하기가 부담스럽다	단순한 네트워킹보다는 실무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비영리영역 업무에도 체계가 필요하다
	공익활동에 대한 막연한 인식 개선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	어렵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작은공익사업을 자주 접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다
활동가 처우 개선	공익활동을 유난스럽다고 보는 사회적 시각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방법		절차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서류 등)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한 행사 이후 담론이 이어지는지 잘 알 수 없다
	공익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고민이 있는가?		한 사람이 투신하지 않더라도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공익활동이 가벼우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시작이 어렵다		지속가능한가?		혼자서도 접근하기 쉬웠으면 좋겠다
정보가 부족하다	공익활동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 내가 '근로지원인'이 된 이유

**박희정 기록활동가**



박희정 기록활동가는 인권기록센터 사이의 일원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인터뷰한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인터뷰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등을 집필했다. 사회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그는 지난 해부터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인권단체 피플퍼스트서울센터로 출근한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근로지원인으로, 밤에는 기록활동가로 살아가는 그에게 '공익활동'을 물었다.

**'피플퍼스트' 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의 '근로지원인'으로 일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동료지원가'는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생겨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만나 상담이나 자조모임 구성 등을 통해 취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시행 이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나랏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성과를 내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성과를 사업 참여자 수와 취업 연계 건수로만 측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동료지원가들은 무진 애를 썼지만 늘 실적 부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연계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현실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참여자를 찾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거나 심지어 '자기 의사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까닭에, 이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아주 당연한 듯 사회생활에서 격리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발달장애인은 자기가 무엇을 해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일은 '발달장애인 참여자를 찾아 나서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렵게 참여자를 찾아낸 후에는 그의 몸과 마음에 깊게 새겨진 차별의 흔적과 마주합니다. 서로가 겪은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며, 서로의 힘과 용기가 되어갑니다.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게 복지기 위한 전문가!  
 발달장애인은 보호받고 다양한 욕구를 보살펴야!  
 발달장애인을 가장자리 말고 중심에 꼭꼭 안아!  
 모두가 잘 지내고 싶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감정을 존중하라!  
 발달장애인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자식을 돌보아야 할지!

전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 제10회 peoplefirstkorea.org

# 한국피플퍼스트대회

2023. 10. 19.(목)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 (광화문역 소인형 앞)

<b>제 10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프로그램</b>	<b>발표 시간</b>	<b>발표 대상</b>
13:00-14:00 집무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 및 후원자	2023년 지원 사업결과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14:00-14:30 주례식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14:30-15:30 주제발표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15:30-16:30 발달장애인과 돌봄지원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16:30-17:30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사례발표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17:30-18:30 폐회식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총 14개) 신청 접수

주최: 한국발달장애인지원단체  
 후원: LUSH 세안제

기록활동은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공익활동' 이고, 근로 지원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같아요. 이 두 가지 활동은 서로 다르지만, 또 닮은 것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주간회의안, 업무일지, 활동 보고서 등 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회의에 참여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집회나 기자회견, 연대활동 등 권익옹호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핵심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저는 '언어를 짓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항하는 언어를 짓는 일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을 찾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해온 기록활동과

교차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근로지원인은 규정상 장애인의 '핵심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수업무'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긋기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근로지원인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배워야했던 것은 발달장애인인 나의 파트너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비발달장애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일을 지원하려면,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로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파트너 역시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발달장애인과의 사이에서 자기 주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애씀 없이 저의 '지원'도 그 자리를 찾아가긴 불가능할 겁니다.

**2016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담은 책 『그래, 엄마야(오월의 봄, 2016)』를 출간하셨던 당시와 피플퍼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장애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관점이나 사유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타인의 말을 잘 듣는 법'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경험이 제법 쌓이면서 기록의 의미와 기록하는 법에 대해 말할 자리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기록하게 된 순간 제가 쌓아온 그 '대화의 기술'이 무



박희정 제공

력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대화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 삶에서 발달장애인은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발달장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제 ‘무지’와 ‘무지할 수 있는 권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권리 옹호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배워야 할 모든 게 여기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발달장애인의 시선’과 ‘발달장애인의 말’,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며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피플퍼스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흔히 ‘잘 듣는 일’을 ‘잘 묻는 일’과 혼동합니다. 질문의 기술이 타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묻고

듣는 일을 고민하다 ‘피플퍼스트’라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저에게 ‘잘 듣는 일’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일’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진심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곳에 와서야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은 능력 있는 자의 것입니다. 잘 말해야 잘 들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잘 말하지 않아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의 말이 들립니다. 그때서야 그의 세계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듣는 자세를 고쳐 앉기 때문입니다. 피플퍼스트에서 일하면서 ‘말은 권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게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할 자리가 생겨날수록 누구나 더 잘 말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지난해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김동호 씨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발목을 접질려 수술하게 됐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병실에서 지내다 갑작스레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다리 수술 후에는 혈전이 쌓일 위험이 커지는데 병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사소통 조력도 받을 수 없었기에 생겨난 의료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동호 씨의 죽음 후 동료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동료를 잃고 힘들어하는 일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이 슬픔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삶에서 처음으로 애도와 추모를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그들에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권리를 제약해 온 까닭입니다.

제 파트너는 시설에서 나고 자라 23살에 탈시설했습니다. 시설 안에서 여러 죽음을 보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죽음은 ‘치워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료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걸 보고 자란 그는 자신의 마지막 또한 그와 같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고 싶어졌다’는 말을 툭 터뜨렸을 때, 나는 모든 말은 뿌리를 가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어졌다’는 말의 뿌리는 ‘누구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세계’입니다. 나는 피플퍼스트에서 그 세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인권을 특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는 권리를 말하는 일은 사람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 공익활동이란, 내가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에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사회참여’하는 이유

배성호 선생님



배성호 제공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교문이 없던 학교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담은 교문을 만드는 일.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배성호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며 활동해 왔다. 학생들과 꾸준히 사회 참여를 이뤄내는 그의 ‘동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선생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2013년에 생긴 국립중앙박물관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입니다. 박물관으로 소풍을 갔다가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어 불편을 겪은 학생들이 직접 박물관에 편지를 보내 해결한 사례였죠. 코로나19로 임시폐쇄되었던 도시락 쉼터를 2022년 11월 아예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애써 변화시켰던 사례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박물관 도시락 쉼터를 없앤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속상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의 전형성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도시락 쉼터를 만들었던 주역들인 제자들과 연락하고, 또 현재 반 친구들과 더불어 다시 도전해 보자며 뜻을 모았거든요. 당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을 다시 지금 반 친구들과 읽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이전과 같이 도시락 쉼터를 다시 열 달라고 학생들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썼던 졸업생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편지 쓰기에 합세했죠.

2022년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런 해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만든 도시락 쉼터를 없애서 황망했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지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서 새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보았답니다. 사실 도시락 쉼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한겨레신문 칼럼으로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유쾌한 사회적 상상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이자 선배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하

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전국의 교육 학예사와 학생들이 있어서 기꺼이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책 『꿈을 담은 교문』에서 아이들과 교문을 만들었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학생들과 같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진행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반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꿈을 담은 교문』은 제 교직 생활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통행이 불편하고 버스가 다니지 못해 체험 학습을 갈 때마다 언덕 길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던 학생들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죠. 바로 교문이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기꺼이 교문을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공공 건축가, 서울시립대 디자인어스, 하자센터 활동가, 연구진들과 함께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교생의 꿈을 담은 교문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교문이 만들어졌다는 결과만으로 멋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시간 동안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문제 상황들과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그저 소모

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통해 또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과 또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또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풀어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더불어 힘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꿈을 담은 교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공유하고자 교사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꿈을 담은 교문』을 쓰고,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문을 바꿨어요!』라는 책을 펼쳐 내게 되었답니다. 교문을 만든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꿈을 담은 교문의 내용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만들고 있는 초등사회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활동할 때, 학부모들이 반발하거나 싫어했던 경우는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학교에는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선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삼양초등학교 교문. 배성호 제공





제가 20여 년 동안 교직에서 학생들과 함께 풀어가려 한 건 멀거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발 딛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교문이 없는 학교에 교문을 만들고, 박물관에 도시락 쉼터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인지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답니다. 이런 때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도로가 위험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단순히 자전거를 타게 해야 한다 혹은 타지 말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하는 거죠. 이전까지 문제를 풀어 내리는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서요. 물론 이런 의견도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또 통학로 주변 위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지도를 만들고 구청장님과 지역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활동 사례가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등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유쾌한 도전을 열어가고 있지요.

사실 제가 사회참여 학습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 만들기를 도전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지구 환경을 위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하자고 교과서를 읽으며 수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에게 자전거 통학 금지라는 가정통신문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문제 제기를 들으면서 안전을 위해 통학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또 지금까지 다채로운 사회참여 활동을 열어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담긴 시선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위에 있는 말의 문제를 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만을 강조하다보면 현재가 유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일뿐만 아니라 동시대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는 미성숙하고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해서 바뀌낸 사례




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수집하고 이를 교과서를 비롯해 다양하게 알려내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동시대 시민으로 유쾌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일을 했을 때 효능감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 도입된 학생 참여 예산을 비롯해 급식 선택제 등 학생들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장을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장에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다양한 교사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더불어 숲’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만이 아닌 숲을 이루면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공부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모임 덕분이랍니다. 지치지 않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근 교사 모임 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 안전 활동가, 연구원 등등 다양한 분야 분들과 함께 유자학교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자학교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도 훨씬 풍요로워지고 있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느낌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인’이라고 하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어보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익활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터를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련의 활동이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무겁고 엄숙한 것이 아니라 삶터 곳곳에서 다채롭게 풀어나가는 행복한 활동들로요. 

인터뷰

# 내가 여성들의 책 모임을 시작한 이유

노혜지 들불 운영자



노혜지 제공

여성 독서 커뮤니티 들불의  
캘린더는 늘 빼곡하다. 책 세미나,  
북토크, 소모임 등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한 모임 일정이  
가득 차 있어서다. 그 와중에도  
들불의 인스타그램에는  
페미니즘 신간 소식이 올라오고,  
도서를 큐레이션하여 소개하는  
뉴스레터 '들블레터'도 꾸준히  
발송된다. 이 모든 걸 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들불의  
운영자 노혜지(구구)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여성들의 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을까?

**'여성 독서 커뮤니티 들불' 이전의 '들불'  
이 궁금합니다. 초창기 들불은 무슨 책  
을 읽으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초창기 들불은 '페미니즘 독서 모임'이  
라는 이름으로 소규모로 운영되었어요. 한  
도서관의 작은 동아리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분기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 정  
도의 고정 멤버들과 함께 운영했죠.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던 시기에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를 의식화한 사람들이 모여 페미니즘  
입문서들을 읽었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널리 알려진 이론가나 작가의  
책들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정희진의 『정희  
진처럼 읽기』, 스테퍼니 스탈의 『빨래하는 페  
미니즘』, 게일 루빈의 『일탈』,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등 '페  
미니즘', '도서'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검색  
결과들에 의존해서 책을 읽었죠. 당시 모임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을 쌓는게 아니라 기존  
의 지식을 부수는 데 있었어요.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혐오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 깨 나가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중  
요하다고 여겼죠. 모임에서는 책 이야기를 중  
심으로 떠오른 자신의 경험을 많이 나눴어요.  
다들 막 입이 터졌던 시기여서 자신의 이야  
기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고, 여  
성인 '나'의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  
롭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  
래서 책 이야기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규모 독서모임이었는데, 지금은 매달 레터도 발행하고 모임도 여는 등 본격적인 커뮤니티로 확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장을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책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 순간 공통된 관점만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친해지다 보니까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때에도 주저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한 분위기에 문제 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갈등을 겪더라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임은 어딘가에 고여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남성적 이론이 견지하던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본격적으로 무언가 바뀌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건 『제2의 성』 세미나를 진행하면서부터였어요. 외부 인원을 초대해서 그간 모임에서 공부해 온 내용을 소개하는 『제2의 성』 세미나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거예요. 사실 그들도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싶는데, 마땅한 공부 모임을 찾지 못해서 흘러흘러 들어온 거였죠. 마침 저도 우리끼리만 이야기 나누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차라 이 참에 새로운 방향으로 모임을 확장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멤버들에게 이 모임의 이름을 정식으로 정하고, ‘브랜딩’이라는 걸 해서 외부의 인원들을 새롭게 모집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죠. 서로 운영을 돕기는 했지만, 처음 모임을 시작한 것도 저였고 모집이나 홍보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결정권을 가진 상태로 브랜딩을 주도할 수 있었어요.

**책 모임을 오래 해 오신 만큼, 페미니즘 책의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느끼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책들이 많았어요. 페미니즘을 이론으로 접하기보다 강남역 사건이나 메갈리아, 여성 커뮤니티에서 접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도 그들의 공감을 구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들이 쏟아져 나왔고, ‘미러링’이나 ‘맨스플레인’에 대처하는 방법처럼 일상의 여성 혐오에 맞서는 방법론을 담은 실천서도 함께 등장했죠. 그러다 문학에서도 페미니즘을 접목시키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페미니즘을 다루는 시도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연구자나 활동가가 쓴 책, 외국 유명 이론가가 쓴, 이른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재)출간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에세이들도 여전히 출간되고 있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적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확실히 페미니즘 서적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을 일반 대중이 굳이 읽어야하느냐는 의문도 있고, 지나치게 난해하고 어렵게 쓰여진 책들 때문에 시도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내 이론서를 공부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화제가 된 이슈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엘리트 페미니스트들의 영역에서만 존재하고 담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대표님의 화두 혹은 고민은 무엇인가요?**

‘들불’의 출발점에 했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갈등하는 공동체란 가능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공동체’ 개념이 지나치게 낭만화, 이상화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문학의 경향을 비판하는 한 글에서, ‘안온, 무해, 다정’한 문학에 대한 지적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관점이 문학이 아니라 공동체에 겨우 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연대’는 평화로운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으로도 존재해야 하죠.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갈등을 극도로 꺼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을 겪은 그룹과

는 토론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들불’ 역시도 건강한 토론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납작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공동체에 관해 생각하다보면,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결벽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소위 ‘뺑았다’고 불리는 여자들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배제하게 될 때, 지속적인 페미니즘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자들이 좀 더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참아주고, 연대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싫다고 팽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참아주면서 함께 하는 일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아트인사이트’ 인터뷰에서 커뮤니티 들불을 ‘세력화’ 하고 싶다고 하셨던 답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들불이 세력화된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곳이 될까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 애매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손상을 가진 몸들이 각자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들불은 페미니즘에 뜻이 있지만, 시위 현장에 나가기엔 용기가 부족하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보자니 자신이 없어 주저하는 사람들, 손상과 상처로 배제된 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부터가 그래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시위 현장에 가면 구호를 외치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고 느끼죠. 또, 몸이 허약해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동참하는 일도 어렵다고 느끼고요. 게다가 활동가도 연구자도 아니니까 적어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저를 소개할 정체성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애매한 존재인거죠. 저는 우리가 가진 애매함이 경계를 흐리는 특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경계를 흐리고자 할 때, 들불이 그 마음을 돕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최근에 공적 영역에서 들불을 소개할 일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들불'을 뭐라고 정의해야할지 약간의 난감함을 느꼈어요. 사업이라기엔 너무 적은 돈을 벌고 있고, 공익활동이라기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들불에서 운영하는 한복클럽에서 털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제 고민을 들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익활동이 별 건가요, 누구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일이 공익활동이죠."**

들불에서는 '페미니즘'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관점은 페미니즘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교차성'을 지향하죠. 장애, 질병, 생태주의,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교차해서 다루려고 노력해요. 그때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리하여 사람들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내가 공익활동을 코딩하는 이유

장승훈 개발자



활동가와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슬러기시 해커스'의 이름을 직역하면 '게으른 해커들'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 아니라 열 번 해야 할 일을 한 번만 해도 되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게으름'이다. 비영리 영역에서 오랫동안 개발 활동을 이어 온 '후니(장승훈)'가 이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개발자인 그가 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걸까?

## 처음 비영리 영역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개발자가 되는 것보다 비영리에 관심을 가진 것이 먼저예요. 대학생인 시절, 경영학과를 전공했는데 수업을 들을 수록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개발을 공부해보는 건 어떨지 막연히 고민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럼 뭘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CCKorea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단체 소개를 하는 걸 듣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마침 며칠 뒤 CCKorea 에서 연말 파티를 한 다기에 참석했습니다. 그게 비영리 활동의 시작이었죠.

CC Korea는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제를 고민하는 단체였어요.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에 집중했지만, 그 이후 CCKorea가 다루는 주제도 훨씬 넓어졌고요. CCKorea 활동을 하며 기술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죠. 그 중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시빅해킹 Civic Hacking\*\*'입니다. 그때는 특히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보자고 언론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뉴스타파, 중앙일보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쌓여 지금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발표를 말한다.

\*\*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그들의 도시 또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운동

## 시빅 해킹의 영역도 넓고 다양할 텐데요, 그중에서 승훈님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만트라’ 같은 문장 인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투명성과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요. 올해는 정보공개센터와 협업해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와 ‘오픈와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 갖게 된 건, 글썄요, 타고난 반골 기질(?)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CCKorea에서 활동할 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도 많았지만,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늘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였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는 재단 Sunlight Foundation의 활동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같은 것들이요.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로 이뤄지는 명실상부 ‘디지털 시대’잖아요.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고,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정부2.0 덕택에(?) 이제 감시해야 할 정보도 모두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다보니 권력 감시와 기술은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건 아니죠. 안 보이는 곳에 교묘히 숨겨 놓은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분들도 기술에 대해 관심을 쏟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기술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슬러기시 해커스(Sluggish Hackers)는 어떤 곳인가요? 슬러기시 해커스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해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정보공개 치트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활동가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더라고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정보공개센터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수십 건씩 하는데 목록에서 그걸 일일이 찾아 눌러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고 다시 목록에서 또 누르고 하는 반복 작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죠. 그걸 하고나서 ‘아 이 프로그램이 다른 단체에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 치트키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반복 작업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 <https://www.nosanjae.kr>

\*\* <https://www.openwatch.kr>

\*\*\* <https://watch.peoplepower21.org>

비영리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어떤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라서 거기에 대해 미션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데 정작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단순 노동(엑셀 복사+붙여넣기, 비용 정산하기, 후원자 관리하기, 단체 문자/이메일 보내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이것 때문에 단체의 미션을 위해 해야 하는 활동이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여성단체 영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던 갱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이자 ‘정보공개 치트키’를 같이 기획했던 조은님께 ‘슬러기시 해커스’를 같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지금은 녹색연합, 참여연대,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비투비 등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시작해 이제 1년을 맞는 커뮤니티이고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대흥역에서 모임이 열립니다. 슬러기시 해커스 슬랙에 들어오시면 저희 모임에 대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간혹 슬러기시 해커스에 대해 소개하면 “기술을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을 전혀 몰라도 괜찮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뭘 더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얘기하고 해결해가면 됩니다. 사실 아무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구라하더라도 그걸 배우고 도입하는 데에는 또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런데 슬러기시 해커스는 **이미 바다난 활동가의 의지력을 돕기 위해 만든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활동가가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운영진 혹은 개발자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개발을 막 배워가던 시기에 CCKorea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나’라는 영국의 프로젝트를 한국 버전으로 개발한 적 있어요. 이십대 중반에 했던 건데, 그걸 개발하고 난 뒤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시니어 개발자 한 분이 “있고 있던 마음의 불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불을 지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활동을 공유하고 알리



슬러기시 해커스 노션

는 것이 다른 사람의 활동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제 활동과 발표를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활동에 정말 감명 받아서 그 서비스와 연계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열려라 국회’에 올라오는 국회의원 활동 기록을 그 지역구 구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걸 위해 참여연대에 이메일로 제안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당시 ‘열려라 국회’를 개발한 개발자를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개발자가 자신이 받았었다며 그 이메일을 먼저 열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동안 여전히 활동을 놓지 않는 열정에 탄복했다. 앞으로 뭐든 나랑 같이 해 보자.” 하셨어요. 그게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할진 모르겠는데, 정말 든든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 순간도 어쩐지 계속 마음에 남아요.


### ‘슬러기시 해커스’ 말고도 활동하고 계신 커뮤니티가 있나요?

세계 커뮤니티는 <응답하라 1988> 속 쌍문동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재밌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또 아주 느슨한 소속감도 줄 수 있는 마을 같은 곳이지요. 작고 소중한 사랑을 주고 받는 곳이에요.

슬러기시해커스보다 먼저 만든 ‘스튜디오로칼’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어

디서 소개하긴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과 만든 모임을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 저는 창작 활동에 대한 막연한 로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가 자기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협업과 만남이 일어나는 ‘마을’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어요. 정치인들의 소식이 올라오는 서비스 ‘뉴웨이즈 피드’<sup>\*</sup>도 ‘스튜디오로칼’ 멤버들과 함께 개발했고요. 물론 이런 비영리 개발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때때로 음악회를 갖거나 크리스마스 연말파티, 팝업 식당, 마감 카페 같은 것도 해요. 멤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원하는 대로 기획하고 자유롭게 노는 모임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고민하듯, 사회문제의 해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미활동이면서 돈으로 하는 기부활동 대신 능력과 시간으로 하는 기부활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고 베푸는 데에서 오는 행복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에서 오는 행복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지하게요. 그런 맥락에서 공익활동은 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 <https://feed.newways.kr/>





# 공익활동, 어떻게 할까?



리서치

# 우리의 '레퍼런스'는 어디에 있을까?

## 독일의 기후정치에 비추어보는 우리나라 기후정치 전략

글 김혜미

녹색당 정치활동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에서 복지운동을 했으며, 녹색당 부대표, 혁신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삶을 지키는 녹색정치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3 기후 전망과 전략』을 함께 썼다.







타국을 평가하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다. 특히 ‘다른 나라’를 선망하는 일은 때때로 너무도 쉽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그 나라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해석하는 마냥 즐거운 일이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류에 빠질 확률도 크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 나 스스로도 더 좋은 사람,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일도 분명 필요한 일임은 틀림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올해 약 한 달간 폭 빠지고 온 독일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7월과 9월 각각 2주간 독일과 네덜란드에 머물렀다. 7월에는 ‘생명평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녹색당 당원들과 생명평화아시아, 환경운동가 등이 함께했다. 녹색당이 함께 과정을 만든 기행이었기에 여름에 찾은 독일에선 다양한 정치조직과 정치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치재단’이었고, 감명을 준 사람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적록연정 연립정부의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위르겐 트리틴이었다.

### 독일에만 있는 정치재단

개인적으로 독일정치의 특별함을 꼽아보라면 연합정부, 정당 민주주의, 공교육에서 정치교육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꼭 하나를 소개하라면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독일의 정치재단은 정당과 연관성은 있지만 실제론 독립적인 관계로 유지되며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다른 나라에도 지부를 두어 국제사회 교류역시 활발하게 진행한다. 한국에도 오랫동안 기독교민주당(기민당, CDU)의 ‘콘라드 아데나워’,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해왔으며 올해 녹색당의 ‘하인리히 쉴’ 재단이 한국 지부를 설립했다.

정치재단의 역할은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국제교류, 정치교육, 정책생산 등을 담당한다. 이번 독일방문에서 놀라웠던 점은, 연정을 맺고 있는 정당의 정치재단들의 연도별 목표가 동일했던 점과 신호등 연정의 의미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점이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사회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중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속도를 높여가며 기후정치는 유럽정치 내에 강력하고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실감났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정당들의 성장이 강화되는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이 급진적인 기후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난방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에 뜨겁게 논쟁되다 통

과된 난방법은 건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지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독일이 전체 탄소 배출량 15%를 차지하는 1억 1200만 톤의 건축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이다. 순탄하지 않았다. 한창 논의가 뜨겁던 7월에 방문했을 때, 역시나 애버트 재단과 빌 재단은 이 법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두 정치재단 모두 의지가 확고했으며 이 법이 오히려 독일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져올 긍정적인 면에 집중했다. 녹색당뿐만 아니라 현재 신호등 연정의 중심을 맡는 사민당 역시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에 울림이 있었다. 물론 9월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되었으나 그래도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중립 유럽을 위해 순서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각 정치재단들은 로드맵을 실현할 정책적 방안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 연정은 당원들의 투표로 합의문을 비롯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당원으로부터 지지받아야 하는 이유에서인지 당원교육 또한 정치재단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유럽은 정당가입 연령제한이 매우 낮고, 청소년기부터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당원교육이나 당내 토론 등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선출직 정치인들의 당원 가입 기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긴 편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 약속을 지키는 정치, 정당 민주주의

한편 4월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독일 전역의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결정을 이행했다. 메르켈이 집권했던 16년 동안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늘 아슬아슬한 상황에 봉착했었다. 특히 2010년 메르켈은 독일 제조업 경쟁력을 앞세워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 했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사고 직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기민당을 제치고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반핵운동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이에 메르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는 11시간짜리 토론회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여러 절차를 거쳐 결과적으로 2022년까지 독일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11년, 그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2023년 4월 독일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는데 성공했다. 그 당시 독일의 전체 전력생산의 6%만 핵발전소를 통해 발전하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일 정치가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핵발전소가 사라져 에너지 위기를 겪고 석탄발전을 재가동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내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고려하면서도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중단한 결정은 정말 독일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다.





바로 이 사건을 주요하게 이끈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이번에 만났던 녹색당의 위르겐 트리틴이다.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독일의 안전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과도한 ‘원칙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고 사퇴 위기 까지 경험하면서도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과 탈핵 합의를 주도한다. 그리고 20년 넘게 독일정치는 (쉽지 않았겠지만) 침착하게 탈핵사회를 추진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 일을 꾸준히 준비하고 결과를 만든 그는 여전히 독일 연방의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방문한 기행단을 만났을 때, 그는 그렇게 큰 일을 성공하고도, 어쩌면 뿌듯함보단 정치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 독일에서의 기후운동과 기후정치

특히 ‘기후운동’과 ‘녹색당’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간결하고 간명한 이야기를 꺼냈다. 트리틴은 오랫동안 독일 정치 안에서 비타협적인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고, 그가 속한 독일녹색당 역시 초창기 ‘반정당의 정당’을 강령으로 삼으며 제도정치에 대한 강한 이견들을 냈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녹색당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곤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내진입 후 달라진 당의 태도다. 독일 녹색당은 원내 진입 후 보다 다수의 시민을 대변하고, 기후 이슈를 사회경제적 이슈와 연관지어 가면서 내부적인 고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당이 현실주의를 표방하면서 우경화되었다는 비판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각각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독일 녹색당은 분명 탈핵사회, 재생에너지로 전환된 안전한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신 독일 시민들에게는 급격히 인상된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독일 녹색당이 감당하고 책임지는 부분도 분명 있었다. 독일에도 다양한 기후운동 단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마지막 세대’와 ‘멸종반란’ 소속의 기후운동가들은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

란덴부르크 문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도로에 손바닥을 붙이는 접착제 시위, 예술작품에 감자를 던지는 등 급진적인 시위로 매우 유명하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들의 저항을 두고 ‘범죄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민당 의원들은 이런 시위를 폄하하고 비판하지만, 반면 독일 녹색당은 기후시위는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만들고 지키는 역할 외에도 ‘마지막 세대’ 같은 급진적인 저항행동을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역할도 일정부분 감당하고 있었다.



## 그러면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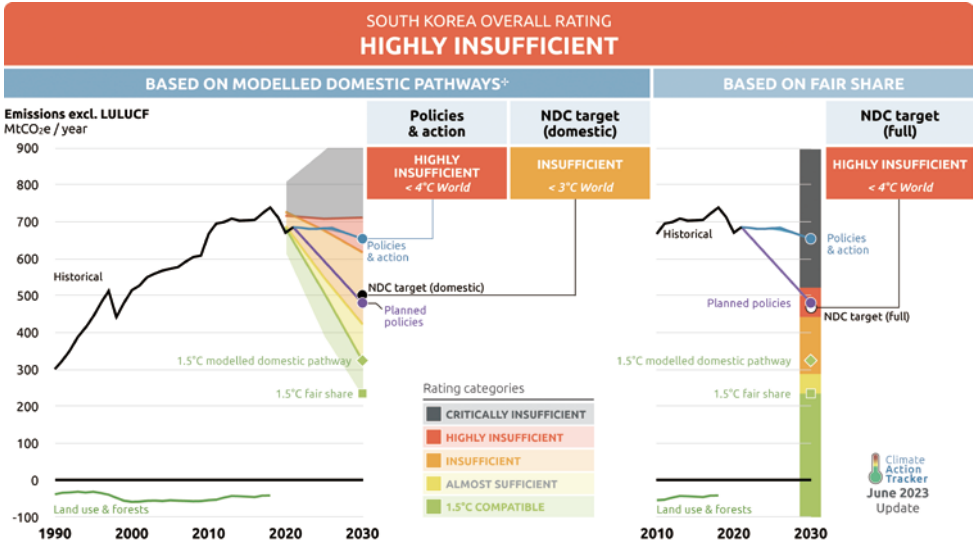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긴 시간동안 ‘탈석탄 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기후중립을 위해 노동계와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정치권이 이미 ‘전환에 대한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다. 최근 독일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을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최근 탈석탄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내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정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나로서는 독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조차 솔직히 말해 부러울 정도다. 이런 갈등과 논의 속에서 독일은 어떻게든 자기들만의 답을 찾아 낼 것이다. 한국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볼 수 없다. 심지어 국회 청원으로 5만 명의 시민들이 ‘탈석탄법을 논의하라’며 국회에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발의한 의원조차 이 문제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지금 현주소만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뒤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당장 지역사회에서 석탄 발전소를 퇴출시키는 것조차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었다. 독일이 현재 기후정치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거기엔 독일만의 합의와 맥락이 있다. 우리나라에 그냥 적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아닌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는 것은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하기에 두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산업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손실과 보상, 그것을 넘어 지역회복을 위해 무엇을 각자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모호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 Modelled domestic pathways reflects a global economic efficiency perspective with pathways for different temperature ranges derived from global least-cost models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policies-action/>

## 다가올 미래, 다가온 미래

기후중립을 위한 유럽의 변화로 인해 한국도 직·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와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 등 당면한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과 경제적 번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는 장면들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산업전환이 한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중립이 지녀야 할 가치와 실질적인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론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유럽의 길이 꼭 한국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엔 발생한 이스라엘 전쟁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만 보아도 그렇다. 한국은 한국의 속도와 상황에 맞게 기후중립을 정의하고 민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도 지구 기온 상승을 막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이로울 것이다. 다만 이것을 지연시키는 일을 정치가 한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좁게는 독일, 더 넓게는 유럽에게 배울점이 있다면 침착하게 순서와 과정, 합의와 결정을 만들고 이것을 이행하는 면모일지 모른다.

지금 당장 ‘독일처럼 되자’는 구호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소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와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해법과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는 분명히 있다. 막연히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기 보다는 지금부터 바뀌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우리의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이미 기후 위기는 재난의 모습으로, 불평등과 격차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리서치

# 데이터를 토대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

글 박진영

환경사회학 연구자. 환경과 보건의 교차점에서 과학기술, 사회운동, 정치를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재난에 맞서는 과학』, 『재난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공저)이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 우리도 할 수 있어, 과학

나는 환경 문제나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둘러싼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과 같은 공해 문제,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서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고, 인터뷰나 초점집단면접, 관찰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환경과 건강 피해에 관한 이야기에는 과학과 의학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식은 주로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생산된다. 나는 특히 내가 들여다보는 사례에서 피해와 관계 맺고 있는 “과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과학을 빼놓고서는 건강, 안전, 환경 분야의 논쟁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과학이나 의학 전공자가 아니다. 환경사회학과 과학기술학 분과가 쌓아온 문제의식을 토대로 과학에 관해 연구한다. 직접 과학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지는 않지만,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학이 확산되고 활용되며 우리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들여다본다.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과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과학에 대해 말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과학을 전공해야만 과학을 하고, 과학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학은 오랜 기간 과학의 본성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 과학의 전문성은 과학자가 아닌 시민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에 의한 과학적 전문성이 만들어지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과와 문과를 나눈 교육과정을 통과하며, 한국에서 과학이란 여전히 고등학교 이과와 대학 이공계학과를 거쳐 대학원을 나온 과학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

\* 관련해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21세기 교양 과학기술과 사회』, 홍성욱, 서민우, 현재환, 장하원, 2016. 나무나무; 『과학기술학의 세계 - 과학기술과 사회를 이해하기』, 한국과학기술학회(강윤재, 김동광, 김명진, 김은성, 김환석, 박진희, 박희제, 손화철, 송성수, 송위진, 이영희, 홍성욱), 2014, 휴머니스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가슴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연대하는 공익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과학에 대한 낯섭이나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단체에서 환경 문제나 건강 피해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 중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수년간 활동을 해온 활동가도 화학물질 분야가 어렵고 생소해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거나, 소위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활동가가 있는 단체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소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진학한다.

환경과 건강 문제를 둘러싼 수십년의 활동을 보았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나 의제라 할지라도 과학적 전문성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과학적 사고의 필요성과 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었다.** 꾸준하고 성실한 문제 제기, 번뜩이는 아이디어, 호소력 짙은 구호,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우리 사회는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힘을 줄 수 있다. 철학적인 정의를 떠나 공익활동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사고란 관찰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오랜 기간 수집한 데이터는 더 효과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를 통해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데이터를 근거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장이 나올 수 있고,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을 위해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국회에서 오랜 기간 보좌관으로 일해온 작가 이보라는 지역 구성원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지도를 만드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도심 배수구 담배꽂초 매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 시민이 데이터를 축적해 공동체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가 매핑된 정보를 토대로 제도 변화를 추동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누구나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이 생기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정보와 데이터가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할까?

\* 『법 짓는 마음 -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이보라, 유유, 2023. 55-65쪽.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 좋은 데이터가 만드는 좋은 과학

공익활동에서의 과학과 데이터가 가지는 힘은 바로 현장이 가진 힘에서 비롯한다.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논문의 기본 재료인 데이터가 없다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기본 데이터가 무엇이냐는 중요한 문제다.

**공익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되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 자체로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관심 받지 못하고 연구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다. 과학기술학에서는 이런 과학을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수행되지 않은 과학)”<sup>\*</sup>이라고 한다. 지배 권력과 이해관계로 인해 연구나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과학지식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개념이다. 이미 많은 공익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텐데, 그런 분야에서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행되게 하기 위한 시작점에 데이터의 수집이 있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되고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는 누구나 어디서나 수집될 수 있다. 공익활동은 주로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틈, 수행되지 않은 조사의 틈을 목격한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을 통해서만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

\* 언던 사이언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언던 사이언스 - 왜 어떤 과학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까?』, 데이비드 헤스, 김동광, 김명진 옮김, 돌베개 2020; 『언던 사이언스 - 무엇이 왜 과학의 무대에서 배제되는가』, 현재환, 뜨인돌, 2015.

공익활동가나 공익활동단체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나간다면 그 데이터를 통해 수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많은 환경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다”라고 호소한다. 정부와 기업과 법정의 외면, 더 많이 요구되는 과학 증거, 엄밀하게 판단되는 인과관계 앞에서 피해자들은 무력해진다. 몸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증거이지만, 설득을 위해 그 피해를 데이터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피해자의 말로서 기록하고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수치화했을 때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두 활동은 모두 공익활동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능하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구매경험 실태조사를 진행해 생리대의 안전성과 가격에 관한 데이터를 모았다.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단체는 직접 공해물질을 측정해 데이터를 쌓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 함께 하는 과학

오랜 기간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은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을 수 있고, 데이터가 공신력 있는 출판물로 힘을 얻기를 바랄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을 공익활동가나 공익활동단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중요한 법칙을 깨달은 뉴턴처럼 혼자 과학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가 흔히 과학자 하면 떠올리는 하얀 가운을 입고 플라스크를 기울이고 있는 과학자가 혼자서 실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과학자들도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연구를 수행한다.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연대하면 공익활동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가 판단과 설득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익활동과 연대하고 함께하려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다. 이들 전문가나 전문가가 활동하는 학회와 연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석이나 논문 출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연구에 공익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토대 마련에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 공익활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듯이, 공익활동에서의 과학도 연결고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과학하기’의 첫 걸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제를 찾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설문조사나 커뮤니티 맵핑, 시민과학 플랫폼 활용, 인터뷰 진행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전까지 해당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나 출판물이나 정부 보고서를 수집할 필요도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지원하려면, 기존 연구자료나 문헌 검토 항목이 필수다. 보통 국내 문헌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나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수집할 수 있다. 중요한 논문의 경우는 KCI에서 인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이 인용된 문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재밌게 읽고 도움이 된 문헌이 있다면 해당 문헌이 참고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중 눈길이 가는 것을 찾아 읽을 수 있다.

정부에서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프리즘에는 정부의 정책연구 보고서가 업로드되어 있다. 일부 공개되지 않는 과제도 있지만, 진행 중인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해당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출판된 보고서를 온라인도서관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와의 연대를 제안했는데,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연구용역 사업의 책임자가 누군지를 살펴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간혹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개되지 않는 보고서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획득할 수도 있다.

수집한 자료나 보고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와의 연대가 필요할 수 있다. 많은 활동가들이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두껍고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나 유관 분야 전문가에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문헌이 아닌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계포털이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운영한다. <https://data.seoul.go.kr/dataList/datasetList.do>

🔍 무엇을 찾고 계세요? 🔍 검색 🔍 상세검색

- 🎓 최신연구 학술자료
- 📄 RISS 발행도 분석
- 🧬 연구동향분석
- 📄 RISS 이용안내
- 🌐 해외자료신청(OSS)
- 📄 중국/유럽자료신청

[최신 국내 학술논문] ... 해외자료신청(OSS) ...

- 공지사항**
- 📌 [공요청] 2023 KSDC DB 활용 사례 공모전 11.28
  - 📌 [당첨자 안내] 2023년 RISS-KOCW 통합심대 조사 결과 수렴... 11.16
  - 📌 [이벤트] 내학라이선스 De Gruyter e-Journal 퀴즈 이벤트 11.06
  - 📌 [안내] 10월 신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논문 안내 11.01

**KERIS 장려대상 서비스**

올해 한문으로 논문의 100% 활용하기

RISS 기반  
분석·인용 분석  
서비스

**지구와 내 몸을 위한 식생활**

RISS 기반  
분석·인용 분석  
서비스

KCI 통합검색 🔍 통합검색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최신 검색 🔍 나의라이브러리

- 분석정보서비스**
- 연구분야별 연구 동향
  - 발행기관별 연구 동향
  - 학술지별 연구 동향
  - 키워드별 연구 동향**
  - 검색어별 연구 동향
  - 관심정보 연구 동향
  - 논문 추적 서비스
  - 데이터 분석

**키워드별 연구 동향**

🔍 검색어 입력하기

🔍 검색

· 검색어인 키워드의 연구동향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예) 한국, 치유안목, Korea, microstructure, Child, antioxidant activity, body composition, 음복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상세검색**

🏠 연구검색 🔍 상세검색 📄 인쇄하기

과제명: 내핵문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연도: 2023 기안연: 연세 분류: 연세 🔍 조회하기 📄 초기화

전체: 372건

기관명	과제명	분류	연구수행기간	사업연도	보고서공개여부	조회수	출여도
전라	장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평가산정 실적	사회복지	장학대학교	2023	공개	1	0
경상	2023년 함안군 주차장 수급 및 인건비 산제조사율액	수출 및 구매	(사)혁신건설	2023	비공개	18	0
경남	제2차 육아기본수당 평가결과 실적	사회복지	한국보건사	2023	부분공개	4	0
인천	조직관리 연구실적	일반공공	(재)한국지방	2023	부분공개	30	0
전라	2023년 전농협 운영발전 300부회회의 결과 실적	단체체육	사단법인 한	2023	공개	22	0
전라	와순군 자원순환 고품격채취 수급 연구실적	환경보존	전남경제연구원	2023	공개	16	0
전라	학순군 덕거리농촌진흥센터 기본계획 수립 실적	농림해양	지역농업	2023	비공개	18	0
경상	합천지방공사 조직관리 연구실적	지역개발	사단법인 두	2023	비공개	18	0
충청	전원시 출자출연기관(공) 2023.3.5(2차)실적 경영평가 연구실적	일반공공	맥스컨설팅	2023	공개	19	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행조사 실적	공공질서	(사)한국안전	2023	공개	2	0

# 공익활동에도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글 김혜진(해튼)

청소년인권운동, 흥사단에서 교육운동, 잠시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결에서 사회적 공론장, 시민참여,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조직컨설팅 등 안하는 거 없이 시도해 보려는 돈키호테적 삶, 즉 가슴 떨리는 삶을 좌우명으로 삼는 공익활동가.

##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갈등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리서치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갈등관리 워크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 스트레스, 회피하고 싶음 등 대체로 부정적인 단어를 꺼내들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모두 고개를 내젓는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부정적이어야 할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갈등을 불편하거나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갈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종종 갈등으로 인해 조직과 개인이 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 뒤따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건 사회의 특성상 당연한 현상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이뤄지는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예컨대 토론과 합의 등 사회적 숙의가 결여된 일방주의적 갈등, 정파적 관점을 통한 편가르기식 갈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갈등은 바로 남북분단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매년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60조 이상이 국방비로 지출되며 50만 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데에 돈을 쓴다. 그뿐인가. 이념의 양극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소모적 논쟁도 남북분단이라는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손실이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그대로 안고있다. 물론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한다고해도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개인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와 만남을 가지려고만 해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공익활동 안에서의 갈등

2020년 12월, ‘시민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위한 사전설문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회원과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구성된 14개의 문항마다 공감도를 체크하도록 설계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질문	공감도(%)	질문	공감도(%)
1. 현재 우리 시민사회는 위기다	78.9	8. 시민사회의 마을, 민주시민교육, NPO 등 중간지원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77.5
2. 시민사회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73.8	9. 시민사회 경험과 능력 있는 활동가들이 공무원, 중간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78.6
3. 시민사회 자생력의 척도인 '회원 참여를 통한 재정 안정'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80.1	10.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매력성이 줄어들고 있다	76.2
4. 시민사회의 상근 활동가의 양적, 질적 수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78.6	11. 시민사회의 각 영역의 협업과 연대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73.1
5. 시민사회의 회원 중심 활동이 이전보다 위축되었다	79.1	12. 시민사회 내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79.4
6. 시민사회에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77.1	13.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의 갈등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72.9
7. 시민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비민주성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74.8	14. 시민사회 내의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82.8

\* 지면관계상 문항의 끝마다 반복되는 “-하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시고 계시나요?”는 삭제했다. - 편집부



특히 공익활동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답변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온라인 공론장(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림)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 가지 반응 - ‘충격’, ‘이젠 어찌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중 주로 ‘내 그럴 줄 알았어’를 택했다.

## 공익활동 안에서의 갈등 현상 엿보기

### 창업자의 저주

어떤 공익활동 조직이나 처음 조직을 시작한 창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처음 그 모임을 만들 때 그 마을이나 주변에서 그 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재정과 공간을 만들고 함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아 모임이 만들어진다. 대다수의 조직이 맨땅에서 시작하는 만큼 초기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 대체로 이 일은 창업자가 맡는다. 창업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직에 바치고, 주변 사람들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창업자에게 전권을 위임해주고 빠르게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조직을 운영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규약이 있겠지만 소멸의 씨앗을 낳는 조직은 무엇보다 창업자의 고귀한 마음과 헌신의 힘이 더욱 크게 작동될 것이다. 이후 과정에서 새로운 이방인과 이단아의 출현은 아마도 중요한 그 조직의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고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다. 그 유연함은 결국 기존 구성원의 성찰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단하는 과정을 수반하지만 대체로 이방인과 이단아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쇠하고 망하는 단계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갈등을 창업자 중심의 헌신만으로 이겨내려 하는 경향에서 발발한다. 무엇보다 창업자의 고귀함을 통해 단단하게 묶여 있는 조직 내부의 시각은 그만큼 비합리성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일구어 온 조직인데’, ‘내가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었어?’와 같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종래에 창업자만이 조직에 남고 이방인과 이단아가 소외되고 탈퇴하는 결말로 봉합되고 만다.



## **지식의 저주**

초기 과정에서 일정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때 행했던 기존의 프로세스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이 요소를 간과하는 조직이 많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정답이라고 여겨 그저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성화된 조직은 기존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또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 논의보다는 서로간의 암묵적 합의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관성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필경 문제에 부딪힌다. 기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왔던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답답할 수 있지만, 신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관행일 것이다. 이때 지금까지 ‘효율적’이라 여겨왔던 기존 구성원들의 업무 방식은 일종의 ‘지식의 저주’가 된다.

기존 운동의 언어, 의사결정 방식, 사업의 집행 방식은 기존 구성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견지해 온 일종의 ‘지식 자산’이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 필사적으로 적응하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우린 원래 그랬어”라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건 소통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조직문화, 소수의 독점적인 집행으로 이어진다.

## **사소한 오해에서 오는 감정다툼**

조직 안에서의 갈등은 엄청난 정책적 입장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크다. 이를테면 갈등이 있는 두 그룹이 존재할 때가 종종있다. 나와이 갈등이 심한 상대와 친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사람의 본질보다는 갈등 관계로 엮여 감정적 대립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뒷풀이를 좋아하는 구성원이 모임 이후 별도의 뒷풀이에서 배제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강한 소외감을 느끼고 이후 과도한 적대감으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기도 한다.



## 갈등을 관리하는 법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관리’해야 한다. 갈등은 사안에 따라 그 크기도, 시급성도 다르다. 조직 안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갈등은 웬만한 혁신의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 어떤 갈등은 오로지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사소하고 단기적인 오해는 만남과 소통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갈등의 성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의 영역이다. 또한 갈등은 상대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대와의 관계, 종합적인 역학관계, 기존 방식 개선과 혁신 가능성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 불편함을 감수하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부분 아픈 곳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는 더 퍼지고 돌이키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다만 문제를 드러낼 때에는 가급적 공식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대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으며 대안을 찾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워크숍을 제안한다. 혹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안, 문제의식, 개선점 등의 내용을 익명 온라인 설문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갈등 관리와 조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도 권한다.

### 인내와 공감

동료, 회원, 협업 관계 안에서 사람 간의 의견과 문화적 차이, 갑을 관계 같은 상황으로 인한 갈등이 종종 벌어진다. 부드럽고 온전한 대화로 이어지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경청’이다.

경청은 곧 인내의 과정이다. 경청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정치, 종교, 정파적 문제 등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나 상대가 나를 비난조로 공격할 때 가장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은 반박과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경청이 어려운 경우는 편견과 차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이다. 편견과 차별이란 상대를 나보다 못하거나 아랫사람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내가 앞잡아 보는 이가 나를 가르치려든다고 느낄 때 대체로 경청은 실패한다. 여기에는 상대의 성별이나 나이, 학벌과 경력 등이 작용한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한다. “맞아, 그렇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수용하자. 반박과 싸움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 이뤄질 때 의외로 상대는 공격성을 가라앉히거나 도리어 나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온전한 대화의 시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 **질문의 힘을 믿자**

많은 경우 타인의 행동이나 발화의 의도를 함부로 규정지를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럴 줄 알았지”라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본의는 결국 가려지고, 내 안에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대처한 건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자. 그렇다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과 말을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상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깰 수 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을 던지자.

### **내면의 동기 찾기**

사람들의 문제 제기는 산적한 문제를 고치려는 의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 문제 제기는 “나를 존중해달라”는 외침일 수도 있다.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시가 이뤄지는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당신의 경험과 의견이 큰 도움이 된다거나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려 노력하다보면 그의 부정적 피드백을 한층 완화시킬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을 해서 화가 난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보다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서일 수도 있다. 상대의 잘못을 과하게 지적하는 행동이 상대나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내면의 동기를 찾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어 주변 사람에게 눈총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때 수치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자녀를 과하게 다그치거나 다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행동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지 자녀를 교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 시선으로 인한 모멸감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 **상호 간 갈등의 이해,**

### **행동 양식을 고민해보기**

미국의 학자 토마스 킬만은 갈등관리의 스타일을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의 5가지 방식으로 해석한다. 목표 중심적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관계를 해치더라도 기필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쟁 유형, 상대의 이익과 나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공유하고 새로운 창의적 방식을 끊임없이 합의해 나가려는 협력 유형,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 해결보다는 되도록 간결하고 빨리, 성과를 내려는 타협 유형, 웬만하면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는 회피 유형, 다른 사람과의 대립적 구도를 두려워해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순응 유형 등이 그것이다.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갈등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유형을 설문을 통해 탐색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노력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조직과 리더와 구성원이 어떻게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지 고민할 기회를 갖는 것이 갈등관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 시대의 변화에 조직이 발맞추는 법

한국YWCA연합회

100년만의 조직 개편

한국YWCA연합회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한국YWCA연합회가 바뀌 온 성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이 없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온 단체가 바로 한국YWCA연합회다. 이들이 설립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운영한 탁아소가 '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됐다.

그런 한국YWCA연합회가 2022년 설립 100년을 맞았다.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에도 바쁠 텐데, 한국YWCA연합회는 축하 대신 변화를, 기념 대신 과제를 풀어나가기를 선택했다. 기존의 조직 구조를 완전히 바꿔 지역YWCA를 모두 개별적인 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한 것(한국YWCA연합회의 지역 지부는 무려 51개에 이른다!). 내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도전이지만, 변화의 지침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이들은 현재 법을 만들어가며 조직 개편을 밟아가고 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조직을 바꾸기 위해 세상마저 바꾸는 곳. 명동성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구정혜 사무총장**을 만났다.

진행 조경숙 (칼럼니스트)



## 1960년에도, 70년에도 숙원사업… 100년만의 조직 개편

**한국YWCA연합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존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쭙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시작은 1922년으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처음 창립될 때부터 한국YWCA연합회는 ‘연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자체에 생겨난 조직들을 하나하나 묶어 연합회가 된 게 아니라, 반대로 연합회 구조로 먼저 설립되고 난 이후 지역을 조직했어요. 당시 지역에는 기독교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많았는데요, 창립자 중 한 명이신 김필레 선생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들 그룹에게 ‘한국YWCA연합회에 가입하라’고 권한 거죠.

처음 연합회가 시작될 때는 법적인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이라곤 전무했으니까요. 연합회도 임의조직이었어요. 그러나 이후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때마다 법에 맞추어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법을 사후적으로 따라가야 하다 보니 조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1949년에 한국YWCA연합회와 지역YWCA의 자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사실상 한국YWCA의 모법인 성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였고,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가 법인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아래에 지역 YWCA들이 지부로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 등은 지역YWCA가 사실상 설립과 운영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후원회가 법적주체로서 중앙법인 형태를 하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50여 개의 지역YWCA와 거의 200개 이상의 시설이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소속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한 구조인 거죠.

내부적으로는 계속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설들이 제각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이었어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 운동을 하는 곳이고,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운동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성 직업훈련과 경제자립 등 여성인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처음에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일군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해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가능했어요. 유의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지자체 관리 하에 들어가고, 또 제도화되면서 이제 YWCA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건 점차 어려워졌어요. 지자체에서 아예 YWCA 이름을 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YWCA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운영되는 부속 시설들에서 한국YWCA연합회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건 사실상 어려웠어요. 내부적인 필요성은 이 구조가 운동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서 나온 거였어요.



조직 개편은 오래전부터 YWCA가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60, 70년대 회의록을 봐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건 지역YWCA이고, 메시지를 조율하는 건 한국YWCA연합회인데 정작 제도 때문에 만들어 둔 후원회만 몸집이 불어가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실제 운영되는 현장과는 괴리된 구조였던 셈이죠.

**기존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구조를 바꾸자고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재구조화를 논의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 일환이 먼저 한국YWCA연합회를 더 이상 임의조직으로 두지 않는 거였고요. 그래서 2011년에 드디어 한국YWCA연합회가 법인이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서 모든 지부를 연합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논의했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보니,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죠.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분할도, 합병도 안 되거든요. 후원회 소속으로 있는 지역 YWCA 지부를 연합회 본부 하위로 옮기려면, 후원회 지부를 다 없애고 새로 신설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 자산을 옮기려하면 취득세 등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또 일단 서류상으로는 시설이 후원회가 계약주체인 셈이니, 그걸 운영 도중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는 했었으나 한 번 좌절한 거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YWCA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음 100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부합의가 있었어요. 마침, 2019년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전격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지침인데,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근로자계약은 중앙법인의 명의



1922  
2022

변화를 향해  
우리,  
뜻을 품다

2022



1922 · 2022

로 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어요. 지금 구조라면 후원회가 지역 YWCA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을 후원회 명의로 채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도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법인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부적 조건이 구조 변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데에 더 빨리 이르게 했습니다.

## 조직 개편을 위해 ‘법 개정’까지 했다

**각 지역YWCA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지자체 보조금, 법인 등 모든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독립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대로 100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먼저 했어요.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전체 YWCA 구조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재구조화 실행지원 5개년 계획을 세웠죠. 현재 한국YWCA에는 연합회와 후원회 외에도 복지법인도 있어요. 이 세 법인이 힘을 모아 지역 YWCA에게 5년 동안 재구조화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매년 2억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재구조화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법인으로 독립하며 필요한 행정운영 시스템이 있잖아요. 회원 관리 시스템이나 재무회계 시스템이요. 그런 걸 상용프로그램에 YWCA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추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여 쓰게 됐는데요. 그런 비용도 재구조화 지원 예산으로 연합회에

서 지출했어요.

재구조화의 뼈대와 목적은 간단해요. 실제 현장과 제도를 맞추자는 거죠. 무엇보다 한국YWCA연합회의 본연적인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YWCA가 후원회에서 빠져나와 제각기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합회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여러 법인의 연합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법이 없었어요. 비영리단체를 분할하는 사례가 없었으니,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제각기 시설들을 동시에 옮겨야 하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그리고 세무서마다 기준도 달랐고요. 오히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가며 비영리단체 분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니 이전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고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상담소 등 여성 관련 시설들만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면세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 때 각 부서에 의견을 회람시켰는데 여성가족부만 의견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성 관련 기관들만 속 빠진 거예요. 이걸 법 개정을 요구해서,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어요. 이것도 우리 단체를 재구조화하는 과정 중 하나죠. 지금 비영리단체 분할에 관한 법안들도 개정안을 연구하고 있고, 이걸 나중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시작할 때 총 53개의 지역 YWCA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49개의 지역 YWCA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중 3

개의 지역YWCA는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해산했거나 해산을 준비중이고, 한곳은 내 부문제로 아직 논의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 분할을 통해 제도적 완성뿐만 아니라 운동성의 회복을 기대해요. 지역 단체들이 지자체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제각기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을 근간으로 한 운동성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 새로운 조직의 방향: ‘지역’과 ‘청년’

**지역 단체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요새는 ‘지방 소멸’도 화두인데요. 지역 단체가 지역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조직도 많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많죠. 지부 중에 서천 YWCA가 있었어요. 설립한 지 30년이 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부였지요. 그런데 서천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회원은커녕 실무 활동가를 채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지부에서는 ‘지방 소멸’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청년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고요. 지역의 대학으로 유입된 청년들도 주말이 되거나 방학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취업이 되면 더더욱 모임에 나오기도 어렵죠. 그래서 지역 YWCA가 제

대로 서기 위해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동떨어진 주제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청년이 없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한국 YWCA연합회는 조직 정체성에 청년이 들어가니 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본래 ‘청년성’을 꼭 나이로 제한하지는 않고 정신적인 것으로도 여겼는데요, 이제 워낙 청년들이 부족해지다보니 절대적으로 청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죠. 물론 청년이 부족한 데에는 한국 YWCA연합회의 역사적 측면이 있어요. 본래 대학 내에서도 YWCA 회원이 많았는데, 7-80년대를 거치며 줄어들었죠. 70년대에는 대학 내에 호국청년단이 생겨나면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규제해서 축소되고, 80년대에는 YWCA에서 정치적 이슈를 기피했던 태도로 인해 청년들과 또 한 번 멀어졌고요. 그런 조직의 한계 때문에 청년 회원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해도 청년회원이 200명 내외밖에 되지 않으니깐요.

청년 활동가 처우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급여를 많이 주고는 싶지만, 사실 매년 모이는 회비나 후원금이 매우 적거든요. 재정적으로 빠듯하다 보니 처우를 단번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워낙 청년들이 살기 힘든 사회인 만큼 우리라도 더 좋은 복리후생과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싶지만, 모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쉽진 않죠. 그래서 YWCA에서 나름대로 많



은 시도를 했었어요. 모금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세워 우리가 돈을 직접 벌어서 보자 하고 시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경영인의 태도가 필요한데, 활동가가 그런 걸 갖추기는 어렵더라고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지역 단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YWCA 운동을 위한 젊은 활동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처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 재정이 탄탄하게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해답을 ‘운동성 회복’이라고 봤어요.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사회 변화’라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토대로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기관 운영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지 않아요. 단체가 하는 운동과 지향을 보고 기부하는 거죠.

### 청년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가요?

청년 사업을 담당하던 간사가 있어요. 그 간사가 청년을 어떻게 모을까 항상 고민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지역에 한 번 내려가서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 간사와 청년 회원 두 명이 함께 군산으로 내려갔어요. 당시 군산에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군산에서 청년 커뮤니티를 해보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그게 선정됐어요. 지금은 ‘로컬프렌들리’라는 회사까지 설립해서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요. 햇수로 4년 잘 살아남았고, 게다가 유의미한 성과도 거둬 최근 아카이빙북도 냈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고 있고, 인건






비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전액 지원해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음껏 만들어보고 있고, 그런 실험을 하는 그들 역시 청년이고요.

우리는 일단 청년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흥(흥할 흥)해도 청년, 망(소망할 망)해도 청년’을 줄인 ‘흥청망청’이라는 프로젝트를 띄웠는데요. 청년들이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결과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원을 모금했어요. 100주년이니까 가능한 모금이었죠. 올해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해보고 싶어서 추진했고, 지역의 여성 청년들이 하는 재미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중이에요. 앞으로도 청년과의 접점을 더 늘리고 싶어요.

조직 내부적으로도 청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총 21명의 이사 중 1/3을 청년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원래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청년들만 이사로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한국YWCA연합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청년 활동가도 이사로 진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실험이죠.

**마지막으로 <2023 공익활동 트렌드 리포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곤 했지만, 그때마다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 왔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보지만, 신앙이 있다는 것 빼고는 모든 구성원이 다 달라요. 천주교, 성공회 등 종파 자체도 다양하고 정치색이나 세대도 다르죠.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가 가진 기조와 정신 아래에서 뚝뚝 뭉쳐 시대마다의 과제에 부딪히고 도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는 청년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을 하지만 결국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 활동하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무엇보다 저는 청년들에게 한국YWCA연합회가 어렵지 않고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조직이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든 와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면 좋겠습니다. 



#### 글 홍민지

빅이슈코리아 커뮤니케이션 팀 디자인·마케팅 기획자. 조형 예술을 전공했고, 전시 디자인을 하다가 활동가로서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빅이슈코리아에 입사했다. 함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뭐든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의 있게 살고 있다.

## 잡지 너머 자립을 돕는 ‘빅이슈’

지하철역 주변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빅이슈입니다”를 외치는 『빅이슈』 판매원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이들을 ‘빅판’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동선에서 만나는 판매원들과의 교류는 독자에게도 빅판에게도 단지 잡지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눈을 맞추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책을 주고 받는 인간적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요. 빅판은 잡지를 판매하면서 판매지 주변을 오가는 학생과 직장인,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자립하기를 꿈꾸게 되죠. 때로 빅판들은 단골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마음을 담은 시를 전달하며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독자들도 빅판을 통해 빅이슈를 알게 되어 종종 다시 오래 전 자신이 만났던 빅판을 찾기도 합니다. 학생일 때 만났던 빅판을 직장인이 되어 다시 수소문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었고, 그분이 잘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연과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빅이슈』는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잡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빅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대만 등 6개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매거진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판은 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대중문화 및 라이프스

타일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며, 20~40대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갖고 있습니다.

홈리스 자립 지원을 위한 솔루션은 복합적입니다. 빅이슈코리아가 빅판에게 그저 판매할 잡지만 건네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이슈코리아는 노숙 상태에 놓인 사람,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 등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 경험을 통해 자립하여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에 처음 도전하는 신입 빅판에게 주거지가 없는 경우 임시 주거지와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빅이슈를 판매하는 동안 누구도 거리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 복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나 심리 상담 등 빅판이 판매원으로 사회에 나가는 동안 어려움은 없는지 빅판의 상태를 두루 살피며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빅이슈가 ‘디지털’을 고민하게 된 이유

근래 『빅이슈』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면에서 위기가 겹쳤습니다. 먼저 잡지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출판시장도 타격을 받는 추세입니다. 아직 종이책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전자책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모로 보았을 때 ‘종이로 발행되는 매거진’인 『빅이슈』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해 거리에 행인들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빅이슈』의 판매량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빅판 자체도 줄어들게 되었죠. 본래 6-70명대의 빅판이 평균 스무 권 정도를 팔았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30명 대의 빅판이 열 권도 채 팔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자책을 비대면으로 팔 수 없을까?’ 떠올리게 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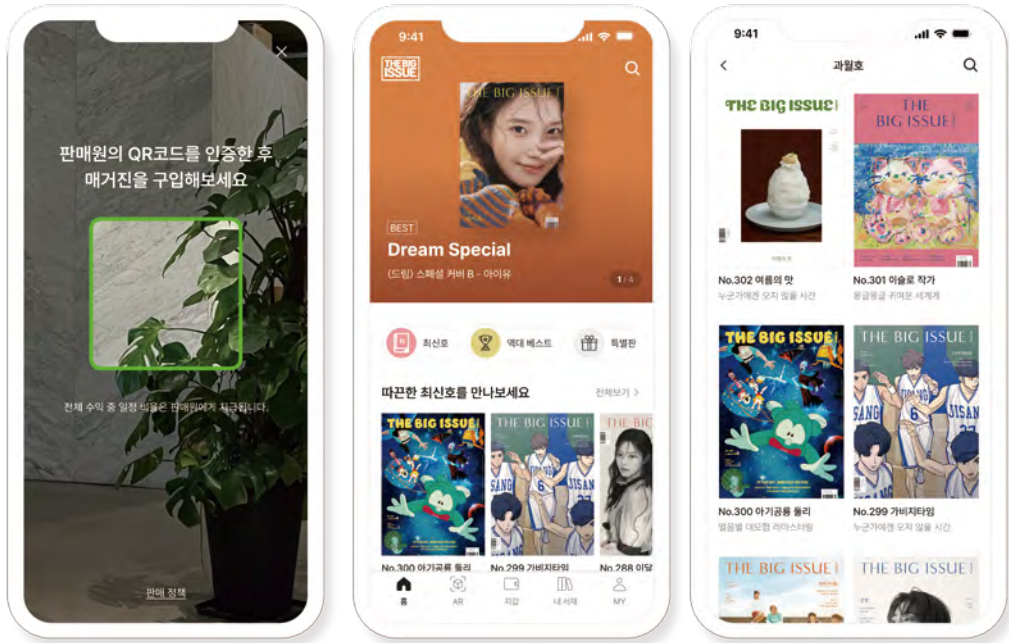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빅판과 독자 사이에서 오가는 인간적 교류를 온라인으로 옮겨내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판매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빅판의 자립을 돕고

있는 빅이슈코리아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전자책을 판매하면서도 기존 오프라인 판매와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자책으로 빅이슈를 판매하면서도 빅판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디지털로 이행하는 건 꼭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와 사업을 잃어선 안 됐죠.

기존 오프라인 판매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 빅판에 도전하면, 우선 『빅이슈』 10권을 무료로 받습니다. 판매 수익으로 다시 잡지를 구매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빅판들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매거진을 수령해서 판매지로 이동합니다. 판매지에서 판매한 금액의 절반은 빅판에게 돌아갑니다.

전자책을 판매하면서도 빅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을 고민하던 끝에 빅이슈





빅이슈코리아 제공

앱에 ‘인증’ 기능을 두었습니다. 빅판마다 고유한 QR코드를 발급하여 해당 QR코드를 모바일 앱에 인식시키면 해당 빅판에게 구매했다는 내역이 인증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엔 인앱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의 절반을 이전과 똑같이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독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빅판과 독자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전자책 판매가 실물 잡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판된 매거진의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판매원들이 자본금 없이도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비인증 방식’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인증 방식으로 구매하면, 빅판을 만나지 않고도 빅이슈를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은 빅이슈코리아에서 빅판에게 제공하는 주거 장려 지원금 등의 자립지원 활동금으로 사용됩니다. 빅판에게 수익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빅판들을 위한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쓰입니다.


## 앱 안팎의 과정과 고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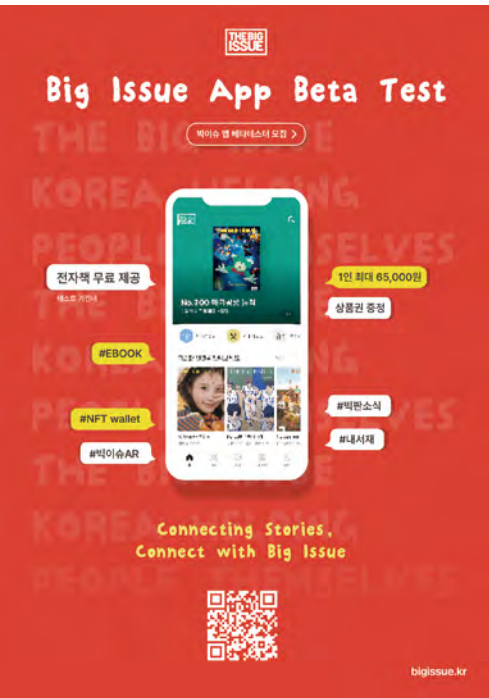
빅이슈 앱에서는 빅이슈 매거진을 전자책으로 구매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빅이슈 캐릭터와 촬영할 수 있는 AR카메라, 빅판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판매원 소식, 그리고 다소 낯설지만 ‘NFT지갑’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책: 빅이슈 매거진과 콘텐츠를 구매하고 열람할 수 있는 메뉴. 절판된 과월호, 특별판 등의 매거진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AR 카메라: 빅판을 상징하는 ‘빅곰이’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업데이트하며 사용자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 판매원 소식: 빅판의 최신 소식과 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빅판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도 남길 수 있습니다.
- NFT 지갑: ‘NFT’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주로 쓰이는 용어로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빅이슈코리아에서는 블록체인을 도입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투명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제안합니다. NFT 기부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앱 기획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앱을 오픈하기 전, 베타테스트를 다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쓰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사용자, 더불어 기존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여겨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노력했습니다. 베타테스트는 온라인 설문, 심층 그룹 인터뷰, 일대일 인터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베타테스트를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전에 빅이슈 매거진을 이미 구매한 독자들이었습니다. 테스트와 심층 인터뷰 결과 아직 앱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의 디자인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처음엔 오프라인 판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직접 빅판과 만나 QR코드로 인증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거치며 판매 방식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용자들과 함께 앱을 발전시켜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빅이슈코리아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빅이슈 앱은 정식 출시를 준비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고쳐나가면서 빅이슈 앱이 독자들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빅이슈 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 시니어 활동가는 어디에 있을까

글 정소민

교섭과 접촉의 지대를 만드는 문화기획사 ㈜세상은 요지경을 운영하고 있다. 큰 딸이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50+세대 대상의 시민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중장년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는다.

혹시 우리 동네의 ‘통장’ 혹은 ‘반장’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머릿속에 ‘응답하라 1988’의 골목길 풍경이 떠오르진 않나요? 저는 가끔 거리를 걷거나 식당에 갈 때 간판 옆에 자그마하게 붙은 ‘00 1동 통장의 집’ 같은 현판을 자주 만나요. 예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동네를 중심으로 제 삶이 재구성되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있는지, 누구인지 이미지가 전혀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시니어’+‘활동가’ 이 두 단어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통장님이었어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갱신하고 있는 한국의 여름, 동네를 돌며 독거노인분들을 직접 방문하고, 안부를 살피고 대화를 나눈다던지, 갑작스런 수해가 터졌을 때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를 자원봉사자들이 집결해서 하수도를 파내고 집으로 들어온 물을 퍼냈다는 기사 본 적 많으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럴 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입니다. ‘통장’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통’ 단위의 지역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골로 치면 이장과 비슷한 직책이에요. 물론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활약한 내용의 기사를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사는 동네에 보통 애정이 있는 게 아니면 통장으로 활동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를 살피고 기웃거리고, 해야할 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동네 구석구석의 일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00 1동 통장의 집’을 지날 때마다 생각하곤 해요.

## 시니어 공익활동가라는 ‘이дея’

“왜 시니어 공익활동가는 잘 안 보이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시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살짝 사고가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통장님이 있어요!’라고 대답하기 전에 제가 좀 머뭇거렸거든요.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 질문이 향하는 방향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 질문과 ‘머뭇거린 태도’에서부터 시작해 시니어 활동가 신(scene)을 그려보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니어 (공익)활동가’, ‘시니어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해봐야겠죠. 제가 ‘공익’이라는 단어를 괄호에 넣은 것은 묘하게 공익이라는 단어가 시니어라는 단어와 붙는 순간 또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시니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시니어에 의하여 규정되고 펼쳐지는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시니어들에게 ‘공익’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니어 활동’, ‘시니어 활동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라는 특정 연령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혹은 주체로 하는 세계는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역에 발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조차 ‘시니어’라는 단어 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담을 수 있을지를 매 해, 매 월 새로 고민하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새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책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만 50세 이상, 만 5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등의 장년층부터 시니어로 지칭할 때가 많지만 막상 그 세대의 분들에게 ‘시니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여쭙보면 75세 이상의 노인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뉴시니어’라든지, ‘액티브 시니어’같은 단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미지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대다수가 ‘나이듦’을 심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를 시니어라고, 혹은 노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회에서 당사자들의 언어로 이 세대를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습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50+ 세대로 정리하고 상한선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이듦’이라는 것은 너무나 개별적인 문제여서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 일상에서 만난 '어른들'

제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활동가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공동체와 함께 다양한 마을활동을 만들어낸 지역 활동가, 마을활동가들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 그 사이에 활동가로 등장한 분들도 어느덧 50+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을이나 지역에서의 활동이 동력을 얻은 큰 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부분인데, 마을의 아이들도 10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육아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작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마을 안에서 활동가들은 활동적인 측면과 자기 인생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화와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시는 때를 맞게 되죠. 이 활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시니어 활동을 펼치고 상상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네요.

둘째는 마을공동체 사업보다 훨씬 전부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활동하셨던 지역 어른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통장, 반장의 이름을 갖고 지역 안에서 발로 뛰는 많은 분들, 또 새마을, 적십자, 청소년 위원 등등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수십 년간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조직 아래에서 지역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변단체의 한 해 주요 행사들은 봉사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중에는 쌀이나 현금, 물품을 기부하는 활동도 있지만, 지역 내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식사 배달 활동이라든지, 목욕봉사 등도 많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는 수해를 입거나 큰 재해가 있을 때 주민센터를 중

심으로 가장 빨리 호출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물을 퍼내고 집기를 옮기고 하는 데도 큰 손을 보태오신 분들이죠.

같은 선상에서 지역별로 촘촘히 조직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캠프'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1365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쌓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별로도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는 데다가 도움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기관에 손을 보태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떠올리는 이유는 시니어들이 '공익활동'이란 말은 낯설게 느껴도,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나 숙제, 의무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고 또 시니어들의 여가의 형태로 제시되어 여가로서의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 삶 만족도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보람 일자리, 노인 일자리, 공공 근로 등의 이름으로 '일'을 찾아 활동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 동기, 개인적인 생활의 양식, 현재 상태와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요? 생계적인 문제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도 클 테지만, 또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노년의 생활에 있어서 그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공공사업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일하는 노인을 볼 수 있는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생활을 지탱하는 루틴으로서의 직장의 중요성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시니어 활동으로 ‘끌어들이기’

이 중에 우리가 처음 질문을 던질 때 생각했던 ‘시니어 활동가’ 혹은 ‘시니어 활동’의 장면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저는 그나마 첫 번째 모습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활동의 주체성에 있지 않을까요? 곧 ‘시니어 활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심코 전제했던 활동의 의미에는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행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사자성이나, 수혜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100%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의 주인공들도 좀 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니어 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 잠재적인 에너지들을 서로 마주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세대의 활동과 이전 세대의 가치관이 지금의 공익활동 트렌드와 만나고, 엮이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더 극적인 시니어 활동가의 탄생을 그려보고 싶거든요.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공익활동 영역에서 해 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로 상정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잘 형성된 사회의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면서 시스템에 의해 충분히 교육받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또 수행해본 사람만이 경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시대를 잘 타고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체로 두

고,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건 한 개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그 시대의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더욱 더 스스로의 힘을 아직 발견하지 않은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시니어 활동가라는 장면도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우선 스스로의 역량과 활동범위를 좁히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은 전문가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노인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그걸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걸 내가 한다고?’라고 생각하게 되려면 정말 갈 길이 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닌, 시민이 직접 만들어내는 변화의 씨앗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형태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접 한다는 점에서 그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문제를 뜯어 고칠 생각이 아니라, 변방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가 빨리빨리 세계 1위, 산업화, 경제화, 규모화를 외친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예비 노년 세대, 노년 세대에게는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정소민 제공

와 갈등을 경험하는 원인으로도 작동합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스스로의 수식어를 키우고, 명함에 8줄씩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취약함에 포용적인 태도가 부족한 분위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인지 시니어 세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가 자꾸 축적될 수 있으니까요.

### ‘공공성’의 어원

여기까지가 시니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라면, 개념적으로 ‘공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거나 통용되어 왔는지 이야기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익’이라는

말이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공공’은 누구일까요?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어로 public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publicus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맥락상 ‘인민의, 대중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 시대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란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또 공공성을 논할 때 독일어의 offentlig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영어의 open에 해당하는 중세 독일어이며, ‘열려 있는’,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단어 ‘공공’에서는 公(공평할 공, 공공 공)

공(함께 공, 한가지 공) 두 글자가 사용됩니다. 공평할 공자는 ‘공공연하계’ 같은 단어에서 ‘열린’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함께 공은 ‘공동체’ 같은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글자 모두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공평할 공자의 존재, 사사로운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 글자가 끼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과 사를 구별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공’자를 공유하는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나랏일(사회문제의 일)에 힘입에 있어 이 공사를 구별하는 것, 더 나아가 ‘멸사봉공(사사로운 마음을 없애고, 공에 봉사하는 것)’의 가치를 크게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내 방식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은 새롭게 제안되었던 개념일 수 있는 거죠. 시니어세대에서 활발한 자원봉사는 이런 관점에서 ‘멸사봉공’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은 그게 사회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나의 희생의 의미를 떨어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공익활동 트렌드’가 변화해온 길도 이 ‘멸사봉공’의 시대정신을 꾸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행정이나 사회 의식과의 끊임없는 아직도 진행 중인 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느슨해진 공익활동선에 긴장감을 주는 시니어 활동가 씬 상상하기

‘세대차이’ 같은 말로 쉽게 통쳐지기도 하는 이런 차이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시니어 활동가 씬을 상상하는 것은 희망찬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익활동’을 경험한 예비 시니어들이 속속들이 편입될 것이고요. 시민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정책에 제공했던 기반이 네트워크, 사업비, 공간이었다면 은퇴 이후 한가해졌지만,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니어라면 2번과 3번은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가장한 교육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만 있다면 시니어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본격적으로 흔들고 뒤섞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아이디어도 경제적 능력도 있는데, 예전의 우리 처럼 이런 활동영역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리적 기반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온 이 분들이 아이디어와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회를 얻게 된다면 수십 년간 쌓인 연륜, 경험치, 활동영역 바깥에서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느슨해진 공익활동선에 긴장감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쩐지 마음이 설레네요. 





질문 있습니다

#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인 SNS. 어떻게 할까?

글 오수연

서울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주로 정보성 콘텐츠 발행을 관리하며, 그외에도 촬영이나 전시기획 등 이미지 제작과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Karsten Winegeart

미디어홍보팀에서 일하지만 솔직히 말해 SNS에 피로감을 느끼는 편이다. SNS 유저로서 스크롤 몇 번 내리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을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경험이 썩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홍보팀의 여러가지 업무 중에 SNS 관리가 가장 부담스럽다. 이렇듯 SNS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관심 정보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원회원 확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잠재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 SNS 계정의 팔로워는 단체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유입이었기 때문에 단체의 고관여도인 타겟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단체의 메시지를 게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내가 정말 잠재후원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SNS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있었는가? 어쩌면 SNS 안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마케팅에 유저들을 사로잡을 수 없을까 봐 두려워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광고들의 집합소가 된 이 채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마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목표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서울환경연합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뾰족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도 발

생하지 않았다. SNS 운영을 아주 ‘당연하게’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어디든 인스타그램을 기본적인 홍보 채널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당연하게 채널을 운영하고, 당연하게 게시물을 올리기만 했다. 게시물 반응이 저조하면 그저 아쉬워하며 넘겼다. SNS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 이걸 다 해야 한다고?!

입사했을 때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채널은 총 7개나 되었다. 채널 관리 실무는 거의 1인의 업무였고, 이외 다른 업무도 있었기에 모든 채널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웠다. 성과를 내려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했는데 현실은 업로드와 문의 응대, 유지 관리만 해도 힘이 부쳤다. 당시엔 이만하면 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후퇴하고 있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 유저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방법, 형태는 달라지게 마련이고, 그 흐름을 읽고 주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고군분투했지만 후퇴하는 채널들을 관리하며 현타가 왔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는 걸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닌, 요청한 게시물을 올리기만 하다 보니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를 하는 느낌이었다. 일을 흥미없이 급하게 해나갔고, 이 업무환경은 곧 나를 소진시키고 방황하게 만들었다. 때마침 팀내 인원이 총원되었고 업무분담을 통해 관리하는 채널을 나눌 수 있었다.





## 감당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기

미디어홍보팀에 새로운 활동가가 들어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채널을 축소하는 일이다. 사실 인원이 충원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다수의 채널 속에 파묻혀 길을 잃은 나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에너지조차 소진되었던 상황이었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니 환기가 되었고, 당시 그는 정해진 인적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채널 운영을 문제점으로 파악하며 이를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채널 외에 반응이 저조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운 채널은 정리했다. 한때 ‘비건 레시피’ 콘텐츠로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틱톡도 더이상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과감하게 정리했다. 애매하게 운영했던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한 힘을 완전히 뺐다.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미디어홍보 채널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4개로 추려졌다. 확실히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모여 주요 채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일 활발한 만큼 관리가 시급한 인스타그램의 문제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 톤앤매너는 홍보의 기본

인스타그램 채널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물의 톤앤매너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톤앤매너는 중요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단체의 성격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단번에 전달할 수 있고, 반복적인 시각적 통일감을 통해 단체의 특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가까워 지려면 단체가 어떤 성격인지 잘 드러내어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때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의 결이 잘 맞아 보이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단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단체가 가진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꺼내 놓는 이야기는 무엇보다 관심있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홍보물의 시각적 요소는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피드의 이미지가 중구난방이면 단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 더러 채널이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전체적인 미디어 채널의 톤앤매너를 맞췄다. 다른 미디어 채널은 배너 이미지가 차지하는 화면 비율이 넓어서 금방 톤앤매너를 맞출 수 있었지만, 인스타그램은 프로필 이미지보다 게시물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화면에서 더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게시하는 홍보물마다 디자인 일관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미지를 늘 외부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길 수도 없고, 미디어홍보팀 활동가가 도맡아 제작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캠페인 홍보물은 캠페인 담당 활동가가 직접 제작해 왔다. 그래서 담당 활동가의 역량과 취향에 따라 디자인이 들쭉날쭉 바뀌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공통적인 이미지 가이드 뿐만 아니라 내부 이미지 제작 시스템도 개선해야 했다.

이후 팀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내부 이미지 제작 시스템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약 1년 여 동안 여러 변화와 실험이 이어졌다. 처음엔 아무래도 버겁지 않을까 여겼던 홍보 이미지 제작을 미디어홍보팀에서 주관했고, 대신 이미지 제작기간 확보를 위해 적어도 3일 전에 미리 소통하도록 담당 활동가들에게 요청했다. 당시 캠페인 홍보 직전까지 내용이 수정되거나, 업로드 당일 캠페인 담당 활동가들이 급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대신 적응 기간 이후에는 활동가들이 자신의 캠페인 이미지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톤앤매너도 조금씩 맞춰졌다. 이미지 제작을 미디어홍보팀에



서 직접 관리하면서 인스타그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인스타그램 운영을 맡았던 활동가는 다양한 템플릿 디자인을 시도해 보며 점차 발전시켰고, 최근에 드디어 최종 템플릿을 완성했다. 앞으로는 이 최종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과 운영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톤앤매너를 맞추는 과정에는 단지 홍보물 사이의 디자인 통일성 외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었다. 일단 이미지를 보자마자 서울환경연합의 콘텐츠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되는 여섯 가지의 활동 카테고리를 각각 다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규모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캠페인은 게시물 사이에서도 그 규모가 차이나게 보일 수 있도록 단체의 브랜딩 요소보다 캠페인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춰 디자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게시물이 계정 프로필에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조화로워야 했다. 그래서 올해 서울환경연합의 ‘리브랜딩(Rebranding)’ 작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요소와 컬러셋을 다양하게 선정했고, 이를 템플릿 제작에 활용했다. 또한 브랜드 가이드를 만들어 규모가 큰 캠페인의 비주얼 디자인을 외부 업체에 의뢰할 때 참고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톤앤매너를 맞추도록 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렇게 변화시킨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정리해 놓은 것을 앞으로 잘 대입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운영 과제다.

Brand Design Elements

3 Brand Color System  
브랜드 컬러시스템

서울환경연합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통일성을 위해 지정된 컬러만을 사용합니다. 초록색과 보라색을 메인으로 개성있고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Primary Color

	<p><b>Nature Green</b></p> <p>HEX #38D665 PANTONE 7480 C RGB 56 214 101 CMYK 80 0 95 0</p>
	<p><b>Active Purple</b></p> <p>HEX #6C43FE PANTONE 2725 C RGB 108 67 254 CMYK 70 80 0 0</p>

Secondary Color

<p><b>Sunny Yellow</b></p> <p>HEX #FFF5D1 PANTONE YELLOW 0131 C RGB 255 245 209 CMYK 0 2 20 0</p>	<p><b>Calm Grey</b></p> <p>HEX #DDE2E7 PANTONE 649 C RGB 221 226 231 CMYK 12 7 5 0</p>
<p><b>Watery Blue</b></p> <p>HEX #80C0FF PANTONE 291 C RGB 128 192 255 CMYK 45 15 0 0</p>	<p><b>Warm Pink</b></p> <p>HEX #F6ADCD PANTONE MAGENTA 0521 C RGB 246 173 205 CMYK 0 40 0 0</p>

## 우리 단체의 팔로워는 어떤 게시물을 좋아할까

한참 캠페인 홍보글로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도배된 시기가 있었다. 게시물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 하루에 하나는 기본, 많으면 두세 개씩 홍보 게시물만 주로 올라가는 피드에 팔로워들의 피로감이 많이 높아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활동 별로 반응이 크게 차이나는 캠페인 홍보 게시물 사이에서 가끔 올리는 환경 이슈나 활동 후기는 정보성 게시글은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활동 후기는 거창한 이미지 편집이 들어가지 않아도 현장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사진이라면 좋은 반응을 끌기에 충분했다.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며 우리는 팔로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더 많이 제작함으로써 그들과 유대감을 더 깊이 쌓고자 했다. 팔로워들과 유대감을 쌓는 것은 곧 잠재 후원자들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SNS 운영 목표를 정보 전달로 두어 정보성 콘텐츠의 업로드 양을 증가시켰고, 홍보성 콘텐츠는 피드보다 스토리 및 하이라이트를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보성 콘텐츠에도 정보를 제공하며 내용을 구성하거나, 카드뉴스 표지에 현장 사진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는 등 현장감과 정보 전달의 성격을 담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단체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하면 정보성과 홍보성 콘텐츠의 비율이 거의 50:50이 되었고, 그에 따라 게시물의 평균 반응 수치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었는지 1만 팔로워를 달성한 이후부터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던 팔로워 증가율이 점차 속도를 내며 곧 1만5천 팔로워를 달성했다. 이전에는 활동 후기와 정보성 글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많이 다듬어야 한다고 여겼는데, 의외로 팔로워들은 우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팔로워들이 환경과 자연에 대한 ‘둥글고 편안한’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을까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단체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반갑고 감사했다. 더불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850  
게시물

1.6만  
팔로워

145  
팔로잉

서울환경연합  
커뮤니티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진짜 변화를 만드세요.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투명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문의 : 카카오톡 '서울환경연합' 검색 DM

[litt.ly/seoulkfem](http://litt.ly/seoulkfem)



참여해주세요



활동 소개 / 문의




브랜드 CI



## SNS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SNS 팔로워는 곧 단체의 잠재 후원자다.” SNS 운영을 고민하는 내게 시민참여팀 활동가가 해 준 조언이었다. 다시 그의 말을 곱씹어보니 SNS에서 발생하는 잠재후원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 글의 서두에서는 SNS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잠재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창구라고 했지만 광고가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 정말 잠재후원자 개발 비용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는지, 광고 과밀화로 점점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가 필수라면 캠페인 모집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광고 외에 정보성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활용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글로 한 번 정리해 보니 명확해지는 점이 참 많다. 막연한 두려움에 회의감을 갖기보다, 잠재후원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전환하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 스레드 등 단체를 응원해 줄 타겟층이 많이 모여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잠재후원자 또는 후원회원과의 유대감을 두텁게 쌓아나가는 것이 SNS 운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됐다. 미디어 채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공간적 수단이다. 채널 자체를 목적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상기시키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는 채널 내 외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지 않고 열어야겠다. 

워크숍

# 전달하는 디자인 원칙

글 김미선

도서출판 이김 편집자 겸 스튜디오 코스모스 대표,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이사.  
긴 호흡의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텍스트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읽음직한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영리와 비영리를 균형감 있게 넘나들며 세상의 진보를  
위한 디자인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연 지 벌써 7년이 넘었다. 그간 많은 의뢰를 받았지만 유독 비영리단체나 공익활동 기관에서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 내가 직접 활동의 최전선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예쁜 옷을 입고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해 왔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활동을 알린다.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리기도 하고, 뉴스레터를 보내고, 블로그나 SNS에 이야기를 전하고, 활동의 이야기들을 엮어 책자로 만들기도 한다. 활동의 면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부의 공감을 얻고, 활동에 (격려와 후원 등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에는 물성이 있는 홍보물이 많았다면 요즘은 화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 좋은 글과 디자인이 뒷받침해 준다면 좀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듯, 활동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물 디자인에 큰돈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특별한 행사나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 디자인 워크숍을 다니면서 내가 강조했던 건, 내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엔 ‘예쁜 홍보물’보다 ‘잘 보이는 홍보물’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잘 보이는 홍보물’이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콘텐츠다. 이 글에서는 ‘전달력 있는 홍보물’을 만들 때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을 설명하려고 한다.

## 디자인에도 ‘방향성’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일까? 명료하고 깔끔한 것, 색상 하나로 모든 것을 휘어잡는 힘, 강렬한 일러스트... 사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잘 보이는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은 “보는 사람이 우리의 의도에 따라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 곧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한다. 방향성이란 “화려하지 않지만 눈에 띄게” “단순하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게” 같은 모종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도출하고 싶은지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독감 주사 포스터를 통해서는 경각심과 주사를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행사 포스터에는 호기심과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글은 디자인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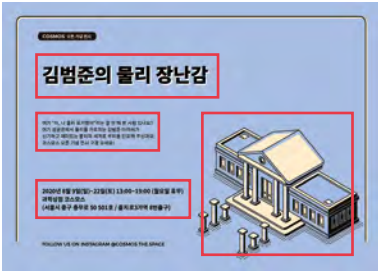
###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 정보의 층위를 나누기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가끔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 특히 기획안을 재구조화하지 않고 기획안 전부를 포스터 한 면에 모두 채워 넣은 포스터를 볼 때 그렇다. 하지만 홍보물의 목적은 보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단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나 웹사이트 링크 등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그렇다면 행사 포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순서대로 1) 어떤 행사인지(행사의 제목), 2)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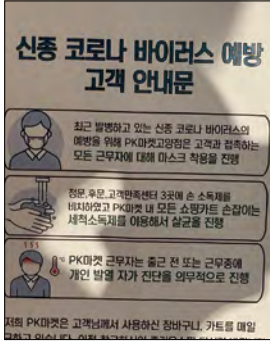




제 어디에서 열리는지(행사 일시 및 장소), 3) 누가 참여대상이며 어떻게 참여하는지(신청 방법)가 가장 중요하다. 홍보 문구와 이미지 등 그 이외의 정보는 부수적이다. 중요한 것을 크고 진하게, 덜 중요한 것은 작거나 연하게, 같은 층위의 요소는 통일감 있게 배치해야 한다.

### 간결하게 말하자

어떠한 홍보물이라도 한 면에 많은 글씨가 들어가면 읽기가 어렵다. 따라서 글자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행사나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는 메인 카피는 13자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려면 메인 카피를 작성한 뒤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빼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을 삭제하고, 긴 단어는 조금 더 짧은 단어로 대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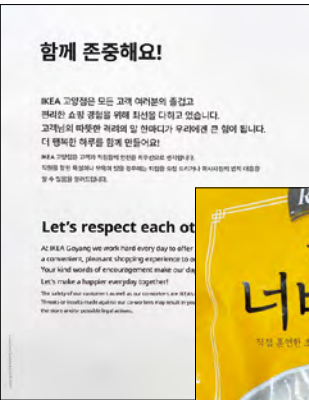


### 더 좋은 단어를 선택하자

이케아 고객센터 앞에는 “함께 존중해요 (Let’s respect each other)”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있다. 고객 상담원에게 정중하게 대해 달라는 당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존중은 ‘함께’보다는 ‘서로’라는 표현과 좀더 어울린다. 음식값을 올리면서 공지문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합니다”라고 써 놓았다면 “재료값 상승”으로 고치는 것이 더 조화롭다. 숯불향 너비아니 포장에 “직접 훈연한 초핑육”을 넣었다고 하는데 다짐육이 좀더 대중적인 표현이 아닐까? 업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혼란의 여지를 없애자

이전에 겪었던 일이다. 동네에 ‘맛나 아구찜’이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가 있는데 출입문에는 ‘만나 아구찜’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 번은 휴게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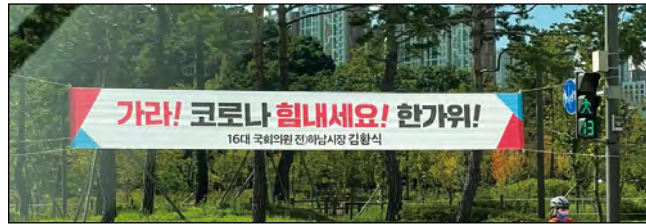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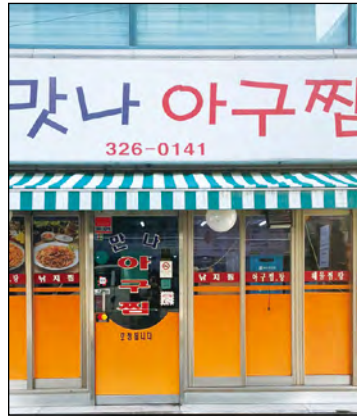


‘박찬호 크림 무료체험’이라고 쓰인 배너를 보았는데 아랫부분에 ‘300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정보는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아구찜 집 이름은 대체 뭘까? 박찬호 크림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을까, 300원을 내야 할까?

충돌하는 정보 이외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단순 오탈자도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가라! 코로나 힘내세요! 한가위!” 색상으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이 현수막의 문구는 총 세 문장이다. 문장 부호의 위치 때문에 코로나 보고 힘내라고 하는 셈이 되었다. 바뀌기 전의 맞춤법을 그대로 쓴다거나, 발음이 미묘하게 비슷한 다른 단어를 잘못 가져다 쓰면 읽는 사람들에게 의아함이나 당황스러움, 혹은 불쾌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 우리말로 쓰자

요즘 눈을 돌려보면 한글이 아닌 영어 알파벳으로만 된 간판, 메뉴판 등이 너무 많다. 물론 홍보물에 영문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영문은 어디까지나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해야지, 메인 메시지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우리 홍보물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과 한국어 사용자다. 왼쪽 자전거는 “누구나 3회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전기로 작동하는 스마트 바이크라는 것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또 의외로 영어를 쓸 때 역시 어법에 틀린 말이나 단순 오탈자 등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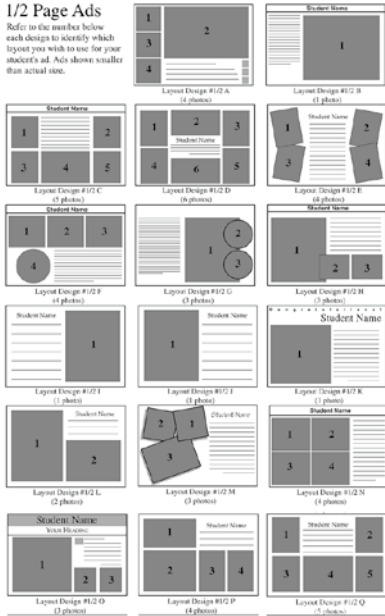


## 레이아웃:

###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 1/2 Page Ads

Refer to the number below each design to identify which layout you wish to use for your student's ad. Ads shown smaller than actual size.



레이아웃이란 특정 영역 안에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다.\* 범주화한 텍스트 덩어리를 어디에 어떻게 놓을까?

옛말에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디자인 원칙으로 적용하면 홍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배치하고, 나머지는 힘을 빼야 한다는 뜻이 된다. 제목, 내용, 일시 및 장소 등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정하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흐르도록 배치해야 한다. 행사의 주관이나 후원 기관 등의 로고는 주최 입장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장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놓아야 한다.

#### 홍보물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레이아웃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앞서 홍보물을 발행할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포스터는 출력하기 쉽도록 A3(297\*420mm) 등의 직사각형 모양을, SNS 용으로는 정방형(1:1 비율)을 주로 사용한다. 출력용 포스터는 한 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넣어야 하고, SNS용 포스터는 옆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을 준비한다. 이 경우에는 장별 구성이 필요한데, 첫 페이지에 행사의 가장 큰 개요를,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 [https://www.milton.k12.wi.us/schools/high/Senior-RecognitionAdTemplates\\_16.pdf](https://www.milton.k12.wi.us/schools/high/Senior-RecognitionAdTemplates_16.pdf)



## 여백과 이미지

보는 이의 시선이 화면 안쪽으로 모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여백이다. 여백의 미는 동양화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무척 중요한 요소다. 화면 안에 모든 요소가 뻑뻑하게 들어차게 하면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웹용에는 사방 50px, 인쇄용에는 10mm의 최소 여백을 세팅해 둔다.

포스터에 활용할 이미지를 고를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미지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골라야 하며, 중요하게 전달해야 하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콘이나 픽토그램도 마찬가지다. “텍스트만 놓았을 때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관련된 아이콘을 난잡하게 배치하는 것 역시 절대 지양해야 한다.

## 손으로 먼저 그려보기

컴퓨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에 펜이나 연필로 위치를 잡아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하나 쓸 필요는 없고 범주화된 정보를 네모나 선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어떤 덩어리를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몇 가지를 그려본 뒤 디자인 툴에서 구현해 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 배리어프리 가이드라인

색상을 사용할 때도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에서 제시하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원칙에 따르면 색상 사용 시 선으로 개체를 구분하고, 강약이 명확한 배색을 적용하고, 특정 색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색상을 기호나 숫자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결합하고, 색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색상과 패턴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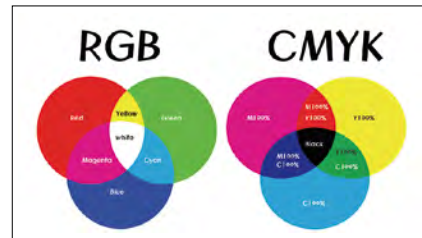
## 화면과 인쇄물의 색상 모드는 다르다

색상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화면에 적용되는 색상 모드는 RGB이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Red), 녹색(Green), 파랑(Blue) 세 종류의 광원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섞을수록 밝아진다. 인쇄에 적용되는 색상 모드는 CMYK라고 부른다. 사이언(Cyan, 파랑), 마젠타(Magenta, 핑크), 노랑(Yellow), 검정(black) 네 가지 잉크를 혼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잉크는 섞을수록 탁해진다. 화면에서는 형광이나 썩한 색감이 잘 표현되지만 인쇄물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쇄용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의도한 색상이 잘 표현되도록 색상 모드를 체크해야 한다.

## 서체를 세 가지 이상 쓰지 않는다

서체(폰트)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된다. 홍보물의 제목에 사용할 때 특히 그렇다. 교양있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낼 때는 명조체 계열을, 힘 있는 분위기를 주고 싶으면 고딕체를, 레트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도스 화면에서 보았던 픽셀 폰트를 쓸 수도 있다. 귀엽거나 무섭거나 등 다양한 감정표현을 위해서는 꾸밈 서체나 손글씨도 자주 사용된다. 제목 외의 요소에는 고딕 계열을 사용하면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하나의 홍보물에는 최대 3개 정도의 서체를 사용하면 적당하다. 너무 많은 서체가 한 면에 들어가면 매우 조잡한 결과물이 나온다. 한 가지 서체에 여러 굵기가 존재하는 가족(font family)을 잘 활용하면 하나의 서체로도 충분히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료 서체 아카이브 눈누(noonnu.cc)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개발되는 다양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미지: 애즈랜드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직접 해 보자

디자인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좋은 작품을 카피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좋은 표지를 선정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요소를 구현했는지 기법을 손으로 익혀보는 것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디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는 눈을 키워 두면 좋다. 핀터레스트에서 ‘poster’나 ‘book cover’ 등 원하는 결과물을 검색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터’ 등의 해시태그를 활용해 내 취향에 맞는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 캔바 등의 디자인 툴을 활용할 때에도 앞의 원칙을 적용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넘어선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캔바에서는 비영리 조적을 위한 프리미엄 플랜을 제공하고 있고 팀 작업도 가능하다. 요즘은 적극적인 협업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툴 피그마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아직 한국어 지원이 없어서 아쉽다), 어도비에서 새롭게 출시된 익스프레스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여기서 제시된 작은 원칙들을 떠올린다면 지금보다 더 대상에게 가 닿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디자인이 계속 산으로 가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말을 보태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자인 실무자의 감각을 믿고 맡겨 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액션

#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을 멈추자

글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평화를 잘  
알아서 병역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가 되고 나서 평화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책 『평화는 처음이라』,  
『병역거부의 질문들』을 썼다.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평화활동가로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촛불집회, 혹은 거리행진 시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접하는데 무얼 해야만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전쟁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일단 시작되고 나면 승리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주장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모조리 흡수해 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평화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의 평화운동은 모조리 실패하는 평화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미 시작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활동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지요. 하지만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나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평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이 시작되는 곳, 무기박람회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전투 장면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투는 물론 전쟁의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전투만이 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 전쟁이 시작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여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파병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쟁은 국회 또는 고위 정치인들이 법 절차에 따라 전쟁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국회나 정치권을 압박해 그들이 파병이나 선전포고에 반대하게 만든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또한 노동의 장소에서도 시작됩니다.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쓰는 무기들, 입고, 먹고, 자는데 필요한 생필품들은 하늘에서 똑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후방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만들고, 그리고 전방의 군인들에게 노동자들이 운송합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전쟁 무기나 전쟁 물자를 만들기를 거부하거나 운송하기를 거부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은 또한 무기박람회에서 시작됩니다. 무기박람회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체들과 무기 바이어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기 수출, 수입과 관련한 무수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록히드마틴, 레이스언, BAE 시스템즈 같은 세계적인 군수산업체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무기를 만드는 이스라엘 군수산업체 엘빗시스템즈, 한국의 대표적인 군수산업체 한화, 풍산, 현대로템 같은 업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자사의 제품을 전시합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처럼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한 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고 자국민을 군사력으로 탄압하는 나라, 그밖에 많은 나라의 무기 구매 담당자들이 군수산업체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무기를 살펴보고 수주 상담을 하고 무기 거래 계약까지 합니다. 무기박람회에서 팔려나간 무기가 분쟁지역에서 쓰이고, 전쟁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 우리가 무기박람회 저항하는 이유

전쟁이 시작되는 여러 곳들 가운데 저항의 장소로서 무기박람회를 택한 까닭은, 무기박람회가 현대 전쟁의 본질이 돈벌이를 위한 살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끊임없이 전쟁이나 군사 갈등, 안보불안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군수산업체이고, 군수산업체의 돈벌이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곳이 무기박람회입니다. 무기박람회가 늘어나고 성행할수록 무기 거래가 증가합니다. 무기거래가 증가할수록 전쟁도 더 많아집니다. CATO INSTITUTE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 수입이 늘어난 국가일수록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펴는 경향이 강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무기 수입이 늘어난다면 분쟁이 발발한 가능성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무기박람회는 전세계에 전쟁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군수산업체의 이익이 대폭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무기박람회가 대륙마다 전 세계에서 수백 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2023년 현재 4개의 무기박람회가 열립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 무기박람회인 서울 아텍스(항공우주 산업 및 방위산업 전시회), 지상군 무기 박람회인 DX KOREA(대한민국 방위산업전), 해양 무기 박람회인 메텍스(MADEX), 그리고

시위진압 장비를 비롯한 경찰무기 박람회인 치안산업 박람회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이 전쟁으로 돈을 버는 군수산업체들에 주목한 것은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뒤 활동가들이 무기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고,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이자 한국의 한화와 풍산이 세계의 주요 생산자였던 확산탄(Cluster Bomb, 커다란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안의 작은 폭탄이 공중에서 흩뿌려지며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을 타깃으로 삼아 무기감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박람회도 그즈음 시작됐습니다. 공군이 주최하는 서울 에어쇼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무기박람회 아텍스가 처음 열린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은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해 2017~2021년 전 세계 무기 시장 수출점유율 8위에 오르게 됩니다.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였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격하게 늘었으니,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풍만은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무기박람회의 규모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아텍스에서는 6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1 아텍스에서 맺어진 1억 2천 8백만 달러보다 약 40배가 넘는 선 수치입니다. 아텍스에서 팔려나간 60억 달러의 무기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예멘 내전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Seoul Adex

A  
Seoul ADEX 2021



## “여기에서 전쟁을 멈추자”, 아덱스 저항행동

평화활동가들이 아덱스 저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박람회 반대 액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무기박람회 아덱스에 대한 저항행동을, 2016년부터는 마찬가지로 짝수년에 격년으로 열리는 무기박람회 DX KOREA에 저항하는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덱스 저항행동, DX KOREA 저항행동을 합쳐서 ‘저항행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저항행동은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해왔습니다. 무기상인들과 바이어들이 파티를 하는 환영만찬장에서는 주로 기습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때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파티에 참석하는 VIP-무기상인들과 각국의 무기 획득 담당자들에게 맞췄습니다. 보통 무기박람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데 그 시작을 알리는 만찬인 만큼 저항행동 또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액션을 시작하는 자리로 삼고 전쟁장사꾼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의 돈벌이가 전쟁과 살인을 부추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무기박람회 기간 동안 평일에는 비즈니스 데이가 열립니다. 이때의 주 관람객은 물론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나 기자들도 있지만, 주로는 무기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일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군수산업체의 직원, 각국 국방부 등 무기획득 담당자, 방위산업과 매우 깊게 연결된 연구자나 저널리스트 등이죠. 무기 수주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무기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에 행사장에 가 보면 군수산업체마다 부스 한편에 차려진 미팅룸 안에서 활발히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행동은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반대 액션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액션은 “이 무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라는 문구와 화살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전시장의 무기들 앞에서 무기를 가리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물론 액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동한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당했죠. 이후에도 군수산업체의 전쟁과 살인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 전쟁무기에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내용 등으로 기습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회사 부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하다가, 2021년부터는 전시장에 놓인 탱크와 장갑차 같은 대형 무기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시위를 지속할 수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는 주말 퍼블릭 데이에서는 행사장에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 행사장에 엄청 많은 사람이 오는데요, 유아차를 끌고 오는 젊은 부부, 친구들끼리 놀러 온 청소년들, 나



전쟁없는세상 제공


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무기박람회에 구경을 옵니다. 무기박람회에 나들이 온 사람들에게, 여기 전시된 멋진 무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의 물건이라고, 실제로 여기서 팔려나간 무기들이 예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흥미롭게 유인물이나 전시물을 살피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나눠준 유인물을 갈기갈기 찢어 던지며 활동가들에게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남성들이고, 그들은 남성활동가들보다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욕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전쟁과 안보를 둘러싼 현상이 어떻게 성별화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박람회 행사장 안에서도 이런 성별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여성은 주로 몸매가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고 부스 앞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밖에도 저항행동은 다양한 액션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반대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기박람회 책임자들에게 항의 팩스를 보내는 액션도 하고, 때로는 시민 대상 강연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최근 아덱스에서는 부대행사인 아시아 디펜스마켓 브리핑 세미나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감시하는 액션을 기획했습니다.

##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

2023년 10월에 진행된 아텍스는, 우리들의 저항행동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고, 무기 거래 상담액과 실제 계약 체결 금액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서 행사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았던 2021년 아텍스 계약 체결액은 2억 달러가 넘지 않았는데, 이번 아텍스에서는 6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항행동의 고민도 깊어져 갑니다. 아텍스 저항행동을 소개한 언론 기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물론 저항행동의 힘도 커져가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기박람회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파른 성장세를 멈출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항행동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 무기박람회 주최 측이 저항행동의 액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한다는 것도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아텍스에서는 기습시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무기박람회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앞날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번 아텍스 저항행동에서는 ‘기후 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 기독교인 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플랫폼C’ 같은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한국 군수산업체, 무기 생산과 사용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우크라이나에 이어 가자지구로 퍼져가는 전쟁의 불길, 이런 안 좋은 현실들이 평화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을 무기박람회 반대 액션에 나서도록 등 떠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새롭고 창의적인 액션도 더 활발하게 기획하고 시도하고, 박람회에 저항하는 액션의 힘도 더 세질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인 무기박람회를 막는 액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액션

# 웅담 채취 산업의 종식을 위한 ‘곰 보금자리’ 만들기

글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웅담 채취 목적의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  
남은 사육곰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곰의 보금자리(생츄어리)를 만들기 위해 모인 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 곰이 아니라 ‘사육곰’?

사육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곰은 익숙한 야생동물이지만, 그 앞에 ‘사육’이라는 말이 붙어 ‘사육곰’이 되면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닌 이질적인 단어가 만들어 집니다. 사육곰이란 웅담(곰의 쓸개) 채취 목적으로 기르는 곰을 말합니다. 1980년대 한국 정부가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야생동물인 곰을 수입하여 사육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관한 규제를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해서 기르는 곰’, 즉 사육곰을 제외시켰습니다. 사육곰은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종(species)은 같지만,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되어 아종(subspecies)이 다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육곰은 열 살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도살해서 웅담을 채취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사회 전반적으로 보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윤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면서 웅담 수요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수요가 줄자 사육곰들은 쓸모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시장 가치가 없는 곰들은 허술한 시설에서 방치에 가까운 사육을 당하며 늙어 죽거나 웅담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9개 농장에 299마리의 사육곰이 살아 남아 있습니다.

## 우리는 왜 ‘생츄어리’를 꿈꾸는가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생츄어리(sanctuary)’는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단어입니다. 본래 안식처, 피난처의 의미인데요. 그중에서도 ‘야생동물 생츄어리’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죽을 때까지 돌보거나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자연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동물의 생태적 본능과 행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제한된 공간이지만 동물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한국처럼 웅담을 소비하거나 애완용으로 곰을 기르는 나라들(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은 대개 곰 생츄어리가 있습니다. 생츄어리에서는 구조한 곰들을 죽을 때까지 보호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동물보호 문화를 감안한다면, 아직도 곰을 잡아먹는 것이 합법이고 이들을 보호할 생츄어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생츄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생츄어리가 지어진다 해도, 살아 있는 300마리의 곰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츄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농장에 남게 될 180마리 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생츄어리를 짓는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름은 분명 생츄어리인데 자칫 동물원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 될 수 있기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때문입니다. 생츠퍼리는 자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동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설이 지어져도 시설 직원들이 동물을 동물원과 똑같이 대한다면, 그곳은 생츠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물원은 고대부터 권력의 과시를 위해 동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원의 생존을 위해 ‘보전, 교육, 연구’를 동물원의 기능으로 내세우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락 목적의 전시입니다. 설령 실질적으로 보전과 교육, 연구에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의 동의 없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보전과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 안에

서 특정 종이 기능하게 할 목적으로 인간이 의도한 번식과 동물의 이동을 강제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전을 구실로 동물원의 전시 기능을 연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츠퍼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동물의 복지 혹은 권리를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야생동물 생츠퍼리를 규정하는 국가는 아직 없지만, 국제생츠퍼리연맹과 같은 곳에서는 동물의 번식과 이동, 관람객과 접촉하는 방식의 관람 등이 이루어지는 곳은 생츠퍼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츠퍼리’는 공공의 영역보다 도리어 시민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곰 보금자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곰들이 우리에게 '고유한' 존재가 되기까지

“남아있는 곰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2021년 5월, 화천의 한 농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19년 전국 사육곰 농장 조사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곳이었습니다. 농장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곰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곰을 돌보면 좋겠지만, 그 당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재정 규모도 작고 상근 활동가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사육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동료 단체들에게 함께 곰을 구조하고 돌보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제안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렇게 2021년 6월 함께 열다섯 마리의 곰을 구조(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을 번듯한 땅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농장주와의 협업을 통해 무려 40년 동안 곰 농장이었던 곳을 고쳐가며 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 마리의 곰을 더 구조했고, 그 곰들이 남아 있던 농장 두 개는 더 이상 곰을 기르지 않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 늙은 곰들은 세상을 떠나 지금은 열세 마리의 곰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 시작한 곰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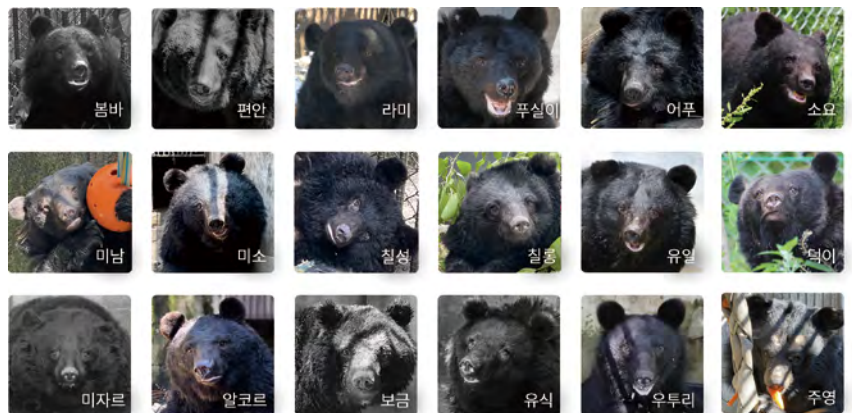
곰과 만날 일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검은 털을 가진 열 세 마리의 곰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곰과 만나다보니 이 모든 곰들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취향도 다르며 반응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곰들은 곰을 돌보는 우리마저 바꿔





가고 있습니다. 야생의 곰에게 도토리는 중요한 식량이라서, 곰이라면 응당 도토리를 좋아할 줄 알았고, 도토리를 챙겨 먹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이’는 도토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어쩔 수 없이 도토리를 대신하여 유일이가 먹을 만한 먹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투리’는 활동가들이 애써 만든 해먹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서 ‘왜 그러지?’ 싶었는데, 사실 우투리에게는 새로운 설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곰도 각자의 취향과 성향이 있었습니다. 돌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저 기다리며 관찰하는 태도였죠. 관계에서 비롯되는 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경험을 사회와 공유하며 사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화천 곰 보금자리에서 머무는 18마리의 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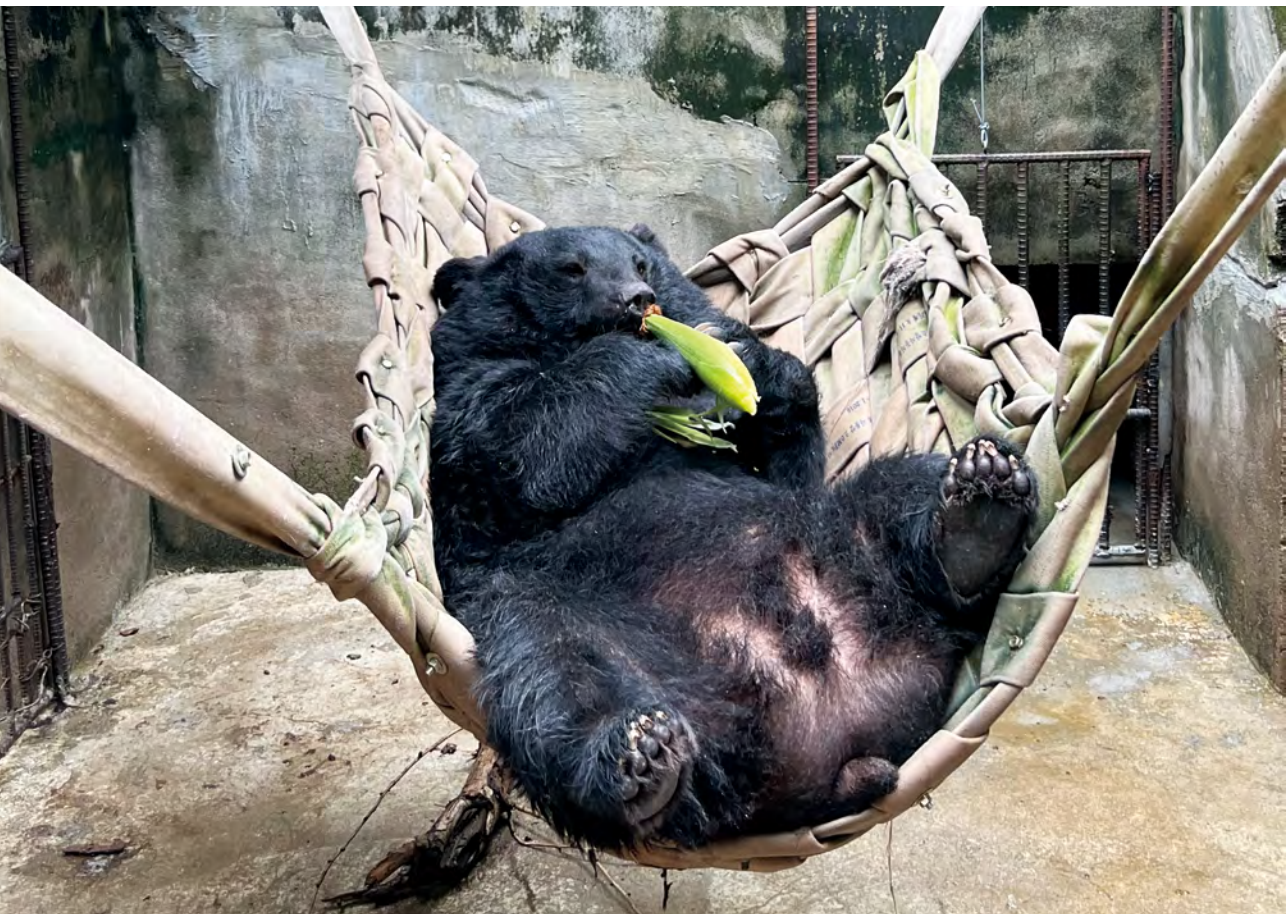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2018년 말,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한국에 곰 생츠퍼리를 만들고, 곰 사육 산업을 끝내자는 다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츠퍼리는 여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곰이라는 동물에 사회는 무감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작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곰 생츠퍼리를 짓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도 필요하고, 곰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시설물도 조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다보니, 이만한 규모의 후원금을 모을 가능성도 무척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사육곰 열여덟 마리를 구조했고, 소박하게나마 곰들이 나가서 흙을 밟고 놀 수 있는 ‘곰 숲’도 만들었습니다. 돌봄이 시작된 후 첫 1년 동안은 비상근활동가들이 매주 곰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곰과 붙어 지내며 곰의 일상을 돌보는 상근돌봄활동가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의 심하며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루지 못한 벽이 너무 높게 느껴져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 온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장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변화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걸어 가야 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매일 동료와 곰들과 부대끼다 보면 언젠가 ‘생츠퍼리’도 만들 수 있겠죠. 



액션

# 남성-이성애 중심의 장례 문화 바꾸기

때로 행동은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사회문제에 대항하는 여러 캠페인도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개개인이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혼상제'다. 이러한 예식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뿌리내린 데다, 부지불식간 일어나 사전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중에서도 '장례식'은 특히 그렇다.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마음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빠르게 결정해야 할 것은 산더미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이들이 여기 있다. 이들의 용기가 이후에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기를.



# 만딸의 만상제 되기

글 김예선

부산민주공원 홍보 담당.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상임위원. 부산대학교 여성학전공  
박사과정.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지만 가만히  
있기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특별히 못하는  
부산의 하고재비. 장래희망은 상쇠.

2003년 봄, 목련이 뚝뚝 떨어질 즈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을 치르고 발인을 할 때 장례식장 직원은 종손이 앞으로 나오라 했고 아빠는 나를 내보냈다. 직원은 왜 딸이 나오냐며 아들이 없는지, 아들이 없다면 남자인 자손이 나오라고 했다. 아빠는 이 아이가 우리 집 종손인데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하냐 따졌고 말싸움으로 번졌다. 상중에 무탈하길 바라는 집안 어른들의 만류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종손으로서 할머니의 발인에 앞서지 못했다. 태어나보니 종갓집 종손의 만이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종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종종 집안의 문젯거리였다. 아빠는 내게 다음부터는 아빠랑 똑같이 하자며 자신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달랬다.

20년이 지난 뜨거운 여름날에 나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아빠의 만딸로서 아빠 장례의 만상제가 되었다. 장례를 준비하며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제단에 차릴 꽃과 제상, 조문객에게 낼 음식 등등을 골랐다. 상복은 남자, 여자 인원수에 맞추어 알아서 준다고 했다. 나는 엄마와 동생에게 치마저고리 말고 정장을 입고 싶다 얘기했다. 엄마와 동생은 아빠가 좋아할 거라며 내 뜻대로 하라고 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나와 나의 애인인 아빠의 사위가 입을 정장 두 벌, 엄마와 동생이 입을 치마저고리 두 벌을 요청하자 놀란 표정으로 내게 정말 정장을 입을 것인지 몇 번이나 물었다.



김예선 제공

폼이 큰 남성용 정장을 입고 두 줄 완장을 왼팔에 차고 아빠의 영정 사진과 마주했다. 나와 애인이 서로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하객들 앞에서 선언한 날, 정장이라고는 입지 않는 아빠가 사위가 맞춰준 새 양복을 입은 날 찍은 사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사진이었다. 생이란 원래 그러하다 한들 너무 갑작스러운 아빠와의 이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만상제로서 해야 하는 일 중 여성으로서 혹은 딸로서 할 수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다만 내가 왜 정장을 입고 있는지, 만상제를 맡고 있는지 등등 아빠 장례의 만상제가 되는 것은 매 순간 당연하지 않은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말할 것을 요구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만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죽어서 상중에 있는 맏아들을 뜻한다. 상주 역시 주가 되는 상제로 장자가 된다고 한다. 맏아들이 아니면 만상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애초에 아들이 아니면 상주도 될 수가 없다. 장례식장의 한 직원은 나를 보고 “상주님 완장을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그런지 되물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위 분께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큰따님께서서는 두 줄 완장을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으로 친절한 설명에 “아빠랑 약속한 거라서요.”라고 답하며 돌아섰다.

사위가 된 지 석달도 안 된 나의 애인이 우리 집 가장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아빠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나와 동생이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의 장례식에서까지 서러워해야 하는지 슬픔에 억울함이 섞인 눈물을 몰래 훔쳤다. 아빠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장을 입고 완장을 차고 만상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내 지나친 고집이었나 하는 일말의 마음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사라졌다. 나는 만상제라는 장례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어 사무실과 빈소를 오가며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서명을 했다. 어릴 적 할머니 발인 때는 여자아이라서 앞에 서지 못했지만 아빠의 발인 때는 동생이 혼백을, 내가 영정 사진을 들었다.

그렇게 나는 맏딸로서 만상제-되기를 행하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 때는 영정을 들고, 화장 후에는 유골함을 들고 아빠와 함께 걷는 마지막 길 맨 앞에 섰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존재론의 핵심으로 ‘존재(being)’나 ‘소유(having)’가 아니라 ‘되기(becoming)’를 말했다. 되기는 하나의 정해진 점이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자 중간 지대를 의미한다. 나의 만상제-되기 역시 여성이 만상제가 되어가는 지속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의 과정이자 그 중간 지대에 있다. 그 속에서 나는 계속 아빠와 헤어지는 중일 것이다.



# 동성 파트너를 상주로 이름 올리기

글 한채운

1997년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2001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편견없는 기부 문화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중이다.

동성 커플들에겐 고민이 있다. 상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커밍아웃을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가족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장례식장에 함께 있기도 힘든 경우부터 상복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나 역시 16년 동안 함께 지낸 동성 파트너와 종종 우리가 만약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부모님 상은 실감할 수 없는 일이기에 딱히 구체적인 합의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러 나는 혼자 바로 출발했다. 어머니를 보러 갔을 땐 이미 안치실로 옮겨진 후였고, 도착하자마자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다. 관은 어떤 걸로 할지, 제단에 꽃을 어느 정도로 놓을지 등 장례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결정을 다 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직원이 와서 종이 한 장 내밀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할 화면에 띄울 상주들의 명단을 적는 종이였다. 배우자/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로 칸이 나뉘어 있었다. 언니와 오빠가 자기 가족들이 이름을 먼저 쓰고 마지막으로 내 차례였다. 형부와 새언니의 이름이 들어갔듯이 나도 내 파트너의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 써야 할까. 며느리 칸에 넣을 수도, 사위 칸에 넣을 수는 없었다. 며느리 칸에 넣으면 오빠가 하나인데 자칫하면 오빠에게 아내가 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사위 칸에 넣으면 사람들이 언니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줄 알 테니까. 모든 친척에게 내가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지는 것은 둘째치고 너무 많은 오해가 생겨날 판이었다.

망설이는 동안에 언니와 오빠는 차를 가지러 먼저 나갔다. 나 혼자 종이를 붙잡고 있었다. 동성 커플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참에 인권운동 하는 셈 치고 과감히 넣을 것인지,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장례식장에서 소란이 생기면 안 되니 참아야 하는 것인지 마음이 어지러웠다. 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름 옆에 괄호 넣어도 되나요?” 직원은 괜찮다고 했다. 앗. 이거다. 나는 내 본명을 쓰고 그 옆에 괄호는 열어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로 지난 26년



간 써온 나의 이름과 파트너의 이름을 나란히 썼다. 그리고 장례식장 사무실에 제출했다. 쓰기로 결심한 이상, 형제들에게 이름을 써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도 쓴 언니, 오빠이니 내 파트너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니까.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난관이 더 있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례식장의 다른 직원이 와서 괄호 안에 들어간 이름을 빼겠다고 괄호가 들어가서 안 이쁘다, 행렬이 안 맞게 된다, 대체 이 사람이 가족이 맞냐,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냐, 꼭 넣어야 하나 등의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이때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단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지금 그대로 넣어주세요.”라고. 그러자, 직원도 하는 수 없이 물러갔다.

이렇게 해서 상주 명단에 동성 파트너의 이름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조문객으로 온 사람 중 성소수자들은 바로 알아차렸다. 상주 명단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이도 있었고, 이런 전례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고서야 괄호에 넣어서라도 이름을 넣길 잘했구나 싶었다. 또한 파트너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고를 전하면서 자신도 상주에 이름을 올렸다고 짧막하게 덧붙였다. 그러자 파트너의 부모님과 언니와 오빠, 조카까지 모두 조의금을 보냈다. 나는 형제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귀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좋을 거 같아 장례를 마친 다음에 설명했다. 또 예상과는 달리 친척들이 상주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의외로 특별한 문제 제기나 소란은 없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주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이 귀어들에게 특별한 일이다. 새삼스럽게도.

# ‘여자가 감히’ 주도하는 장례식

글 마민지

논픽션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쓴다. 책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를 만들었고, 성폭력피해 생존자와 연대인의 미투 운동 이후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착지연습>을 만들고 있다.

늦둥이 외동으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장녀와 장남의 지위를 절반씩 부여받으며 자랐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보수적이었지만 귀하게 얻은 딸이 아들 못지않은 대접을 받기를 바랐다.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을 철저히 지키는 대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나는 남성들의 반상에 끼어 앉아있을 수 있었고, 제사상에 절을 올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엄마는 외갓집 족보에 성이 다른 내 이름을 올렸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당연지사이나 나를 보면서는 ‘아들보다 잘 키운 딸 하나’가 낫고 ‘여자가 감히’ 못 하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부모님의 나이는 내 주변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열 살 정도 더 많았다. 이 사실은 원초적인 공포심으로 연결됐다. 평균 수명으로 생각했을 때 또래 친구들 부모님보다 나의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원가족의 죽음을 생각하면 나는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먼저 떠올랐다. 외할아버지를 제외한 조부모님 세 분은 생전에 뵈 적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상주는 엄마의 이복 남동생이었다. 흰 저고리와 치마로 된 상복을 입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섰다.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엄마가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리고 5개월의 투병 끝에 2022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죽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불경하다고 여겼지만, 나는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다. 엄마가 어떤 죽음을 원했는지 평소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막막했다. 다행히 엄마는 이모와 장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엄마는 수목장보다 화장이 좋다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몇 차례 임종 면회가 반복되는 사이 나는 별이 잘 드는 고요한 추모공원 봉안당에 엄마의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엄마의 사망선고를 한 이후로 나는 유가족 대표가 되었다. 상주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손님들에게 널 국 종류도 정해야 했다. 목록에는 상복 개수도 있었다. 현대식 상복은 남성과 여







한국의 순국선열과  
국민영웅상과  
인원

삼가  
故人의  
冥福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기용


삼가  
故人의  
冥福

삼가  
故人의  
冥福



성 상복으로 나뉘었는데 남성 상복은 검정색양복에 셔츠와 넥타이가 한 세트였고 여성 상복은 개량한복으로 치마저고리가 한 세트였다. 장례지도사는 몇 벌이 필요한지 포기하라고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빠와 내가 입을 남성 상복만 체크했다. 가수 이랑이 가족 장례식에서 남성 상복을 입기 위해 장례지도사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글을 본 터라 혹시 핀잔을 듣지 않을까 잠시 긴장했지만, 얼마 전에 갔던 지인의 모친상에서도 여성인 지인이 정장을 입을 모습을 본 터였다.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왕 여성 상주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장례식이니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기로 했다. 발인 때 운구도 여자가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장례지도사가 난처한 얼굴이 되었다. 관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여성이 들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통상 4~6명의 남성이 관을 든다고 했다. 관을 들 수 있는 매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여성, 남성 합쳐서 총 여덟 명이 관을 들게 해달라고 했다. 장례지도사는 남자분이 모자라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인원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지만 엄마라면 여자도 함께 관을 드는 걸 좋아하실 거라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 장례지도사는 더 이상 완장을 찬 나에게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엄마가 원하는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감히’ 못 하는 일이 없는 장례식이 되기를 바랐다. 엄마의 강력한 주장으로 족보에 올라갔듯이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엄마의 사진과 이름 옆에는 유일한 상주인 내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 승화원(화장터)에서 여자들이 섞여 운구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없는 희한하고 생소한 풍경이었다. 괜히 뿌듯했다.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추모공원까지 걸어가는 길은 투명하고 화창했다.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내 엉덩이를 두드리며 ‘역시 우리 딸’이라고 활짝 웃었을 것이 분명했다. 

**공익활동,  
어디에서  
할까?**

# 공익활동이 일어나는 도시의 장면들

글 박승배

서울 천만 동거인 중 한 명이다. 사람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서로 무심한 걸 걱정한다.  
도시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과 장소를 만들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게 됐다.

도시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 모든 개별 시민의 상황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특정한 기준을 통한 계통적 해석은 가능하다. 가령 ‘이동’을 중심으로 볼 때 시민들의 행위는 통근/통학, 쇼핑, 여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만 이동한다. 특정한 시간에, 일정한 범위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은 일면 단순해보이지만, 생각보다 다채로운 요소들을 포괄한다. 이용행태와 대상, 정책과 제도, 물리적 환경 등 모든 것이 이동 안에 수렴된다. 이 모든 것이 취합된 ‘이동’은 때로 구조화된 차별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삶을 결정할 미래 비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동을 기준으로 나의 거주 도시를 정하는 일은 “대중교통으로 통근/통학하고 싶다.” “쇼핑은 동네에서 하면 어떨까” “공공 여가 장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를 선택하는 건, 내 생활의 취향과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살고 싶은 도시’와 ‘사는 도시’가 늘 일치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하는 일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는 행정에 의해 관료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하여 다수 시민의 공리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시민의 일상생활로까지 촘촘히 기여하고 기업의 영리활동이 사회의 경제적 여건으로 잘 분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적 견제와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 당연한 시민참여는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시민의 사회참여를 ‘매슬로의 욕구 단계이론’으로 설명하는 일이 많았다. 인간의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가 있으며, 시민의 사회참여는 가장 높은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이후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투사되어 이 이론이 더 선호됐다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어딘가 사회참여의 일면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강조하는 인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민의 사회참여에 관련해서는 매슬로의 이론보다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1995년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지진이 일어나 무려 6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지진이었지만, 이 재난 상황에서 3만5천 명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그중 8할을 차지하는 2만7천 명은 경찰이나 구조대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서 구출되었다.

똑같이 지진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민을 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민 정보 네트워크의 힘이었다. 이후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협업해 온 기존의 경험이 십분 힘을 발휘했다. 함께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했던 경험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과의 교섭, 의사결정, 자원봉사와의 협력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사건에서 시민의 사회참여는 재난복구의 공동목표 아래 자율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을 할애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특히 재난 이후 마을을 복구하는 일은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만큼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복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해 주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시민단체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정책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가능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잘 포착하여 이후 효고현 이외의 지역에도 지역사회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사회참여는 ‘도시’에 영향을 받는다

시민의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은 도시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떻게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공간들을 배치하는지 등에 따라 도시는 시민의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 도시를 ‘잘’ 계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원사업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를 흔히 ‘도시의 공공성’이라 한다.

이 영역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언론인, 도시계획가, 사회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와 덴마크 건축가 얀 겔의 철학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1961)에서 급격한 도시개발과 성장, 그로 인한 자동차와 도로의 증가,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로 메워지는 도시의 몰인간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도시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은 블록마다 술집, 식당, 종교시설, 소핑몰, 공원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장소들이 다채롭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이 서로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공공간으로서 ‘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누구나 길을 자유롭게 걷고 이동하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공간의 분화’다. 주택과 일, 여가와 같은 생활기능이 여러 공간으로 쪼개어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이동이 많아지며 익명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시민의 사회참여를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런가하면 얀 겔은 다큐멘터리 <얀 겔의 위대한 실험>(2012)에서 인간친화적인 도시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만나는 골목 같은 장소가 사라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도시 계획에 실험적으로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면 시민들의 활동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그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이런 모습이다.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관리가 잘 된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 박물관, 공원을 만날 수 있는 것.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도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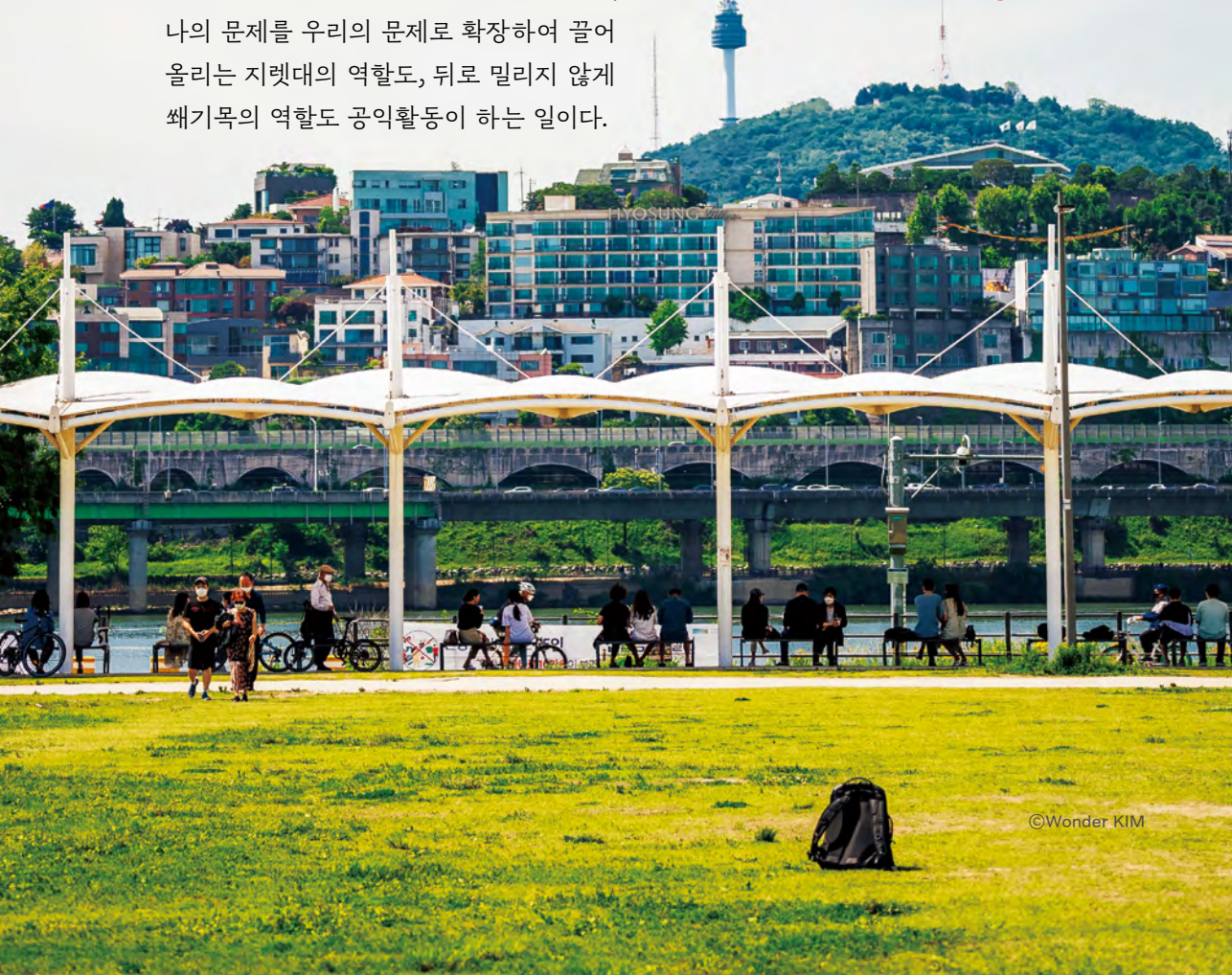
## 거대한 도시 웅망이에 공익활동 풍당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 도시의 여건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다. 당장 서울만 더라도 제인 제이콥스나 얀 겔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도시의 모습과는 꽤 다르다. 게다가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그 도시의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별 주요 민원이나 시민들의 관심 현상을 키워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일 많은 시민이 요청한 것은 바로 ‘불법주정차’이다.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이 뒤를 따랐다. 이윤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시한다.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도 공익활동은 풀잎의 이슬처럼 맺혔다 증발하기를 반복한다. 이용 형태와 대상, 정책과 제도, 물리적 환경을 살펴 단순하더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구조화된 차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 비전의 형태를 덧그린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넣는 민원인의 의도에는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내 차만을 주차해야 한다는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우려의 마음도 있다. 아파트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민원 이면에는 경제적 동기에서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 갈등의 지혜로운 해소를 위해 공동체 주거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다. 이처럼 다수 시민이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확장하여 끌어 올리는 지렛대의 역할도, 뒤로 밀리지 않게 켜기목의 역할도 공익활동이 하는 일이다.

공익활동은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전보다 공익활동의 양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대중적으로 기후위기와 공동체 와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도리어 사회 참여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고여 있는 시민사회에 다채로운 색상의 잉크가 낙점하듯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관찰되는 것이다.

도시에서 공익활동은 그 활동 자체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광장이며, 도서관이고, 골목길이다. 앞으로도 도시의 지역 사회와 공공장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목격되기를 바란다. 





서울의 공익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공익활동이 일어나는 서울시의 장면들을**  
서울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 함수씨가 그려냈다.  
©hamsoosee







RECYCLE

COFFE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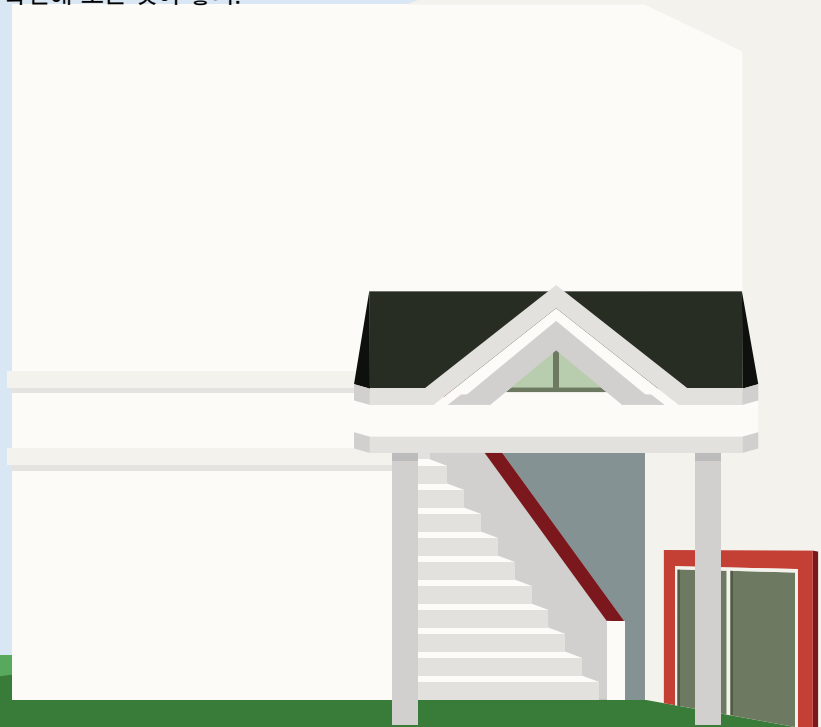
SEOUL  
MY  
SOUL

찾아보기

# 서울 곳곳의 모임 공간들

활동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모임을 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작은 모임이야 동네에 커뮤니티 친화적인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좀더 공식적인 모임이 필요한 경우 공간 리스트를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된다.

이럴 때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보자.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이나 주민공유공간, 청년공간 내 이용 가능한 공간이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매우 많이 있다. 또한 다목적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공간의 종류도 다양해 인원이나 목적에 맞게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선착순 예약 가능한 곳도 있고, 심사 후 이용 가능한 공간도 많아 일정이 잡히기 전 예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강남규 전 문화사회연구소 간사가 구축한 “서울 곳곳의 모임 공간들 리스트”도 있다(2023년 10월 조경숙 활동가가 업데이트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추가를 원하는 공간은 댓글을 남길 수 있고, 메일 주소를 남기면 편집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름	권역	위치	형태	정원 (명)	대관료 (시간당, 원)	시설	비고	장애인 접근성
공실골실	종로구	혜화역	카페	15	20,000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19시까지만	
			다목적홀	136	별도문의	www.knowhow.or.kr/center/space_info.php	O	
노무현시민센터	종로구	안국역	세미나실	47	77,000			O
			세미나실	24	33,000			O
			세미나실	18	33,000			O
담양리교회	마포구	상수역	다목적실	20	비용 협의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평일만 가능	X
			대방동	20	10,000	화이트보드	대관 문의: 02-820-2748	
대방동자치회관	동작구	공유부역	공유부역	10				
				50	60,000			
터비스터디	종로구	종각역	세미나실	30	4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최소 이용시간 2시간	
				15	15,000			
			회의실	8	1,300	화이트보드	최소 이용시간 2시간, 주말 1,500/h	
두드림	마포구	신촌역	세미나실	30	1,500/1인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6	1,300	음향장치	24시간 이용가능	
디얼브라운	마포구	합정역	카페	35	30,000			
				60	500,000			
로컬스티치 소공	중구	시창역	다목적홀	150	무료			
			역삼역	40	160,000			
상연재 서울역점	중구	서울역	강의실	100	350,000			
			세미나실	24	120,000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세미나실	14	60,000			
서교예술실센터	마포구	홍대입구	세미나실	17	70,000	프로젝터	최소 이용시간 2시간	
				20	10,000/4h		15-19시	
서울기록원	은평구	불광역	다목적홀	80	40,000/2h	프로젝터, 음향장치	이후 시간당 2만 원 추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12-50	23,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https://www.scas.kr/reserve/rent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종로구	대학로	강연장	100	37,500/2h	대형 디스플레이, 마이크, 강의대 등		
			미디어실	8	12,500/2h	비디오카메라, 마이크, 조명, 배경스크린, 모니터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	
서울청년센터 도봉오랑	도봉구	창동역	세미나실	6	무료		심사 후 결정	
			세미나실	15	무료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은평구	불광역	강연장	30	10,000	프로젝터, 무선마이크, 대형스크린	이용객의 50% 이상이 청년 (만19~39세) 이어야 함, 오랑멤버십 가입	

스페이스노아	중구	시청역	다목적홀	80	11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10	22,000				
				20	33,000				
시간공방	마포구	신촌역	세미나실	10	1,800/인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22시까지만		
				10	279,000				
어반 크리에이티브스 유닛	마포구	이대역	지하 라운지	100	500,000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아외공간, 음료값 별도		
				25	무로				
에피소드 신촌 ep 라운지	서대문구	신촌역	다목적홀	110	50,000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청변만 이용 가능(만 19~39세), 2시간 무료 주차		
				10	5,000				
예술가의집	종로구	대학로	다목적실	30	5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네고 가능!		
				40	2,000/인				
웅산청년비지움	마포구	대흥역	카페	25	15,000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일요일 휴무		
				20	1,800/인				
우리통네나루그늘	강서구	신방화역	다목적실	30	1,800/인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공간데관 문의: 02-2011-5715		
				70	4,500/인				
인디고스퀘어	종로구	안국역	강연장	100	178,000/2h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무선마이크	추가 시간당 63,000원 / 냉난방비 별도		
				30	1,800/인				
전태일기념관	종로구	삼정동	세미나실	10	24,000/2h	프로젝터, 스크린	추가 시간당 8,000원 / 냉난방비 별도		
				30	68,000/2h				
정독도서관	종로구	삼정동	세미나실	45	115,000/2h	프로젝터, 스크린, 무선마이크	추가 시간당 47,000원 / 냉난방비 별도		
				60	320,000/3h				
채움	마포구	이대역	세미나실	10	50,000/회	TV(노트북 연결 가능)	주방 사용 가능, 주차 불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X
				70	4,500/인				
책다방 위숲	마포구	신촌역	카페	20	30,000	대형TV, 무선마이크,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주중 기준, 주말에는 40,000원/h 6시간 파티를 대여 가능(세벽까지) 20만원		
				40	200,000 /패키지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마포구	홍대입구	세미나실	12	2,000/인	프로젝터, 추사시설	데이 패키지(11:00~16:00) 20만 원 나이트 패키지 (18:00~24:00) 30만 원		
				70	1,000,000 (전일)				
청어람랩	마포구	상수역	세미나실	20	60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기본 인원 6명		
				50	200,000				
캣랩	마포구	신촌역	세미나실	120	60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9:00~18:00 기준, 그 외 시간은 900,000/h		
				40	200,000				
크레오 스페이스	용산구	한남역	다목적실	20	3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9:00~18:00 기준, 그 외 시간은 300,000/h		
				30	40,000				
팁플레이스	마포구	홍대입구	카페	40	6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120	600,000				
팁스타운 체인지업 그라운드	강남구	역삼역	다목적홀	100	60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30	40,000				
페이지명동	중구	명동역	다목적홀	40	6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120	600,000				
피앤티스퀘어	종로구	종로3가	강연장	100	60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30	40,000				
헤이그라운드	성동구	복심역	다목적홀	40	6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120	600,000				
KT&G 상상플래닛	성동구	상수역	다목적홀	100	600,000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30	40,000				

# 마을에서 인생의 틀을 깨다

## 물푸레 재즈 싱잉 유니버스

글 배현명

책 읽어주고 글 쓰는 초등 교사, 어린이 문화 기획자, 유네스코 아태교육 소속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스위치> 대표. 교실과 지역 동네 책방에서 어린이들과 읽고 쓰는 모의 작당을 이어나기며 배움이 학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공동체의 힘을 믿으며, 바라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한다.

일요일 저녁. 압구정역이 붉는다. 삼삼 오오 몰려든 젊은이들. 그 경쾌한 무리 속에 유독 순영의 표정이 비장하다. 3번 출구를 빠져나온 그녀는 익숙한 듯 재즈 클럽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온통 가방에 든 악보에 쏠려 있다. 그곳엔 오늘 밤 부를 노래가 적혀 있다. 도전과 떨림이 청춘의 일이라면 순영은 이 순간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청춘이다. 재즈가 좋아 일요일 밤 클럽을 찾은 관객들 앞에서, 내로라 하는 재즈 세션들과 호흡을 맞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심장이 두근댄다. 이럴 땐 필요한 건 화끈하고도 경쾌한 자기 암시다. ‘그래, 더 쪽팔릴 것도 없지 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풍성한 회색 머리칼의 솟곳과 빈틈없이 어울린다. 60대를 훌쩍 넘었지만, 그녀에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고수해 온 사람의 맵시, 흐트러짐 없는 일상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반듯한 몸가짐이 있다. 안정된 중년기를 누릴 것만 같은 그녀가 고난의 역사를 자청하며 매주

재즈 클럽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순영은 그야말로 재즈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악보를 모범적으로 읽어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대신 즉흥이나 변주로 남의 눈에 띄는 일은 정중히 사양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직업도 초등교사였다. 발령을 받고, 결혼을 하고, 아내이자 엄마로 사는 순탄한 길인 줄 알았지만 홀시어머니와 도련님까지 한 지붕 아래 모시고 살아야 하는 며느리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마음이 부치고, 자주 체력이 달렸다. 결국 그녀는 교직 6년 차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교직을 내려놓는 일은 자신이 일궈낸 모범적인 삶의 궤적을 뚝 떼 내어 반납하는 일이자, 온전히 순영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교실을 버리고 그림자의 삶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포기한 교직을 생각하면 종종 억울한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왔지만 차차 원망이나 후회의 감정도 아물어갔다. 견뎌낸 세월



끝에는 잘 자라준 두 딸과 그녀의 수고를 고마워하는 남편이 곁에 있었다. 순영은 어떻게든 단단히 가정을 일궈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오롯이 자신을 위한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졌다.

“남편이 은퇴하고,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어. 두 딸도 출가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느라 못 키워본 화초를 길러보고 싶어서 식물 기르기에 관한 마을 강좌를 찾았지. 수업 첫날, 누가 지각을 해서 헬레벌떡 내 옆자리에 앉더라고. 기운이 범상치 않은 거야. 괴물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친구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력이 상당했어. 자기가 단장으로 있는 마을 합창단에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합창을 시작했지.”

순영의 삶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자리잡은 마을은 합창, 뜨개, 요가, 영문학 독해, 꽃꽂이 수업과 같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배우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동네에 건강한 공동체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괴물이 매력적인 이웃이었듯, 그녀 자신도 합창단에서 충분히 호감을 주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노래를 빼어나게 잘 부르는 것도 아닌” 그녀가 합창 단원이 된 지 1년 만에 회장을 맡아 살림을 살게 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순영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곧 성실과 열심을 의미했다. 그녀는 모범적인 천성을 발휘

해 4년간 물푸레 합창의 단원으로 무대에 섰다. 무음의 단정했던 순영의 일상이 리듬과 선율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합창단을 하면서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합창은 함께 부르는 일이잖아. 그냥 나도 악보를 읽고, 화음을 넣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했지. 그런데 어느 날 합창단에 다니는 연주가 그러더라고. 마을 카페에서 재즈 싱잉을 배우는데, 틀을 깨는 뭔가가 있다고.”

‘틀을 깨는 뭔가가 있다’란 말이 순영의 가슴을 흔들었다. 작은 조약돌이 풍당 던져진 곳에 동심원이 요동쳤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틀을 쌓고 애지중지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틀이 깨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연 궁금해졌다. 재즈 싱잉이 무엇인지 따져볼 생각도 없이 그 길로 ‘물푸레 재즈 싱잉 수업’을 신청했다.

“수업 첫 날에 내가 음치란 걸 알게 됐어. 합창단에서는 그러저럭 악보도 잘 읽고 화음도 잘 내는 알토 보컬이었거든. 근데 재즈 수업에선 있는지도 몰랐던 음을 내보라 하더라고. 그 음이 도저히 불러 지지가 않는 거야.”

재즈 싱잉이 틀을 깬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첫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부를 수 없는 음정과 리듬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머리를 멍하게 만든 건 선생인 말로의 존재

였다. 말로는 우리 나라에서 3대 보컬로 손꼽히는 유명 재즈 싱어이자, 한국 재즈 역사에서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음악가였다. 재즈 뮤지션 말로가 구축한 음악의 세계는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벽 너머에 있었다. 하지만, 인간 말로는 스스로 그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재즈 싱잉 유니버스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고 있던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물푸레 재즈 싱잉 수업’도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스승 말로는 그야말로 틀을 깨는 삶의 본보기였다.

“아마 말로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릴 거야. 근데 나는 마음속에서 그이를 인생 선배로 깎듯하게 모셔.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

위대한 영혼은 전염성이 강하다. 순영의 인생은 서서히 스승 말로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 어딘가로 고개를 틀고 있었다. 그 여정은 익숙한 길 위에 단순히 재즈 싱잉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의 풍경을 통째로 바꾸는 혁명에 가까웠다. 자주 쓰는 말도 바뀌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해?”라고 저항하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며 진보했다. 재즈는 결코 주어진 악보대로 불리지 않았다. 순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그저 스스로 써 내려간 악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가 오랜 세월 믿고 따르던 관념들이 저돌적인 재즈 정신과 정면충돌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과 짜릿한 해방감을 동

시에 느꼈다. 순영은 이제 홀로 우뚝 무대에 설 용기를 내고 있었다. ‘절대 남 앞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평생의 철칙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디바 야누스 무대에 섰던 날이 생생히 기억나. <Wave>란 보사노바 곡을 불렀는데, 너무 긴장해서 피아노, 베이스, 드럼 세션의 연주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박자를 절고, 가사를 더듬거리며 어찌어찌 끝은 냈지.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부끄러워서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야. 꼬박 날을 샀어.”

첫 보컬 잼 데이 무대 후 잔뜩 주눅이 들었다. 모범생답게 열심히 재즈 싱잉 수업을 들었고 같은 곡을 수십 번을 넘게 연습했는데, 겨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적잖은 나이에 남들 앞에서 뭐 하는 건지 무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고, 출중한 프로 세션들이 아마추어인 자신을 위해 재능을 낭비했다는 미안함마저 들었다. 왜 이 험난한 도전이 계속돼야 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찾고 싶었다.


“보컬이 아닌 재즈 뮤지션들이 디바 야누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 악기가 아닌 마이크를 잡으니 그들도 똑같은 아마추어더라고. 떨기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저분들에게도 재즈를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일이구나 싶어 용기가 났어. 있잖아, 난 새로운 재즈 곡을 배우고, 그 한 곡을 소중히 불러내는 과정에 만족하기로 했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내 삶의 틀을 깨는 일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재즈 클럽을 찾던 순영은 이제 매주 보컬 잼 데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부터 아주 서서히 빈도를 늘여서일까, 더는 남편도 일요일 밤마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하는 60대 아내를 낯설게 보지 않는다. 이제, “일요일 밤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특유의 성실한 천성으로 쟁취해낸, 진정한 일요 해방인 셈이다.

그에게 재즈 싱잉은 이전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일이자, 여전히 부르고 있는 자신으로 존재하는 일이다. 커튼 뒤에서, 혹은 관객석에서 갈채를 보내던 과거를 뿌리치고, 과감히 스스로 무대 위로 끌어 올려 음악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일. 그녀는 이 무모한 도전 때문에 끊임없이 무안을 당하고, 부끄러워 밤을 새우고, 더 잘하고 싶다고 욕심을 낸다. 어쩌면 순영은 그림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힘차게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무대 위 그녀는 젊음과 생기로 빛난다.

### “My funny Valentine...”

순영이 떨리는 호흡으로 첫 소절을 내놓는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선명하던 시야가 아마득해진다. 저만치 멀어진 객석에서 엄마를 지켜보는 딸의 실루엣이 보인다. 순영의 딸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멘다. 지금껏 손바닥만큼 흰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엄마라는 세계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중이니까. 모든 위대한 영혼은 전염성이 크니까. 



탐방

# 서울 너머의 공간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뀐다는 속담이 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변화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해석은 건너내고 글자 그대로만 읽어보면 어떨까? 서울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그곳만의 고민을 담아 활동하는 시민들의 고유한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서울 너머의 공간들>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잡은 활동의 터전을 소개한다. 이 공간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사진: 군산 소통협력센터에 워크숍 갔다가 구조해서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임보 중인 강아지 군산이



남원

##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전라북도 남원시 천왕봉로 725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위케이션 #지리산포럼 #변화의베이스캠프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마을카페로 시작한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품에 안긴 남원시 산내면을 기반으로 전국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크고 작은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권(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산청·하동·함양)의 사회적 활동과 활동가를 지원하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꾸리고 있기도 하다.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컨퍼런스홀과 공유오피스로 구성된다. 특히 ‘들썩’의 컨퍼런스홀은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2층에서도 무대와 플로어를 볼 수 있도록 트여 있는 형태가 개방감을 준다. 공유주방, 잔디밭 등 다양한 공간과 캠핑의자 등의 장비를 활용해 20인 이하의 행사는 아늑하게, 100명 규모의 행사는 집중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국내 각지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이는 연례행사 ‘지리산포럼’도 이곳을 기점 삼아 산내면 곳곳에서 열린다. 공유오피스는 일일 이용 신청을 통해 개인이 단기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스태프로부터 산내면 가까운 식당이나 숙소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 지리산이음지기의 한 마디

“들썩에서는 천왕봉이 바로 보이고, 차로 10분만 가면 뱀사골 계곡에 도착할 수 있어요. 시원한 계곡 물에 발 담그고 책을 읽다가, 배고플 즈음 슬슬 내려와 밥상 빼곡한 나물반찬에 묵은지 지짐까지 곁들여 산채 정식 한 입! 궁극의 ‘계곡명’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

## 커먼즈필드 춘천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55

#공유오피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

‘커먼즈필드 춘천’은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조성한 공간으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조성된 사회적 변화와 실험의 공간이다. ‘커먼즈필드’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 공간을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의 이념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는 브랜드로, ‘커먼즈필드 춘천’이 가장 처음으로 세워졌다. 전주·제주·대전에도 커먼즈필드가 세워졌고, 현재 충남·밀양·군산·청도에서도 개소를 준비 중이다.

커먼즈필드 춘천이 자리잡은 공간은 건축된 지 50년에 달하는 오래된 곳이다. 본래 1975년 조달청 창고 건물로 지어졌지만, 이후에는 오랫동안 빈 건물로 남았다.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이곳을 커먼즈필드 춘천으로 조성하면서 공간 곳곳에 역사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친절, 공정, 신속’ 등 오래된 간판과 조달청 창고의 엘리베이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에서 커먼즈필드 춘천의 역사와 공간의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다.





커먼즈필드 춘천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명 규모 행사가 가능한 ‘안녕하 우스’, 그리고 춘천만의 이야기가 쌓여있는 ‘아카이빙힐’, 30명 규모의 계단형 강연 공간도 있다. 코워킹 오피스와 회의실 등도 완비되어 있어 일하기에도 적합하다. 공간 대관은 커먼즈필드 춘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는 대관 이외에도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다.

### 커먼즈필드 춘천지기의 한 마디

“커먼즈필드 춘천에는 거의 매일 점심 포틀럭 파티가 열립니다. 점심 값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보고자 하나 둘씩 시작했는데, 이제는 점심 먹으며 다같이 수다떠는 시간이 즐거워 공유주방으로 모입니다. 미화관리 선생님께서 커먼즈필드 춘천 옥상에서 직접 키운 시금치를 주방에 가져다 놓으시면, 각자 자신이 생각한 시금치 메뉴를 이야기해요. 서로 수다스럽게 정한 메뉴로 똑딱똑딱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습니다. 커먼즈필드 춘천의 일상에는 이런 순간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공주

## 자유도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위케이션 #지역커뮤니티 #청년마을 #레트로공간



공주시의 원도심에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마을을 열었다. 이른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18곳의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인 공주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유휴공간이 많아지고 있지만 2011년 민간 주도의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행정의 지원과 노력이 합쳐지면서 현재 제민천을 중심으로 개성있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

1960~70년대 하숙 문화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주하숙마을’ 등이 대표적이며, 골목마다 갤러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소품샵,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공주 청년마을 브랜드인 ‘자유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커뮤니티 기반 지역관리 회사 (주)퍼즐랩에서 운영 중이다. ‘자유도’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골목을 따라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장과 숙소,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이다. 공주시 최초 노인회관은 현재 ‘창업 리빙랩 스튜디오’로, 하숙집으로 사용되던 2층 단독주택은 현재 ‘버드나무빌’ 지역살이 숙소로 운영되고 있다. 공주 원도심의 자랑 중 하나인 ‘제민천’을 따라 걸다 보면, ‘자유도’를 통해 조성된 여러 공간을 만날 수 있다.

### 자유도지기의 한 마디

“카페 어딜 가도 스몰토크가 가능합니다. 자유도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숙소부터 공유 오피스, 식당부터 카페까지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한적하게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자유도의 자유를 만끽해보세요.”

자유도 제공



하동

# 하동청년센터 (청년이 원하는대로 하동)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중앙2길 6-5, 2층  
#닌텐도 #보드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공유주방  
#꿈이음학교

2023년 5월 오픈한 하동청년센터는 하동을 구 하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됐다. ‘청년이 원하는대로 하동’이라는 귀여운 별칭처럼, 이곳은 청년들이 다채로운 기회와 경험을 모색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공유주방에서 자유롭게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공유주방을 통해 베이킹이나 바리스타 교육의 클래스에 참여할 수도 있다. 고프로와 방송 장비들이 구비된 촬영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하동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꿈이음학교’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베이킹, 우드카빙, 꽃차, 요가 등 다양한 클래스들이 이곳 하동청년센터에서 열린다.

보드게임,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게임 기기를 구비한 것도 하동청년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요소다. 청년들이 꼭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도하기 위해서만 청년센터에 오는 게 아니라, 무료함을 달래거나 재미를 위해 찾아왔다가 새로운 것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요소들이다. 첩보(?)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규 게임팩도 다수 입고되었다고 한다.

### 하동청년센터지기의 한 마디

“하동청년센터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재미만을 위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동청년센터 제공



남해

## 스페이스 미조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스페이스 미조


#미디어아트 #클래식양상블 #앤초비 #복합문화예술공간 #무장애시설

©스페이스 미조

‘스페이스 미조’는 인근 항구인 미조항에서 따온 이름이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 건물은 본래 수산물 냉동창고였지만, 2002년 새로운 냉동창고가 지어지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미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건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탄생했다. 공간 곳곳에 냉동창고일적 사용되었던 설비들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다.

스페이스미조는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머무르며 영감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아티스트 레지던스도 갖춘 점이 눈에 띈다. 1층 편집숍에서는 남해의 물건들을 큐레이션하여 판매한다. 환경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과

남해 어민들의 정성이 담긴 남해멸치액젓 등 남해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남해 어민들은 멸치를 주로 잡아 올리는데, 스페이스미조에서 남해 어민들과 협력하여 ‘미조&초비’라는 앤초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1층 레스토랑에서 ‘미조&초비’로 만든 앤초비 파스타를 직접 맛볼 수도 있고, 스페이스미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덧붙여 스페이스미조는 무장애 편의시설이다. 휠체어가 사용가능한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 접근도 용이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안내요원 등도 있다고 한다. 



찾아 나서기

# 바다 너머의 공간들

스웨덴의 공원과 대만의 길거리, 독일의 도서관과 일본의 온천. 여기에서 공익활동이 일어난다고? 공간이 어떠하든, 결국 우리가 바다 너머 공간들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장소 속에서 시대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이 아닐까.





바다 너머의 공간들: 스웨덴

# 알메달렌, 대화가 가지는 힘

글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법인 경 부설 공익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올해 처음 시도된 솔라시포럼(노동시민사회연대포럼) 추진단장을 맡았다.

스웨덴 모든 정당과 노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같은 시기, 같은 곳에 모여 각종 의제를 토론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축제,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알메달렌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이곳을 공론장의 대안적 모델로 간주했고, 국내에서도 몇몇 지자체는 비슷한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수많은 대화와 토론, 논쟁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도 이런 걸 한 번 해보자’는 의기투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시도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을 보면, 왜 우리는 실패했고 알메달렌은 성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다.



올해, 드디어 소문만 무성했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스웨덴으로 떠났다. 한국형 알메달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솔라시(Solidarity of Labor and Civic society) 포럼, 즉 노동·시민사회 연대 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직접 보고 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솔라시 포럼을 후원한 곳 중 하나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연수에 슬쩍 끼어든 것이지만.

## 고틀란드 비스뷔 시, 그리고 알메달렌 공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스웨덴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졌다. 인천공항에서 두바이 공항까지 9시간, 두바이 공항에서 4시간 대기, 다시 스톡홀름 공항까지 7시간을 날았다. 그리고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탄 뒤 40분간 날아 고틀란드(Gotland)섬으로 가야 했다. 거기서 또 비스뷔(Visby) 시까지 택시로 이동. 이동에만 24시간이 꼬박 소요된 셈이다.

고틀란드섬은 우리로 치면 제주도쯤 되는 휴양지다. 특히 섬의 해안가를 끼고 있는 비스뷔시는 잘 보존된 중세 성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풍스러운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다. 마치 복촌 한옥마을처럼 아주 오래된 건물이 즐비하고 중세 유럽풍 작은 골목 골목이 ‘인스타 감성’을 자극한다. 어느 곳을 대충 찍어도 엽서 그림 한 장이 똑딱 나올 정도다.

알메달렌은 비스뷔 시 해안가에 있는 작은 공원 이름이다. 별거 없다. 작은 연못을 둘러싼 잔디밭이 끝이다. 양양 서퍼비치클럽처럼 쿡방거리는 음악도, 월미도처럼 익사이팅한 놀이기구도 없다. 다만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시초가 된, 스웨덴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올로프 팔메(Sven Olof Joachim Palme)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와 상설무대, 오래된 나무 의자들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정확한 명칭은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Almedalen Democracy Week)이다. 잘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이 행사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1968년, 총리 지명을 받은 교육부 장관 올로프 팔메가 이곳으로 휴가를 왔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부탁해 알메달렌 공원에서 트럭 위에 올라 짧은 연설을 진행했다.

그런데 다음 해 같은 장소로 또 휴가를 왔다. 작년에도 했으니 또 한 번 연설. 두 번 연속으로 뭔가 하면 금방





전통이 된다. 팔메는 매년 이곳을 찾아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가치와 국정 과제에 대해 연설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힘도 든다. 그와 친한 몇몇 정치인도 슬쩍 연설에 끼어들었다. 레퍼토리가 단순하면 쉽게 질리는 법. 다른 정당 정치인도 불렀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모이니 점차 여러 의제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곳에 모였다. 하나둘씩 모이다 보니 규칙이 생기고 규모도 커졌다. 1991년부터는 스웨덴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매년 27주 차에 정기적으로 모여 교류하는 장소가 됐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축제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이 만들어진 맥락이다. 행사 전문가들이 멋들어지게 기획하고 찬란한 조명을 곳곳에 달아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 행사가 반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죽 쉬었다 평가하고, 계획 세우면 미친 듯이 달린다”**

이런 규모의 행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은 누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행사는 고틀란드주에서 만든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반세기 넘게 이어오면서 거의 매뉴얼화되어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5일간 행사가 개최되고, 행사가 끝나면 실무자들은 3주의 휴가를 떠난다. 휴가에서 돌아오면 8월에서 9월까지 평가를, 10월부터 12월까

지는 내년 계획을 수립한다. 새해가 시작되면 3월까지 계획에 따라 세팅에 들어가고, 4월부터는 다시 민주주의 주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린다고 한다.

고틀란드주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 전담 공무원 3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오로지 민주주의 주간을 위해 일한다. 물론 행사 기간에는 100여 명 이상의 실무 인력이 결합한다. 기본방향은 10인 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드는데, 스웨덴 8개 정당을 대표하는 8인과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의석수가 많다고 발언권이 많거나 결정 권한이 크지 않다. 모두가 1인 1표를 가진다.

흥미로운 점은 8개 정당이 합심해 의견을 올려도, 고틀란드주에서 거부하면 다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알메달렌 주간의 재정구조 때문이다. 보통 4월 중순까지 참여를 신청하면 무료지만, 이후부터 대략 300유로(우리 돈 43만 원 정도)를 참가비로 내야 하고 행사가 가까워질수록 참가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걷은 참가비 수익이 대략 11만 유로(약 1억 5천만 원) 정도다. 그리고 부스 대관료 수입이 30만 유로(약 4억 원) 정도 된다. 5일간의 행사에 드는 비용이 총 6~70만 유로(8억 5천만 원~9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전체 행사비에서 수익을 뺀 차액을 고틀란드주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최종 결정 권한은 고틀란드주에서 행사한다.

자본주의적이라고? 선거로 주 정부 집권당이 바뀌면 행사 방향도 바뀌지 않겠냐고? 알메달렌의 성격을 알면 이런 질문은 기우일 뿐이다. 알메달렌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을 비워둔다**는 점이다. 특별한 슬로건을 제시하거나 그해의 테마를 제시하



손우정 제공

지도 않는다. 어떤 행사를 열라치면, 기초와 목표를 정하고 슬로건과 기치부터 홍보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다만 영리적인 활동은 금지하며, 누구의 참여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등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한다.

내용은 참가자들이 채운다. 올해는 총 2,115개의 세션이 열렸다. 인공지능에서부터 기후 위기, 노동권, 인권, 이민자, 종교, 재택근무, 사냥권과 동물권, 건강과 복지, 패션, 부동산, 게임 등 거의 모든 의제가 등장했다. 조직위에서는 올해 특별히 어떤 의제가 다른 의제보다 중요하고, 누구의 발표가 메인이라고 강조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 모든 의제가 동등하게 참여한다. 그해의 이슈와 관심도는 세션에 참여한 사람의 수로 드러날 뿐이다. 연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했듯, 이질적인 주체들이 더 넓게 연대하려면 그 중심 내용은 비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각자가 그 공간과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평적 연결이 형성된다. 알메달렌 민주주의의 주간은 그 이론의 현실태와 유사했다.

물론 메인 이벤트는 있다. 1968년 올로프 팔메의 연설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스웨덴 8개 정당의 대표가 매일 오후 1시와 7시에 알메달렌 공원에서 정치 연설을 진행한다. 순번을 정해 매년 돌아가며 연설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 총리가 소속된 정당의 순서에는 총리가 직접

와서 연설하는 것이 또 전통이다. 시간이 되면 누가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각종 부스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알메달렌 공원으로 모인다. 연사들은 3~40분 정도 스웨덴 정치에 대해 논평하고, 자기 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연설한다. 열렬히 손뼉 치며 호응하는 지지자들도 보이고, 그저 노려보며 연설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다.

부스와 카페에서 열리는 세션도 별다른 것은 없다. 우리의 공론장 행사처럼 아기자기한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붙이는 곳도 없고, 기계로 투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발표자가 발표하고 청중이 듣고 질문한다.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우리 토론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도 알메달렌이 유명해진 것은, 아니 그보다 반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신한 이벤트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힘을 가지는 대화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진중한 대화와 효율적인 공론장을 진행해도 실제 결정은 높은 사람들이 하거나, 단지 ‘토론 과정’의 의미만을 중시해 대화의 효력을 체감하기 어려운 우리와 달리, 알메달렌에서 진행된 수많은 대화는 여러 의미에서 효용성이 있어 보였다. 알메달렌에서 만나 인터뷰한 사람들도 굳이 알메달렌에 찾아오는 이유를 ‘**만남과 대화의 영향력**’에서 찾았다. 기업의 참여가 느는 것에 대응해 노조의 참여 규모를 늘렸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일에 도움을 줄 정치인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 이런 대화와 만남, 관계가 형성되는 기회의 공간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반세기 전통의 공론장을 만든 힘이 아닐까?

## 우리의 연대는 어떻게 나아갈까?

물론 알메달렌도 빈틈이 있다. 고틀란드섬은 휴양지다. 오고 갈 때, 먹고 잘 때 비용이 꽤 든다. 게다가 알메달렌 주간은 휴가가 시작되는 성수기이기도 하다. 알메달렌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기 어려웠던 것도 비용 문제가 크다. 스톡홀름만 가도 각종 나라의 이민자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알메달렌에서는 유색인종도 찾기 어렵다. 세션도 부익부 빈익빈이 느껴졌다. 기업이 주관한 세션은 대부분 멋진 카페나 식당에서 진행됐지만, 그들도 없이가판을 차려놓은 곳도 있다. 물론 알메달렌이라는 장소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런 정례적인 공론장, 연대의 자리를 만들 수 없을까?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 지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한국사회포럼과 같은 학술적 성격이 짙은 논쟁의 공간이 있었고, 여러 부문별로 활동가대회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지리산포럼처럼 활동가들의 깊은 교류를 목표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포럼도 있다.


그러나 영역을 교차하는 문화적 교류와 연대의 장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점차 부문별로, 의제별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방식, 소통과 결정의 방식도 제각각이고 정치적 지향은 물



론 문화적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분화와 다양화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거듭될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언제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단지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적 압력과 지체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유기적 혼란의 반영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것이 솔라시 포럼이다. 노동과 시민 사회의 연대를 상징적 목표로 내세우고 다양한 부문과 활동가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솔라시는 노동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공동의 지향과 목표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라기보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다. 더 넓고 깊은 연대가 가능한 조건, 즉, 서로 교차하며 어울리고, 생각을 나눌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기회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올해의 솔라시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뗀고 아직은 몇 차례의 작은 교류와 활동가대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애쓰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자신이 의제를 마음껏 주장하고, 여러 영역이 교차하며 접점을 찾고, 시민과도 조우할 수 있는 정례적 공간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형태는 정치축제인 알메달렌보다는 더 사회적이며 운동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알메달렌과 우리는 문화와 조건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한 가지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가지는 힘이다. 힘이 있는 대화,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힘,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공동의 지향과 목표를 토론하는 정례적 공간.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도 반세기가 필요할까? 설마. 빠르기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닌가? 





바다 너머의 공간들: 대만

# 다양성과 함께, 대만 프라이드

글 진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단원이다. 2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 일해오며, '다양성'과 '사회변화'를 고민하는 40대 중년 Gay이다. (사진 모두 진틀 제공)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의 퀴어 퍼레이드(Queer Parade)는 Pride 또는 Pride Parade 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행진이다. Pride(자긍심)라는 단어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만큼이나 성소수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단어가 되었다.

퀴어 퍼레이드는 1970년,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 1주년을 맞아 시작됐다. 무려 50여 년 전에 시작된 퀴어 퍼레이드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현재는 100여 곳의 도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무려 10개 도시에서 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만 프라이드(Taiwan LGBT+ Pride)는 2003년에 개최되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2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해 아시아 최대규모의 프라이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언제부터인가 타이베이는 아시아 LGBT+의 주요 거점이 되었고, 대만 프라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만이 LGBT+의 상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 대만의 LGBT+ 친화적인 공간들이 한국과는 무엇이 다르고, 한국의 퀴어문화축제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Stand with Diversity, 다양성과 함께 걸어가기

내가 대만 프라이드에 참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아시아 최대규모 프라이드에 잔뜩 기대를 안고 지난 해 혼자 대만에 방문했다. 그러나 퍼레이드 전날 전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소식과 퍼레이드 당일 아침 쏟아지던 폭우로, 내 마음은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내려앉아 있었다. 애써 퍼레이드에 참여했지만 축제를 즐기지도, 흥겨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돌아왔다 작년의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LGBT+ 당사자 친구들과 함께 대만 프라이드에 재방문했다. 역시 축제는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 작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축제의 캐치프레이즈 ‘Stand with Diversity’부터 흥겨운 분위기까지, 소수자로서의 해방감과 자긍심을 잔뜩 머금을 수 있었다.

프라이드 행사 장소는 타이베이 시청 앞 광장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시청과 타이베이101이 보이는 광장에는 수많은 부스와 퍼레이드 차량이 늘어섰다. 본격적인 행진 이전 부스가 오픈한 시간부터 광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유아차를 끌고 온 가족도 보였다 그야말로 ‘다양성’과 함께 걸어가는 행사가 시작되었다.

남쪽 루트와 북쪽 루트로 나뉘어진 퍼레이드 행렬은 신나는 축제 분위기에 맞게,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이다. 번외이지만, 퍼레이드 차량에서 K-Pop이 흘러나올 때마다 전 세계 성소수자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만의 게이클럽에서도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K-pop의 위력을 실감했다고나 할까.

퍼레이드 행렬은 광장 바깥으로 이어졌다. 광장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색색깔의 현란한 의상과 무지갯빛 액세서리, 개성 넘치는 코스프레 의상까지 그 위용은 어마어마했다. 상대적으로 정돈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밋밋하게 느껴졌다고 할까. 한국에서는 소위 외설 논란으로 축제 참여 의상에 대한 자기검열과 규제가 많은 반면, 대만 프라이드는 훨씬 개방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차를 끌고 나왔거나 아이의 손을 잡은 타이베이 시민들조차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더 많은 시민과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축제였다.



##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사회, 대만

대만 프라이드가 이토록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열렸고, 참가자 수는 15만 명 정도이니 역사나 규모 면에서 대만 프라이드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만 프라이드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건, 아무래도 대만이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사회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잘 알려져 있듯 2019년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후보 시절부터 동성혼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차이잉원 총통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랑이 이겼다’고 축하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만의 이러한 행보는 권리의 정치를 넘어 (동)아시아 퀴어정치에 이정표로 기록됐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 발 맞추듯, 2003년 800명으로 시작한 대만 프라이드는 2019년 2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규모 LGBT+ 축제가 되었다.

사실 대만에서 ‘동성혼 합법화’보다 먼저 시작된 것은 ‘젠더평등 교육’이었다. 2004년 제정된 ‘젠더교육 평등법’에 따라, 학교에서 성별이나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젠더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2002년에는 젠더노동 평등법이 제정되어, 직장에서 성적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 대우를 금지한 역사가 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비교하여 훨씬 앞서나간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동성혼 합법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사회라고 불리기까지, 대만은 이러한 노력을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다.

당사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프라이드’에서는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이 눈에 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홍보 부스를 차리고, LGBT+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함께하는, 소위 핫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들의 후원이 있는 만큼, 퍼레이드 차량도 한국보다 훨씬 화려하다. 섭외된 전문 모델과 특별제작된 의상 등이 그렇지 않아도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를 더 살려준다.



그 사회가 얼마나 LGBT+ 친화적인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기업 광고’이지 않을까? 슬프게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국내 대기업을 찾아볼 수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퀴어 이슈를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퀴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퀴어는 지워진 존재’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포용적이고, 열려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2월 대표적인 프라이드 축제인 ‘시드니 마디그라(Sydney MardiGras)’도 이와 비슷했다. 시드니 마디그라는 1978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한때는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상업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축제 기간의 모든 기업 광고에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Rainbow’가 빠지지 않는다.

올 한 해, 한국에서 열렸던 퀴어문화축제들을 떠올려 본다. 10만 명에 가까운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에 쏟아진 혐오의 시선과 축제를 방해하는 사람들, 공권력과의 충돌까지. 똑같은 프라이드 축제라도 그들을 둘러싼 사회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축제의 장면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수년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반대편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부채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며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하느님의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퀴어는 ‘안보’와 ‘전통’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이념적·실천적 죄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인 ‘시민’이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수많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부스를 차리는 날을 기다려본다.



## 타이베이의 퀴어 공간? 무지개를 타고 떠나는 여행

더불어 프라이드만이 아니라 타이베이 곳곳의 퀴어 공간을 소개해보려 한다. ‘타이베이 관광웹사이트(공식)’을 들어가면, ‘무지개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날 수 있다. 친절하게도 타이베이의 상징적인 퀴어 공간들을 소개하고 있다(공식 관광 웹사이트에 퀴어 이슈를 다루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부러운 일이다).

### 징징 서점

1999년 문을 연 ‘징징 서점晶晶書庫’은 오랫동안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왔으며 대만 성소수자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 장소다. 징징의 주주들은 처음부터 ‘대만의 LGBT+ 커뮤니티에 봉사한다는 기업 비전과 사명을 지켜오면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문예 활동까지 진행하는 따뜻한 성소수자들의 공간이자 무지개 왕국의 정신적 지표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문학’과 ‘게이 문학’을 큐레이션 해두었다. 크지 않은 규모지만,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LGBT+ 사회를 연결해주는 느낌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들도 있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나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다만, LGBT+ 커뮤니티의 소식과 행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연대의 힘이 느껴졌다.



### 성소수자에게 열린 하늘, 시먼 홍러우

‘시먼딩’은 타이베이의 명동이라고 불릴 만큼, 항상 활력이 넘치고 시끌벅적한 지역이다. 그러한 ‘시먼딩’의 상징이 바로 ‘시먼 홍러우西門紅樓’다. 시먼 홍러우는 다양한 창작자들의 공간으로 상시적으로 세련된 전시가 열리고, 주말에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플리마켓이 개최되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부상했다.

그런데 이곳은 또다른 의미로 매우 ‘이색적’인







곳이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바로 좀처럼 보기 드물게, 오픈된 장소에 있는 퀴어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먼 홍려우’는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엘라이(성소수자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 어이없게도, 이 사실을 소개하는 ‘한국의 여행 가이드북’은 찾기 어렵지만 말이다).

시먼 홍려우를 보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의 ‘종로 포장마차 거리’를 생각나게 한다. ‘종로 포장마차 거리’는 열린 공간에서 해방감을 주는 성소수자 계토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10년 전만 해도, (역시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로 포장마차 거리는 성소수자들의 거리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관광명소로 익선동이 주목받으면서, 종로 포장마차 거리는 성소수자 대신 관광객으로 붐비게 되었다. 성소수자와 이성애자들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거리에서는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의 시선이 늘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이다. 포장마차 거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시먼 홍려우는 정말이지 부러운 공간일 수밖에 없다.




### **6번 무지개**

MRT ‘시먼西門’역 6번 출구 앞에는 ‘6번 무지개(Rainbow Six)’라는 무지갯빛 길이 있다. 타이베이시가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과 성 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2019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6번 무지개’가 가진 상징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청명한 무지개색 도로를 변화가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너나 할거 없이 경쟁적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다. 타이베이에 방문하는 성소수자라면, 기념사진이 필수인 포토 스팟.

## 228 평화공원 - 무지개 철문

228 평화공원二二八和平紀念公園은 한 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였다. 과거 228 평화공원은 ‘신공원新公園’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출근하는 것처럼 매일 드나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2016년 정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본래 칙칙한 회색 철문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을 칠해, 228 평화공원을 ‘무지개 관광지’로 만들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지금은 빛바랜 철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LGBT+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 레인보우 스타트라인

2020년, 타이베이시에서 두 번째로 현란한 무지개 명소 ‘레인보우 스타트라인(Rainbow Start Line)’이 타이베이 시청광장에 자리잡았다. 성평등을 제창하는 타이베이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와 함께, ‘대만 프라이드’의 퍼레이드가 출발하는 곳이다. 대만 프라이드 기간에는 수많은 인파로 바닥의 무지개빛 도로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지만 평일에 방문하면 거대한 무지개빛 도로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바다 너머의 공간들: 독일

# 독일인 세 명이 모이면 ‘도서관’이 생긴다?

글 양사윤

놀이와 배움을 디자인하고 또 공부하며, 독일의 소도시 할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자이너.  
zimmt.de | instagram @say\_sayoon (사진 모두 양사윤 제공)

세상 험하다는 베를린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친 도시로 공부를 하겠다며 이사를 왔다.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서는 산책만 가도, Meetup 앱만 잠시 켜도 어디서나 할 것이 가득해서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달랐다. 일요일만 되면 도시의 변화가는 고요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평일 저녁 7시 반만 되어도 슈퍼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다. 관공서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은 8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면 퇴근을 한다. 도대체 여기서 다들 뭘 하면서 지킨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지던 무렵, 유난히 눈에 들어오던 줄임말이 있었다. 내가 접한 많은 공간과 모임들에 붙은 두 알파벳, e.V.\* 유기묘를 돌보는 모임도, 보드게임 아카이브도, 작은 교외정원을 가꾸는 모임도, 각종 스포츠모임도, 또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친구들도 자신들의 모임 끝에 e.V.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었다. 대체 e.V.가 뭐길래?

\* 에파우라고 읽는데, 등록협회(eingetragener Verein)라는 의미다.



## 독일인 세 명이 모이면, Verein(협회)를 만든다

독일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Treffen sich drei Deutsche, gründen sie einen Verein’이 있다. 독일인 세 사람이 모이면 협회를 만든다는 말인데, 독일 사람에게 있어 Verein(페어라인)이라는 모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법적으로 등록협회가 되려면 회원 7명과 정관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등록된 모임만 2022년 기준 615,759 개이며 이 숫자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모임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협회 활동에 참여한다.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은 관심사가 비슷한 동족들을 찾아 취미와 공익활동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없는 작은 도시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있다.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테마는 책, 그중에서도 작가 개인의 목소리와 지문이 그대로 찍혀있을 것 같은 독립출판물인데,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상업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책’을 매개로 엮인 몇몇 e.V.들은 워크숍의 형태로,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형태로 그들의 테마를 더 넓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도서관이라고는 공공도서관만 익숙하던 나에게, 이웃 도시인 라이프치히의 도서관들 몇 군데는 규모 면에서 그리고 장서의 큐레이션 면에서 독특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맞게 정리된 책들이 꼼꼼하게 들어찬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초대하는 장소들 중 몇 군데를 소개해보려 한다.

## 페미니즘 도서관 모나리자

학부 시절 한 프로젝트에서 ‘책’과 ‘읽기’라는 테마로 작업을 하던 중, 한 친구는 촉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던 중 한 도서관을 추천해 주었다. 기차로 30분 정도 거리인 도시 라이프치히에 모나리자(MONALiesA)라는 페미니즘 도서관이 있다는 것.

모나리자가 위치한 건물인 민주주의의 집(Haus der Demokratie)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사무실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다. 거기서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 4층 오른쪽을 바라보면 아늑한 조명의 책이 가득한 공간이 보인다. 1990년부터 이 건물에서 약 30권의 책으로 시작한 도서관은 일주일에 3일, 워크숍이나 강연 등의 일정이 없다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만 열린다. 현재 이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총 12명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문 사서 등 2명, 나머지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다양한 일을 나누어 해내고 있다고 한다. 긴 시간 수집된 여성, 젠더, 페미니즘 테마의 전문서적부터 단행본, 그래픽노블, 진(Zine)은 물론 종이 아닌 형태의 미디어들(DVD나 오디오북) 등도 이곳에서 접할 수 있고,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원하는 책이 있는지 조회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도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낮은 눈높이에 배치되어 있었다. 누군가 꼼꼼하게 고르고 배치한 듯한 정성이 물씬 느껴졌다.



도서관을 둘러보며 흥미진진한 카테고리에 넋을 놓고 있을 무렵, 누군가가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빌렸던 책을 놓고 가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 조그마한 도서관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만 열 명 남짓이라고. 이들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 대출과 반납을 후다닥 처리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고맙게 구경하고 인사를 나누며 떠나려는 찰나, 멋진 그래픽의 에코백이 다양한 색깔로 걸려 있는 걸 보고는 발을 뭘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도서관 문을 나서는 내 손에는 가방과 스티커가 들려 있었다.

MONAliesA - Lotta e.V.

Haus der Demokratie Bernhard-Göring-Straße 152 04277 Leipzig

<https://monaliesA.de/bibliothek/>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도서관

길거리를 걷다보면 독일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스쳐지나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나라의 말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을 때가 더 많았고, 내가 사용하는 한국어 역시 어느 나라 언어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았다.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당겨두었던 고무줄이 튕겨나오듯, 굉장한 속도로 세계 문화들이 다가오는 이 낯선 나라에서, 이들의 모국어가 있는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화교류도서관이다.

언어권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장서를 모아둔 이 장소는 WelfOffen e.V.(벨트오펜)이라는 협회가 활동을 펼쳐가는 공간이다. 좋아하는 빵집을 가며 눈여겨보던 장소는 오픈시간을 늘 놓치곤 해서 들어가 볼 수 없었는데, 찾아간 날은 운이 좋았다. 여기는 좀 더 낮은 의자와 책상들로 열람실이 채워져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동화와 단행본 등이 꽂혀 있었다. 약 4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권에서 수입되거나 번역된 장서들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언어권별 비율이 늘거나 줄기도 한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어의 장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 곳 역시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꾸려져가고 있기에 열리는 시간은 정해져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언어/문화교류 등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마침 내가 찾아가는 날 일하고 계시던 활동가분은 이곳에 어린이가 아닌 어른 이용자들도 많은데, 새로 배우는 언어로 쓰여진 동화책 등을 읽으며 배움에 큰 도움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스페인어로 쓰인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나도 못 할 거 없지 하며 이용자 가입을 했다. 현장에서 책을 읽는 데는 회원증이 필요없지만, 대출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한 번 가입하면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다음에 빵 사러 갈 때는 운영 시간을 잘 맞춰 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Interkulturelle Bibliothek - WeltOffen e.V.

Straße des 17. Juni 11 04107 Leipzig


<https://weltoffen-leipzig.de/interkulturelle-bibliothek/>

## 도서관 운영의 요소: 기부, 지원, 워크숍

e.V.라는 단체들이 아무리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형태의 단체라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비용이 든다. 장소를 이용하거나 적어도 전기이용료와 난방비, 업무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 지원금이나 수상, 기부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개성을 살린 홍보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나 워크숍과 강연을 여는 것 역시도, 구매나 참여 금액은 결국 그 단체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에 가깝다. 일시적 방문자의 형태로 또는 정기적으로 찾는 단골의 형태로, 꼭 협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의 가치를 알아채고 이해한 동네 주민들이 이 단체를 응원하며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책’을 매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 도서관의 형태로 공간을 열어두고 있는 장소 중 아직 못 가 본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 아래층에 있는 환경도서관인 Ökolöwe(외코뢰베 Umweltbund Leipzig e.V.)는 환경 관련 도서도 다양하지만, 책만 읽는 장소는 아니다.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소개해주는 워크숍, 함께 과일 수확하기 같은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도 제안하고 있다.

아무래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이런 식의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크숍의 형태로 또는 북페어에 자신들의 작업물을 가지고나와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들 스스로 책을 만드는 워크숍의 장을 마련하고, 직접 출판까지 이어가는 BuchKinder e.V.라는 단체는 북페어에 갔다가 처음 알게 된 곳이다. 어린이들의 그림이 담긴 캘린더 같은 어른들의 손이 담긴 제품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제본해서 엮어낸 책들도 있었다. 라이프치히 북페어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가게 된다면 혹시 참여 부스 중에 e.V.가 붙은 단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테마와 활동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시도해보려고 계획 중이다.

물론 독일의 모든 협회들이 공공선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협회 중에는 ‘멋진 수영 기르기 협회’ 같은 재밌고 독특한 모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덕분에 이런 활동의 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상상을 초월해서 넓다는 점,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지역 기반에서 관심사가 같은 이들을 만나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 이러니 다들 가게가 문을 닫아도 지루할 틈이 없지. 다시 30분 기차를 타고 돌아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온다. 우리 도시에는 또 어떤 재미난 모임이 있는지, 겨울방학이 되면 슬슬 수소문해 보아야겠다. 



바다 너머의 공간들: 일본

# 여행 사슬이 끊이지 않는 배리어프리 온천

글 홍서운

매일 매일이 도전인 사람. 전 KBS 장애인 앵커, 휠체어 유럽 여행기를 엮어 『유럽,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를 펴냈고,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로 무장애 관광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이전 홍서운 제공)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거나 스트레스 받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여행을 떠올린다. 그리고 여러 여행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일탈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즉흥 여행’을 상상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때로 아무런 계획 없이 미지의 공간에 이동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상상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여행은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는 인디애나 존스의 모험처럼 난관을 헤치는 험난한 과정인 경우가 많다.

휠체어로 계단을 오르지 못해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해 뒷걸음질 쳐야 할 때도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방법이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 위를 하염없이 달려야 할 때도 있다. 매번 위험을 감내해야만 하는 여행은 결코 즐거움도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신체적 조건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을 주목해야 한다.

## 무장애 관광 선진국, 일본

충분한 환경과 정보가 있어야만 여행이 가능한데, 총동적으로 홋카이도 행 항공권을 구매했고, 즉흥적으로 떠났다. 휠체어 사용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이 무장애 관광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장애 관광’의 핵심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처럼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서비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나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여행길에선 계단 대신 경사로가 필요하고 더불어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목욕의자가 설치된 욕실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무장애 관광 정책을 펼친 일본은 여행지, 숙박시설, 체험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실현했다. 사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도시에서 장애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배리어프리 운동이 일어나 1980년대 후반까지 지자체마다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1994년 「고령자·신체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하트빌딩법)이 제정되면서 도시마다 큰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2020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과 「배리어프리법」 개정을 통해 또 한번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 사회의 배리어프리 제도 안착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편리함을 가져온다. 그 덕분에 나 역시 두려움 없이 즉흥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이때 떠난 홋카이도 여행은 내게 또 한 번의 도전이자 내 경계를 확장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 여행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일본

여행이 순탄치 않은 나는 여행 목적지가 정해지고 난 다음 온라인 세계 지도를 열어 목적지를 미리 탐방한다. 어떤 맛집이 있을지, 골목은 어떻게 생겼을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있을지 등 여러 정보를 찾아본다.

이번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탐색에 나섰다. 총동적으로 항공권은 준비했지만 짧은 여행 기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면 적어도 반나절이 걸리는데 짧은 여행 일정상 길 위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지만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양발을 대신해 한 손으로는 자동차 핸들을 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 ‘핸드컨트롤러’를 움직인다. 그러니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렌터카 업체에 이런 차량이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우리나라도 제주, 강릉, 안동, 춘천, 전주, 여수, 부산 등 유명한 여행지가 많은데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렌터카를 찾기는 어렵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제주도에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렌터카가 **한 대** 있다.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렌터카를 찾기로 마음먹고선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렌터카 업체에 문의를 했다. 그러자 주요 관광 도시마다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핸드컨트롤러 차량과 휠체어가 통째로 탑승할 수 있는 개조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욱이 이 업체는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부터 렌터카 사무실까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무장애 관광에서는 여행 사슬(Travel Chain)이 단절되지 않고 원활히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의 연계성 또한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홋카이도 여행은 이동의 단절도 여행 사슬의 단절도 없는 여행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KTX역에 내려 목적지까지 이동 방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때때로 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 콜택시)마저도 때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지 못하거나 야간 시간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차가 달리는 도로를 따라 위험한 이동을 해야 했던 적도 많았고, 여러 차례 승차 거부를 당하며 사정하고 읍소하여 일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일련의 경험과 홋카이도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 환경은 너무나 미흡했다. 이어지지 않는 여행 사슬을 연결하기 위해 시급히 이동의 연계성을 공고히 해야 하는 숙제가 뚜렷하게 보였다.







## 지옥이라도 내 발로 아니 내 휠체어로 가고 싶다

홋카이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방문한 여행지는 노보리베츠다. 노보리베츠 온천은 일본의 3대 온천 중 하나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온천 휴양지이다. 노보리베츠에는 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옥 계곡과 마스코트인 도깨비(오니)가 명물이다. 지옥 계곡은 히요리日和 화산의 분화활동으로 생겨난 분화 계곡으로 직경 450m에 면적은 11헥타르 정도 된다. 계곡을 따라 여러 개의 분출구가 있는데 뽀글뽀글 거품이 끓는 곳도 있고 하얀 유황 연기를 내뿜는 것이 마치 지옥을 연상케 했다. 또한 지옥 계곡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마을 곳곳에서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도깨비들이 들고 있는 9가지 색의 방망이는 9가지의 행운을 상징하는데 금색 방망이는 소원성취를 의미하고, 파란 방망이는 병과 재해를 막아주고,

붉은 방망이는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등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지옥 계곡에는 화산 분출구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긴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뜨거운 공기와 80°C가 넘는 뜨거운 온천수를 피해 지옥 계곡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휠체어도 긴 나무다리를 통해 지옥 계곡의 중심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경사가 많은 곳이라 과속방지턱처럼 낮은 턱이 곳곳에 있기는 하였지만 자욱한 유황 연기를 뚫고 화산 분출구 중앙에 도달했을 때는 주변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로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노보리베츠 지옥 계곡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물건이 있었다. 지옥 계곡 모양을 그대로 본 떠 만든 시각장애인용 촉지모형이다. 일반 여행객들은 이 촉지 모형이 지옥 계곡 미니어져 조형물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 모형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 곳에 서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시각장애인도 다른 여행객과 마찬가지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서 지옥 계곡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도록 촉지 모형을 설치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무장애 웰니스 여행

우리나라 여행 산업에서 웰니스 여행이 화두이다. 호캉스나 한달살이, 템플스테이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 여행이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여행객도 심신을 다스리는 여행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웰니스 환경과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홋카이도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일본의 온천에 대해 기대가 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웰니스 여행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기대가 되었다. 일본은 지역마다 유명한 료칸이 많고, 홋카이도 역시 노보리베츠를 비롯하여 곳곳에 유명한 온천 마을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무장애 온천 시설을 갖춘 료칸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헛된 걱정이었다. 홋카이도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료칸은 생각보다 많았다. 객실 내 커다란 히노키탕이 있는 료칸도 있었고 예약제 대중탕도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료칸이 여러 곳이었다. 나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온천마을에 위

치한 료칸의 배리어프리 객실을 예약했다.

일본의 료칸은 대부분 좌식으로 된 다다미방이 많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객실은 조금 달랐다. 객실에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는 안전바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다. 세면대 높이는 휠체어로 접근하기 수월했고 욕실에는 목욕 의자와 욕조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객실 설치 규정에는 욕조 대신 샤워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겨울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또한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목욕 의자를 비치하기 보다는 벽에 부착된 의자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비수칙을 한 채로 안전바가 없는 목욕 의자에 앉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욕실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히노키탕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계단처럼 보이는 발받침을 옆으로 치워두고 안전바를 잡고 난간에 잠시 걸터앉은 다음 다시 욕조 안으로 몸을 담궜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






을 담그고, 홋카이도 지역의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여유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홋카이도 여행에서 경험한 배리어프리 온천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세심한 환경 덕분에 어려움 없이 온천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수안보, 부곡, 도곡 온천처럼 유명한 온천 휴양지가 많다. 과거의 명성에 비해 지금은 낙후된 여행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도 무장애 웰니스 여행이 가능한 무장애 온천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 여행은 행복을 만든다

여행은 일상 밖의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며 또다른 연결을 만들어낸다. 여행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 역시 여행 오는 사람들을 통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무장애 관광은 간단하다. 어떠한 신체 조건을 가졌든 누구에게나 여행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여행이 여러 지역과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과 지역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여행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여행은 그렇다. 여행은 경험과 추억을 바탕으로 결국 행복을 만든다. 궁극적으로 무장애 관광은 여전히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행복을 선사하는 길이다. 



# 이런 것도 공익활동이 되나요?



# 겨울에는 담그자 비건 김장

## 글 스카

물속 세계를 사랑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는 사람.  
다양한 일을 하기에 명함에는 '디자인, 연구, 문화기획을 하는 지역활동가  
그리고 목사' 라고 적혀 있다. (사진 스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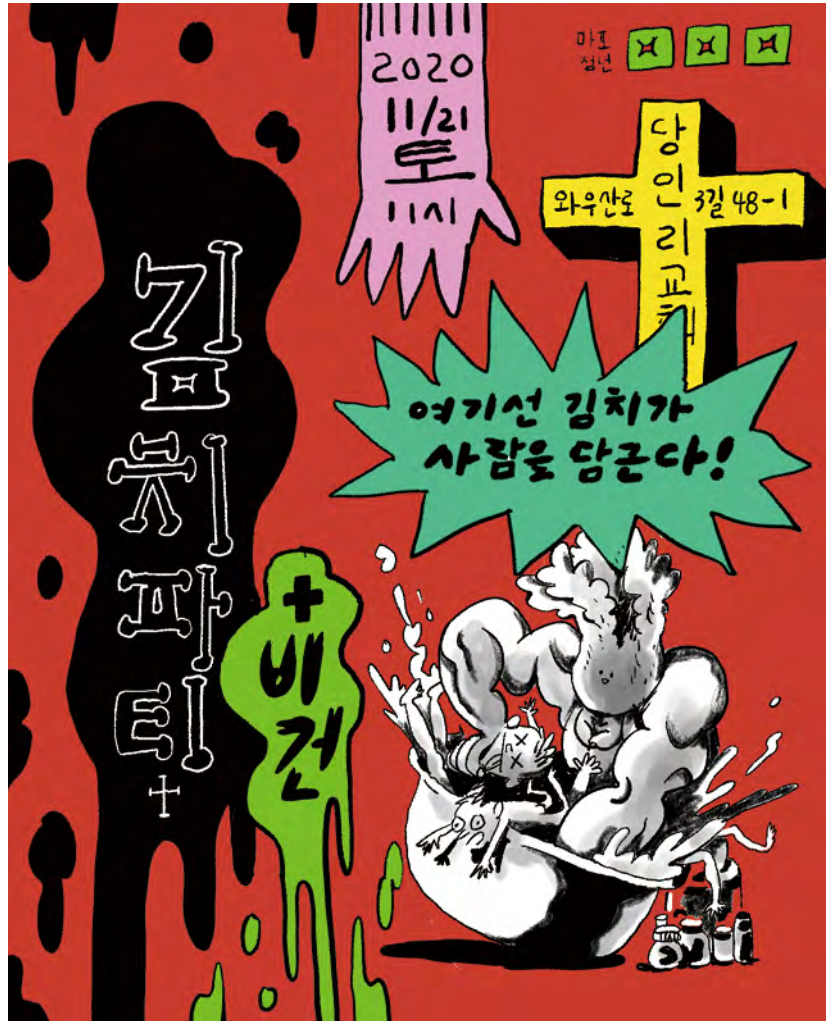
## 김치가 비건이 아니라고?!

몇 년 전부터 스쿠버다이빙에 푹 빠진 나는 매년 달라지는 물속 세계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실감했다. 바다 속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하얀 무덤처럼 변한 거대한 산호초 숲이 있었고, 그 숲 앞에서 나는 깊은 무기력함을 느꼈다.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꿀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로 목숨을 잃은 이웃의 이야기가 더 선명히 자주 들렸다. 기후와 함께 내 마음 또한 위기를 겪는 듯했다. 그러던 와중에 동네에서 기후위기 관련 모임이 열린다기에 찾아갔다. 그곳에는 나와 다른 계기로 기후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지나가다 마주치고, 밥을 먹는 일도 생겼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만 제외하고 모두가 비건이라는 사실을.

당시만 해도 나는 비건이 무엇인지 몰랐다. 채식이 곧 비건인 줄 알았다. 하루는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나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름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던 꿀을 잔뜩 넣었다. 요리를 내놓았을 때 친구들은 '와~'하며 탄성을 내뿜었고,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데 요리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듣던 한 친구는 조심스럽게 "비건들은 꿀을 먹지 않아요. 벌을 착취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요."라고 말해줬다. 나는 미안함에 얼굴이 붉어졌고, 친구들은 채식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었다.



또 어떤 날은 다른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김치에 손을 대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들 김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취향 때문인가? 아니면 맛이 없어서인가? 호기심이 생겨 왜 다들 김치를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다.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는 무조건 젓갈, 그러니까 어류나 새우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 나는 또 한 번 ‘아차’ 싶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야말로 비건이건 아니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치는 무엇보다 기본권에 속한다고 여겼던 나는 충격에 휩싸였고, 불현듯 모든 이들이 김치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020년 겨울, 친구들과 나는 비건식 김장에 도전하기로 했다.



## 좌충우돌 김장 도전!

비건 김장을 하기로 의기투합하자마자, 우리 중 한 명이 재빨리 웹자보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렸다. 평소 채식에 관심을 가졌던 몇 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인원은 총 여섯 명으로 늘어났다. 다함께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기는 했지만 몇 포기나 해야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참여자 중 한 분이 50포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장을 하기로 모인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유년 시절부터 매년 수백 포기씩 김장을 하는 집에서 자란 분이였다.

정작 우리는 모두의 기억 세포를 총동원해 봐도 김치를 50포기 한다는 게 상상이 가질 않았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재료를 사러 재래시장에 갈 때까지 해도 우리가 정말 그만큼을 할 수 있을지 그 양에 압도 당해 머리가 얼얼했지만, 정작 제안한 동료는 자신만만했다. 연신 “이 까짓거 금방 합니다”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김장 날이 되었다.

비건 김장의 핵심은 동물성 원료인 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육수 대신 채수를 사용하는 데 있다. 보통 멸치육수를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대신 다시마를 진하게 끓여 사용하기로 했다. 젓갈의 대체품으로는 비건 조미료인 연두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모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계속 안심시키던 소위 ‘김장 마스터’가 능수능란하게 할일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먼저 여섯 명을 세 명씩 나누어 한 팀은 야채를 씻고 다듬고, 다른 팀은 다듬은 야채를 썰기로 했다. 그러자 수북이 쌓여있던 야채 더미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흥겨운 노동요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야채 더미와 함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들도 덩달아 줄어들 것 같았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 속을 채워나갔다. 김장을 하는 도중 김치를 한 번 잘라 먹어 봤는데,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과연 일품이었다. 감격스러운 맛에 힘을 얻어 금세 50포기의 배추를 김치로 탈바꿈시켰다. 양념 속을 채우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완성된 김치는 생각보다 많았다. 각자 가져온 통에 김치를 콕콕 눌러 담아도 김치가 많이 남았다. 대부분 1인 가구인지라 겨우내 먹을 김치를 빼 놓고도 몇십 포기의 먹음직스러운 비건 김치가 더 남게 생겼다. 이 많은 김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지역에 사는 독거청년들에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면서 동의했고, 김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배송해 주기로 했다. 다음 날 비건 김치를 나누고 싶다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장장 일주일에 걸쳐 비건 김치 배송을 마쳤다.

## 공익활동이 별거나



비건 김장에 도전한 첫 해는 한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던 때였지만, 김치를 건네는 마음과 받는 마음 모두 외롭지 않았다.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고, 또 담근 김치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울한 마음도 많이 가벼워져 있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두가 그러했다. 김치는 날이 갈수록 맛있어졌고, 김치찌개에 쓸 정도로 익었을 즈음엔 여러 모로 추웠던 그해 겨울도 마침내 끝이 났다. 김장에 참여했던 여섯 명 모두 비건 김장을 한 해만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다음 해도 또 다음 해도 계속해서 비건 김장을 했다. 그러는 사이 나도 어느덧 배추 50포기가 두렵지 않은, ‘김장 좀 해본 사람’이 되었고 더불어 누군가에게 채식을 지향하는 삶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게 됐다.

올해는 비건 김장을 시작한 지 4년차다. 역시 올 가을에도 김장 일정을 잡아 두었다. 매년 김장에 참여하는 한 친구는 ‘자기 집 김장도 안 도우면서 왜 다른 곳 가서 김장을 하느냐’고 부모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했다. 그 친구의 사례를 들으며 나도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왜 나는 이 김장 모임에 진심인 걸까?’

내게 비건 김장 모임은 단순히 김치를 공급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는 모임이다. 동시에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요즘 들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관계와 관계를 잇고, 기후위기라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건 김장만큼 좋은 게 없다. 



## 비법 전수: 비건 김장 레시피

올해 겨울은 김치 부자들만 해 먹을 수 있다는 김치볶음밥, 김치찌개도 실컷 해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건 어떨까? 이 지면을 빌어서 여러 해의 시행착오를 걸쳐 완성한 비건 김장 레시피를 공유한다.

**준비물** 절임배추 50포기, 찹쌀가루 800g, 굵은 고춧가루 6kg, 다진마늘 200g, 다진 생강 200g, 꽃소금 600g, 설탕 1.6kg, 무 12kg, 쪽파 5.6kg, 홍갓 4kg, 청갓 5.6kg, 무청 50줄기, 미나리 1.6kg, 표고버섯 500g, 다시마 500g

### 레시피 (50포기, 절임배추 100kg 기준)

1. 야채 준비      무, 쪽파, 홍갓, 청갓, 무청,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2. 채수 만들기      끓는 물 35리터에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넣고 10분간 끓인다.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고 잡맛이 나므로 주의한다.
3. 찹쌀죽 만들기      채수에 찹쌀가루를 넣고 20분 끓여준다.
4. 양념 만들기      다진마늘, 생강, 소금, 설탕을 섞는다. 연두가 있으면 첨가해도 된다.
5. 속 만들기      양념과 찹쌀죽을 섞고, 거기에 준비한 야채를 골고루 섞어준다.
6. 버무리기      배춧잎 사이사이 김칫속을 골고루 바르고, 가장 바깥쪽 이파리로 속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말아준다. 잘린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보관한다.



공익활동의 도구: 합창

#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연합한다

## 글 정의정

평일 낮에는 인터넷 서점에서, 평일 밤에는 쿼어페미니스트 책방에서 책을 읽는다. 주말에는 아는언니들에서 노래를 한다.  
(사진 아는언니들 제공)

아는언니들은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의 회원 소모임 합창단이다. 언니네트워크 행사 축하공연을 위해 몇 명의 회원이 모여 일회성으로 노래를 부른 경험이 시작이었다. 이 활동이 마음에 든 사람들은 계속 활동하기 위해 소모임을 꾸렸다.

언니네트워크 회원 소모임은 여러 개가 있는데, 때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모임이 생기기도 한다. 현재 다른 소모임으로는 영화 보는 모임,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 TRPG 모임, 클라이밍 모임 등이 있다. 아는언니들은 2013년 시작해 이제 11년 차가 되어, 회원 소모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열 명 남짓으로 시작한 모임은 점점 늘어나 올해는 활동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마흔 명 남짓, 정기공연에는 스물다섯 명이 나섰다.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것. 공익활동의 사전적 의미다. 이 소모임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노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 친밀과 돌봄

합창 연습은 3월부터 11월경, 일요일 오후마다 진행한다.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에 나와 몸을 풀고 목소리를 내기 전 생활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단원이 많이 나온 날이면 연습 2시간 중에 30분 넘게 생활 나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다. 입사 소식이나 퇴사 소식, 생일, 놀러 갔다 온 이야기, 어느 병원이 발목 뻘 데를 잘 봐줬다는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이 나온다. 개인 정보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어제 뭘 먹었는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간이 쌓일수록 나누는 생활이 늘어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밀과 돌봄의 운동을 서로에게 해준다. 명절에 원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추석에 나와서 먹을 것을 나눠 먹는다. 집에 안 입는 옷을 죄다 가지고 나와서 옷을 나눠 입는다. 남은 시간에 만나서 농구하고 클라이밍을 다니고 달리기 한다. 가족은 될 수 없지만, 가족이 줄 거라 기대하는 친밀과 돌봄의 어느 부분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 운동의 언어

우리는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고자 하는 바람과, 비혼과 페미니즘을 담은 노래를 주로 부른다. 우리의 모임을 수식하는 단어는 계속 바뀌어왔다. 처음에는 ‘생활 밀착형 비혼여성 코러스’로 시작해, ‘비혼여성 레인보우 페미니스트 합창단’이었다가 이제는 ‘비혼, 퀴어, 페미니즘을 노래하

는 합창단’이다. 바뀌어 온 과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비혼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자신의 의제로 가져가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고, 더 이상 ‘여성’이라는 말로 우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여성이라는 호칭을 빼기도 했다.

수식어를 바꿔왔던 시간 속에는 합(合)해지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어울리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몇 있는데, 숨쉬듯이 못된 말을 하는 반(反)페미니스트들도 힘들지만, 삶과 정치를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페미니스트들 역시 어울리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전자는 말이 안 통해서, 후자는 기나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두를 포괄하려다 보니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질수록 남의 말을 곱씹어야 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페미니즘을 노래하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노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하는 데 쏟아야 한다.

##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합창에서 ‘합’은 여럿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단어만 보면 아마추어 합창단은 합창이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다. 그들은 모두 따로 놀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뮤지컬 발성으로, 어떤 이는 아래위로 4도를 넘지 않는 놀랍게 집중된 음역으로, 누군가는 견잡을 수 없는 친화력으로 자신의 파트를 벗어나 남의 파트를 부르는 걸 듣고 있어야 한다.



합창은 유구한 운동 방식 중 하나다. 합창은 내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자기 목소리를 깎아내고 남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같은 때 같은 에너지로 소리를 낼수록 더욱더 큰 소리가 난다.

## 논쟁하는 법

우리는 단원 중 한 명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비혼주의 합창단이 과연 결혼식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게 옳은가를 두고 논쟁했다. 동물권 감수성이 낮음에 개탄하며 일주일에 한 번 연습 후 회식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시도를 하다 유야무야 됐다. 잘 합치지 않지만 분쟁하지도 않는 회색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갈등이 쌓여야 한다. 몇은 반목하고 몇은 나간다. 굳이 정치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랑 사귀었다 깨졌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싶거나, 밥벌이의 고단함에 치이거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시살이가 힘들어 몸이 고장나거나. 그래서 버티고 살아남은 동아리와 사람의 무리를 보면 가슴이 찡하다. 같은 인간들끼리 모여서만도 안 되고, 다른 인간들끼리 모여서만도 안 되는, 이상한 경계.

## 즐거움

노래는 즐겁다. 시위에 나가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노래를 틀어놓고 걷는 게

훨씬 신난다. 마찬가지로 시위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노래를 부르면 더 좋다. 마음대로 소리는 안 나올지라도 같이 더듬더듬 악보를 보는 과정은 성취감을 불러일으킨다.

## 무자본의 자유

합창은 무엇보다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 운동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공터에서 사람만 모이면 가능하다. 맨땅에서 뒤편 하고 싶으면 일단 합창단을 만들라고 추천하고 싶다.

## 사랑과 죽음이 함께하는 곳

작년, 단원 하나가 공연에서 다른 단원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일주일 뒤 단원 한 명이 죽었다. 사랑과 죽음이 짧은 사이 휘몰아친다. 단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떠나갔다. 가끔 죽은 자들을 둘러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일 년에 한 명 죽다가, 두 명 죽고, 세 명 죽고, 다섯 명 죽는, 피보나치 수열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본인상과 함께하는 나날들.

2015년, 아는언니들은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추모 공연에 함께했다. 그 외에도 시위가 있는 곳에서 불러주면 어디든 가려고 노력했다. 어느 곳이나 죽음이 있고 위로가 필요했다. 노래는 함께 우는 울음이다. 모두가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부를 수는 없기에, 먼저 부르는 사람이 되어 대신 운다.

## 축적

코로나 시기 공연하지 못한 경험을 제외하고, 아는언니들은 올해를 포함해 총 9번의 정기공연을 올렸다. 공연장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각지의 공연 가능한 장소를 찾아다녔고, 공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해가 갈수록 능숙해졌다. (쉬워지지는 않는다. 늘 어렵다. 능숙해질 뿐이다)

올해 공연의 주제는 ‘안녕, 안녕’이다. 떠나간 사람들과 새로 올 사람들을 환영하는 말. 10년이 지나 남아 있다는 건 사람을 맞고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뜻이다. 남은 사람들은 조금씩 경험이 쌓인다. 실제 일을 하는 경험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쌓이는 경험이기도 하다.

비혼, 퀴어, 페미니즘의 기치 아래 모였지만 우리는 모두 다르다.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상처 입지만, 아직은 할 게 남아 있어서 여기 있다. 남아 있는 사람도 비슷한 마음이다. 마냥 버티는 건 아니다. 노래는 즐겁다. 그럼에도 지치고 힘들 때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남아 있겠다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결속된 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부른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르게 부를 뿐이다. 2012년 게이 커플을 아버지로 둔 10살 소피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동성결혼을 지지해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낸다. 오바마의 답변 중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Our differences unite us.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연합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른다. **아는언니들**



공익활동의 도구: 미디어

# 히파 디비지는 ‘나는 솔로’

글 오수경

재미있게 본 드라마와 드라마보다 더 흥미로운 세상에 관해 수다 떨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어 공익 활동가가 되었고 경향신문, 한겨레21 등 매체에 글을 쓰는 마감노동자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드라마의 말들』이 있다.

남의 연애는 드라마 시청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과몰입’하게 된 것은 <환승연애> 때문이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옮겨갔고 그렇게 <나는 솔로>(이하 <나솔>)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애청자가 되었다. <나솔>의 어떤 면이 나를 티브이 앞으로 끌어당겼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술>의 매력은 ‘날것미’다. 이 날것미를 다른 말로 하면 ‘현실성’일 것이다. 그 현실성 때문에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인의 연애를 지켜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더 몰입할 수 있었다. 그런 특징에 관해 남규홍 피디는 이렇게 말한다. “2023년의 사랑을 보려면 <나는 솔로>를 보라”고. ‘솔로나라’는 2023년 한국사회의 압축판이며 출연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가치관을 대변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나술>이 드러낸 2023년의 인간과 사회는 어떨까?

## ‘사랑’ 불가능한 시대의 연애와 결혼

그야말로 “허파 디비지계” 했던 ‘16기’를 통해 <나술>에 입문한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들에게 ‘6기’를 예로 들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곤 한다. 6기는 연애뿐 아니라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나술>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기수다. 6기는 두 커플이나 결혼에 성공했고, 그중 한 커플 사이에서는 아이까지 태어났다. <나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나술>을 ‘인류학 보고서’로 보고 있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의 1차 목적은 연애와 결혼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여러 커플이 성사되고 결혼으로 이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현실세계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비연애·저출생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솔로나라’만은 예외인 셈이다.

물론 연애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바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술>이 보여주는 연애·결혼관의 문제는 단지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문제적 인간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나술>은 모태솔로와 ‘돌싱’은 “에고 어찌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저러니 솔로(이혼했)지”라는 놀림을 받기 일쑤고, 연애나 결혼을 안 하면 ‘비정상’ 상태로서 외롭고 불행하다고 여겨지게 하는 사회적 편견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나술>의 입장은 각 인물이 솔로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과 ‘자기소개’할 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나술>은 자신의 매력을 비교적 낭만적으로 어필하는 다른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들이 솔로 나라에 입성하며 타고 온 차나 메고 온 가방 브랜드,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재산 규모가 어떠한지를 주요하게 어필한다. 그래서 자기소개 시간에 가장 환영 받는 말은 “서울 자가”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로 밝혀지는 순간이나 직업은 별로인데 집이 부유하거나 자가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는 출연자들의 놀라는(환호하는) 얼굴을 놓치지 않는다. 지

극히 속물적으로 여겨지는 이 반응은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최종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이다. 연애는 낭만이지만, 결혼은 현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는 연애·결혼 ‘시장’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연애·결혼에 관한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쩌면 <나술>이 보여주는 속물성은 연애·결혼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른다. 결혼하고 싶은가? 능력을 보여줘! 그래서 이 세계는 정글과 같다. 이 정글에서의 힘은 능력과 매력이고 능력과 매력은 외모와 재력(직업)을 통해 극대화된다. <나술>이 6기부터 미모를 상징하는 ‘옥순’이라는 캐릭터를 투입한 것은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 “존에 데리고 다니는 존잘”

영숙, 영자, 정숙, 영수, 영철, 영식 등 <나술>은 고정된 이름에 캐릭터성을 부여한다. 그중 옥순은 ‘예쁨’을 담당한다. 그래서 카메라는 여성 출연자들이 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남성 출연자들이 옥순이 등장한 순간부터 긴장과 설렘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주시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제작진과 출연진의 바람대로 옥순은 이른바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솔로 나라 권력 구도에서 ‘포식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10기’ 영호는 “(옥순 외모가) 거의 연예인이자 아니냐.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더라. 미인을 데리고 다니는 능력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내가 선글라스 쓰고 있으니까 ‘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 인거지”라는 말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성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대상화”했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다. ‘주의’ 조치로 넘어가긴 했으나 <나술>의 출연진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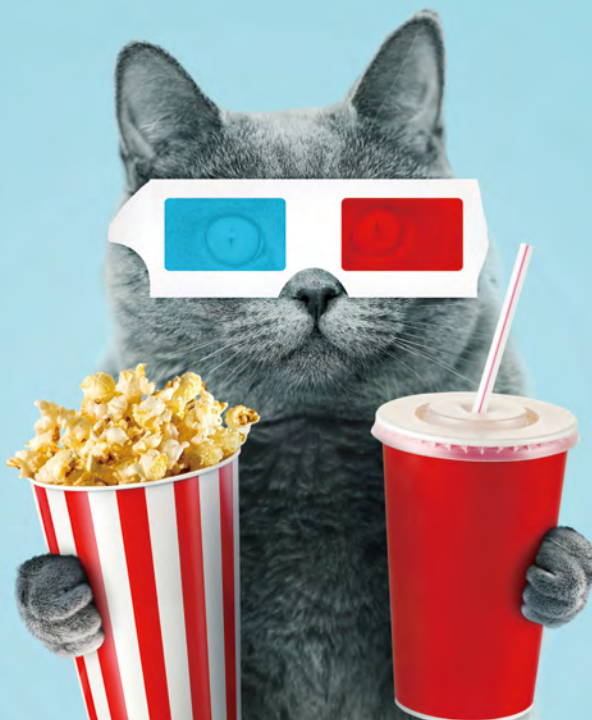
이런 <나술>의 젠더 가치관을 보여준 또 하나의 계기는 ‘16기’ 상철이었다. ‘시애틀 유교보이’로 소개된 상철은 유년 시절 미국으로 건너 가 미국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인데 첫 회부터 “키친(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며 “부엌은 와이프의 공간”이라는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가 원하는 아내는 “크게 고집 강하지 않은 예의 바른 스타일”의 “하우스 와이프”였다. 비록 프로그램의 해설자 역할을 하는 MC들을 통해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긴 했으나, 제작진은 상철의 이런 발언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솔로 나라의 젠더 가치관을 드러냈다. <나술>의 이런 면 때

문에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지향과는 달리 누군가에게는 ‘비혼 장려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2023년의 사랑을 보려면 <나는 솔로>를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던 남규홍 피디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옳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결혼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 번듯한 직장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재력에 외모 자산까지 갖춘 이들 간의 거래일뿐이다. 다만 그들이 보여준 “2023년의 사랑”은 지극히 현재적이되, 젠더 관점에서는 과거적 사랑이다.


## 좌표 찍기와 혐오 생산

<나는 솔로>가 “2023년의” 무엇을 보여주는 게 사랑 말고 또 있다. 혐오다. 출연진 중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거나, 유명세를 활용해 소위 ‘잘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페미’ 논란이다. ‘4기’ 정자는 자신을 폭력적으로 몰아붙이는 영철로 인해 힘들어 하다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된 출연자다. 영철의 이런 행동은 방심위 권고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문제적이어서 방영 당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곧 반전이 일어났다. 일부 시청자들이 정자의 과거 블로그 게시물 중 “페미들이 자주 사용하는 남성 비하용어”를 찾아낸 것이다. 일부 시청자들





은 영철의 문제보다 ‘페미’인 정자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며 “정자에게 막 말한 영철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폭력보다 ‘페미’가 더 나쁜 것이다. ‘페미’ 논란은 ‘12기’ 현숙도 피해 가지 못했다. 연극배우인 그녀가 과거 ‘페미’ 연극에 출연했다는 게 논란의 사유였다. 일부 시청자들은 현숙이 출연 당시 “임신하면 여성의 일에 불리한 것 같다”며 자신을 ‘혼후관계주의자’라고 밝힌 것과 ‘페미’ 연극 출연 사실을 연관지어 현숙을 비난했다. 자신의 소신조차 ‘페미’라는 혐의가 적용되면 불온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여성혐오적이다. 이뿐 아니라 여성 출연자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이른바 ‘페미 감별사’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게시물들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콘텐츠로 제작되고, ‘논란’이라는 딱지가 붙인 상태로 인터넷 뉴스 기사로 유통되곤 한다. 혐오의 악순환이다.

이런 흐름은 관음증을 관심으로 착각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 하는 일부 시청자들과 ‘혐오 장사’ 하는 콘텐츠 제작자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지만, 마치 좌표 찍기 하듯 논란이 될 법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도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출연진을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하는 제작진의 책임이 크다. “2023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제작진의 포부는 도리어 “2023년의 논란” 혹은 “2023년의 혐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적’ 영향력을 갖춘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 감각도 두루 갖춘 <나술>을 기대해본다. 

공익활동의 도구: 건강

# 당신의 몸은 안녕한가요?

글 하늬

사회와 구조의 폭력이 어떻게 몸을 관통해 체현되는지 공부하는 중이다.  
새로운 공부와 평화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서로 만나길 기대한다.

2019년 겨울, 정밀 건강검진을 통해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개월 휴직을 결정했다. 얼마나 쉬어야 할지 확신도 없었지만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뜻밖의 휴직에 속상했고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주변 동료들은 잘 쉬라고 다독였지만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러다 친한 활동가의 제안으로 인권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쉬고 재충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사업 <일단, 쉬고>에 선정되었다.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 함께 지원을 받은 활동가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PT를 등록해 운동을 시작한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미뤘었던 요가, 한쪽 어깨가 나빠져 일상생활이 불편해 시작한 재활 필라테스,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등 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 있는 참여자들의 후기를 읽으며 몸과 건강, 쉬에 대한 고민의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나를 포함해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몸을 챙기는 운동을 시작하길 망설였고 일이 많고 바쁜 시기에 쉬를 결정하는 것에 주저했다. 아마도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고 나서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을 하나씩 장만했다. ©하늬



활동가 A: 누군가를 위해, 사회 변화를 위해 나의 몸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만 익숙했던 내가 '운동'이라는 것에 나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비워두고 돈을 지불했다. 예전이라면 아깝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이었다.

B: 사실 휴가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불행히도 나 스스로의 휴식에 그리 관대하지 못한 탓에 쉽게 떠나기가 어려웠다.

C: 그러면서도 운동의 상황과 새로 제안 받은 일들을 떠올리며 '그래도 아직은 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젠가 '쉬기에 괜찮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 시기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활동가들에게는 각자의 현장이라는 것이 있다. 인권침해 현장일 수도 있고, 집회나 시위 또는 연대의 장소일 수도 있고, 교육의 공간일 수도 있다.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거나 몸을 써야하는 활동에 익숙하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줄 것이라는, 힘들지만 잘 버텨줄 것이라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무언의 믿음도 있었다. 그래야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C: 지난 세월 동안 뭉친 몸과 마음이 단번에 풀리지 않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서둘러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빨리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니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올 때는 자꾸 초조해졌다. 마치 활동할 때의 습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만큼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내가 내 몸을 일하듯이 대하고 있었다.

A: 몸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도구가 아니며 내가 더 알아야만 하고 이해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

\* 인권재단 사람의 <일단, 쉬고> 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 후기 중 일부를 발췌했으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활동가 C의 말처럼 나 역시 몸을 일하듯 대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운동인 만큼 어느 정도 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했고 몸이 예상과 달리 더 아프거나 약해지면 화가 나기도 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휴직 초반의 나는 몸을 일방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여러 활동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 쉬를 결정하기까지 결코 간단하지 않았을 상황과 여유, 조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을 챙기는 쉬가 무어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 몸을 잊은 채 살아가는 당신은

약 10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나와 동료들이 하는 일이 사회 변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했고 실제로 함께 가슴 벅찬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변화의 과정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갔다. 몸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결정했음에도 죄책감을 벗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아픈 몸을 발견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일정 시간 치료와 회복을 잘 거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의 질병에 익숙해질 때 즈음 몸은 또 다른 아픔을 들이밀었다. 예전의 속도와 방식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태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픈 몸으로 쉬게 되자 억울한 감정이 생겨났다. 적어도 나에게 ‘쉬’이란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충전 기간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쉬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 이러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뉴스를 꺼 버렸고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으며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되도록 사회문제와 관련이 없는 책부터 읽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픈 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읽지 않았을 이야기였고 알고 싶지 않았을 이야기였다. 나와 그들의 질병은 달랐고 상황도 동일하지 않았지만 그 글들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 혼돈, 불안함을 먼저 마주했고 그 감정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낼 수 있었는지를 들려주었다. 병에 걸리면 치료하고 회복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환상일 수도 있음을, 나아가 ‘건강’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순간 변화하는 역동의 상태라는 것을 어렵듯이 배우게 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몸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음에도 나는 몸이 언제나처럼 의지대로 움직이고 기능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야 내가 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내 옆에 존재했음에도 나는 보지 못했다.

주변에 있는 활동가들을 둘러보았다. 사회 변화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그들은, 마치 몸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았다. 늘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쌓여 있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과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사회활동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때로 혐오의 시선과 적대의 말들을 직면하는 순간도 많았다. 이들 중에는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파도 버티는 사람도 있고,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으며, 여전히 몸이 의지의 문제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프다가 어느 순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양함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 뜻을 모은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그 과정에는 ‘건강한’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만 같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프기 전까지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활동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몸을 돌보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아파서 쉬는 것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되니 저마다 자신들의 몫을 다하기 위해, 몸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아프더라도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가를 오래 쓰거나 질병으로 인해 유급휴직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회사나 업체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로 운용되는 단체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반가운 것은, 몇 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가들의 질병과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소개했던 ‘인권재단 사람’의 〈일단, 쉬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는 긴급의료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정밀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온 뒤무지개재단’에서도 관련 활동가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지원하려는 노력은, 당사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터운 보호막이 되어준다.


## ‘몸’을 돌본다는 것은

아픈 몸이 되면서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아픈 몸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니, ‘몸’이라는 렌즈로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인구집단의 질병과 건강을 연구하는 보건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와 구조, 집단의 문화, 차별과 폭력





이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는지 배우는 중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한 가지 알게 된 점은 다양한 집단의 건강 연구가 있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건강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집단을 연구할 수 없지만 활동가로서 알고 싶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또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묻는 연구도 많지 않다. 연대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건강이 아닌,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을 묻는 것 말이다.

몸을 가진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어떻게 몸을 관통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지 감각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 외부와 내부 모두 통틀어서 말이다. 잠시만 멈춰서 오늘 나의 몸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허리가 아프진 않은지, 눈이 빠근하지는 않은지, 발바닥에 통증은 없는지 말이다. 만약 유난히 불편한 곳이 있다면 가만히 그곳을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겠다. 한동안 아무생각 없이 몸을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길 제안한다. 현재 나의 몸 상태가 매순간이 쌓여서 생긴 결과라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뒤따라가 보자. 그 길은 여러 갈래일 테고 서로 교차하기도 하며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고 공기처럼 스며든 것일 수도 있다. 무엇들이 연결되어 지금의 나로서 존재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안녕한가. 



2023 공익활동 트렌드 리포트

함께 내딛는 한 걸음

-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seoulpa 2023-B-003)
-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 대표전화** 02-734-1109
- 이메일** contact@seoulpa.kr
- 홈페이지** www.seoulpa.kr
  
- 에디터** 김미선, 조경숙
- 디자인** 스튜디오 코스모스 (weareincosmos@gmail.com)

\*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